

제5권 1호 (통권15호)

1999/봄

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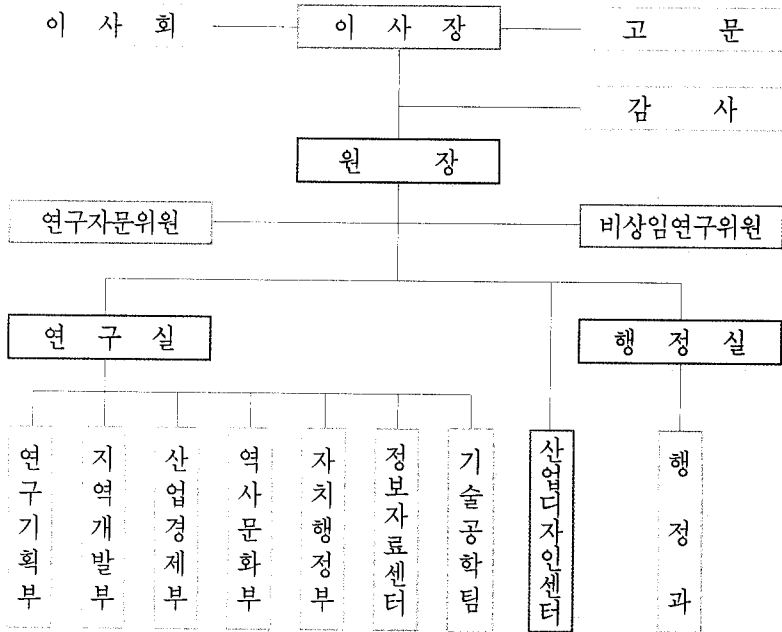
새로운 밀레니엄과 21세기 충남의 비전(1)

열린 충남

The Chungnam Review

충남발전연구원

충청남도과 도내 각 시·군이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연구기관으로서
세계속의 충남을 열어가는 최고의 전문 연구기관을 지향합니다.



● 연구기획부

연구사업의 기획·조정·총괄
각종 연구계획 수립
관광·지역복지 관련 연구

● 지역개발부

도·시군 지역개발에 관한 연구
농촌·도시개발계획 및 정책연구

● 산업경제부

지역경제·산업개발 연구
지역의 환경계획 수립·정책연구

● 역사문화부

역사문화의 조사·연구
문화재 발굴·보전·관리방안 연구
문화행사 및 이벤트 관련 연구

● 자치행정부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시책개발
도·시군정 및 의정 발전전략 연구

● 정보자료센터

자료의 수집·발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도민 자료실 운영

● 산업디자인센터

중소기업의 발전방안 연구
산업디자인 개발 및 홍보·지원방안 연구
홍보표지판 디자인

● 행정과

연구사업 지원
인사·예산 및 일반 행정 업무
각종 행사계획 수립

열린 충남

The Open Chungcheong



○ 계룡산 준경

충남의 美 계룡산

시사 칼럼 ① 충남발전연구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황용주

특집 · 새로운 밀레니엄과 21세기 충남의 비전(Ⅰ)

- | | | |
|----|------------------------|-----|
| 16 | 21세기를 향한 충남의 신 정신문화 창조 | 임선빈 |
| 30 | 21세기 충남의 위상과 발전 전망 | 이강선 |
| 37 | 21세기를 향한 충남의 도시개발 전략 | 김정연 |

- | | | |
|------|------------------------|-----|
| 충남논단 | 53 충청남도 산업연관표 | 이종상 |
| | 72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조사현황과 과제 | 서정석 |
| | 96 태안군 지역 자연환경의 고찰 | 여환구 |

- | | | |
|----------|---------------|-----|
| 시군현장 답사기 | 105 금산군 · 서천군 | 이인배 |
|----------|---------------|-----|

- | | |
|----------|-----------------|
| Homepage | 114 각 연구기관 홈페이지 |
|----------|-----------------|

- | | |
|---------|--------------|
| 충남 data | 52 충남의 천연기념물 |
|---------|--------------|

- | | |
|--------|--------------------|
| 연구원 소식 | 110 원장 동정 · 연구원 사업 |
|--------|--------------------|

- | | |
|-------|----------------|
| Index | 113 98년 봄호~겨울호 |
|-------|----------------|

- | | |
|--------|-----|
| 독자와 함께 | 114 |
|--------|-----|

- | | |
|---------|-----|
| 회원모집 안내 | 115 |
|---------|-----|

발행인 : 황용주
 편집인 : 박상돈
 등록번호 : 대전 바-1018
 등록일 : 1995년 11월 30일
 발행일 : 1999년 4월 19일
 발행처 : 충남발전연구원
 (우) 302-12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사화연금회관 18층
 전화 : 042-472-1900
 팩스 : 042-472-1912
 디자인 · 인쇄 : 나라문화사
 전화 : 042-632-8387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을 전재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충남발전연구원'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계룡산 준경

충남의 美 - 계룡산의 四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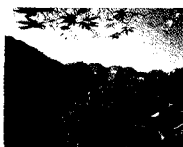
차령산맥과 소백산맥 사이에 위치한 해발 845m의 계룡산은 예로부터 한 나라의 중심이 되리라던 예언을 품어 온 곳이다. 이처럼 계룡산이 많은 사람들의 책과 이야기 속에 오르내린 것은 산세의 아름다움과 서린 정기가 빼어났기 때문이 아닌지 모르겠다.

이런 계룡산에는 지금까지 서남쪽에 신원사, 동쪽에 동학사, 서북쪽에 갑사, 북쪽에 구룡사라는 사찰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중 구룡사는 터만 전해지고 있다. 특히 갑사는 백제 구이신왕때 아도화상이 창건한 명찰

도량이다. 이 사찰 뒤로 연천봉·문필봉·망대봉·삼불봉·수정봉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고 갑사를 거쳐 삼불동을 넘어 동학사 계곡으로 내려가면 아름다운 오누이의 이야기를 안고 서 있는 남매탑을 만날 수 있다.

봄날 벚꽃·진달래꽃이 지천으로 만개한 동학사 언저리에서 만나게 되는 지고지순한 오누이의 자유자재한 삶의 모습이 얼핏 동학사에 이르면 비구니의

모습으로 바뀌고 그 자리에 우람한 강원이가 자리잡고 있다.



충남발전연구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황 용 주

충남발전연구원장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충남발전연구원은 1995년 세계화 지방화에 부응하여 충남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 전략을 체계적으로 연구·구상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200만 도민의 힘을 모아 도정의 싱크탱크로 출범하였다. 개원 초기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도민의 성원으로 대내외적으로 명실상부한 종합정책 연구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아직까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부단한 노력과 200만 도민의 성원이 계속 된다면 환황해권 시대를 이끌어 가는 공익연구기관으로 자리를 굳히면서 21세기를 향한 힘찬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1999년은 우리 연구원이 개원 5년째를 맞이하는 해일뿐만 아니라 한 세기를 마무리하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역사적인 해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시점에서 충남발전연구원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그 성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조망하는 것은 연구원이 하나의 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이라고 생각한다.

아래에서는 연구원이 개원한 1995년부터 현재까지의 발전과정을 주로 연구업무와 관련하여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대망의 21세기를 맞이하여 연구원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연구원의 어제와 오늘

충남발전연구원은 1995년 6월 15일 지방연구원 가운데서도 비교적 늦은 아홉 번째로 개원하였으며, 초

대 원장은 국립 공주대 안승주 박사가 역임하였다. 같은 해 8월 21일 3개 부서 5명의 연구진을 채용하고 본격적인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으나, 정책연구과제 4건, 연구조성사업 4회 등 제한적인 연구를 수행하는데 그쳤다.

다시 말해, 개원 1차 연도인 1995년에는 연구인력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주로 연구를 위한 기반구축 및 선발 지방연구원들의 연구원 운영기법, 과제수행 방법 등에 대한 자료수집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도와 시군이 공동 출연한 기금적립액 30억 원을 차질없이 확보하여 연구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원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1996년에 들어서면서 기존의 연구기획부, 산업경제부, 지역개발부 등 3개 부서 외에 역사문화부와 산업디자인부 등 2개 부를 신설하고, 신규 연

구직 6명을 채용하면서 비로소 도정 및 시군 정책과 관련한 연구업무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기획조정, 지역개발 관련 조사 및 정책연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제한되었던 연구사업의 범위를, 역사·문화에 대한 체계적 연구, 시각 및 제품디자인까지 확대함으로써 도민이나 자치단체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고, 도나 시군의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체계 구축 및 연구조성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호남고속철도 천안-공주-논산 직결노선의 타당성 논리개발”, “수도권 중소기업 공장입지 규제완화 시책에 따른 충청남도의 대응방안” 등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충청남도의 대응논리를 개발함으로써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표-1〉 참조).

이 시기의 연구원 사업은 크게 연구과제사업과

1995년 연구사업 실적

구 분	과 제 명	건 수
정책연구	• 객관적인 도정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4
	• 충남의 삶의 질 현황과 앞으로의 목표	
	• 지역경제 발전 6개년 계획 수립	
	• 안면도 관광지 조성계획 검토	
	• 위 크 슝 : 2000년대 충남의 발전비전	
연구조성사업	• 심포지엄 : 21세기를 여는 충남의 발전방향	4
	• 열린충남 발간	
	- 21세기를 여는 충남의 발전전략(1)	
	- 21세기를 여는 충남의 발전전략(2)	

연구조성사업, 발간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연구과제사업으로는 정책(현안)연구사업 16건과 수탁(용역)연구사업 10건을 수행하였고, 연구조성사업으로 심포지엄 1회, 토론회 및 세미나를 4회 개최하였다. 발간사업으로 연구원 계간지인 「열린 충남」을 4회 발간하였으며, 연구원 안내 및 이용 방법을 소개한 홍보물(브로셔)을 1회 제작, 배포하였다. 기타 국내 지방연구원들과 공식·비공식적 교류활동을 통해 연구 및 행정업무와 관련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선발 지방연구원들의 노하우를 습득하고,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여전히 연구의 전문성 결여, 연구원에 대한 시군 지방자치단체 및 도민의 인식부족, 시군 현안과제 연구실적 미흡, 도심에 위치한 연구원의 열악한 연구환경, 연구경험의 부족, 통계자료의 부족 등으로 인해 질 높은 연구성과물을 요구하는 도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욕구를 충족하는데는 미흡하였다.

이와 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구원 출범 2돌을 맞이하여 연구과제사업 및 연구조성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연구역량 및 홍보활동 강화에 주력하고, 연구원 기금 확충에도 노력한 결과 연구원 운영의 기틀을 마련했던 해로 자체 평가할 수 있다.

1997년은 연구원 운영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즉, 기본과제 3건, 현안과제 45건, 수탁과제 14건, 학술회의

및 토론회 11회, 발간사업 7회 등 연구성과물들이 안정적으로 생산되었으며, 시·도 연구원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지방연구원간 정보 및 연구자료 교류사업 등도 활발하게 추진하였다(〈표-2〉참조).

또한 지역경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목표 기금의 안정적 조성, 자치도정에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의 인력확충 및 연구영역 확대, 홍보활동 강화로 시군 용역 증가 및 발주기관 다변화 등 연구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바람직한 여론을 조성하고, 도민들의 민의 결집과 중앙정부 반영을 위한 노력, 발간 및 교류사업 확대로 지역개발과 관련한 정보 제공 등 연구조성사업 활성화로 연구원 이미지 제고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수요자인 시군에 대한 현안과제 연구실적 미흡, 용역사업 위주의 연구, 기구개편에 따른 필요인력 미충원 등의 문제점도 도출된 시기였다.

1998년은 새정부 출범과 제2기 자치도정 원년을 맞이하여 많은 변화와 함께 도민의 욕구증대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와 외환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방적 대응방안 모색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연구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자치도정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시기였다. 따라서 내외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어 기존의 수탁과제 중심의 연구에서 기본과제 중심으로 연구사업의 성격을 전환하고, 연구성과물의 연구원 내 검증 을 위해 Inner Forum 제도 도입, 여건이 취약한 도내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디자인 자문 및 개발을 위해 도가 추천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디자인 홈닥터 제도의 도입 등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표-3) 참조).

1998년 연구성과물은 기본과제 12건, 현안과제 76건, 수탁과제 14건, 디자인 홈닥터 36건, 학술회의 12회, 발간사업 12건 등으로 양적으로 어느 해보다도 풍성한 한 해였다. 그러나 IMF 체제하에서 연구환경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었으며, 특히 수탁과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재정여건이 급속히 악화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한 해였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연구환경이 열악했던 은행동 시대를 마감하고 둔산 신시가지로 연구원을 이전함으로써 쾌적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였고, 공식이었던 연구실장의 영입, 연봉제의 도입, 기본과제의 우선적 수행 등 연구원이 명실공히 충남을 대표하는 싱크탱크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한 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99년 현재 충남발전연구원은 지역 및 도·시군정 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제시와 정책모형 개발을 통하여 21세기 지방화 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연구기관으로서의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정책 및 지방논리개발에 기여하는 실용적인 연구와 연구성과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학·연·정 협력관계 강화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도 연구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연구원 재원확충을 위한 경영노력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즉, 충청남도의 싱크탱크로서 '지식경영 기반구축', '현장경험의 지식화', '연구분위기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철저한 예산절감 및 용역사업 활성화를 통한 잉여금을 기금으로 적립하고자 한다.

따라서 1999년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추진하고자 한다.

연구역량을 강화한다. 공학분야의 연구진을 강화하고, 연구원 직급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연구시스템을 강화한다. 도정에 관한 경험적 사례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활용하고, 연구결과를 축적 및 환류(還流)한다.

연구의 생산성과 질을 높인다. 연구인력의 Pool 관리, 협력체제 강화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연구의 질 관리를 위해 원내 토론회를 강화하며, 연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소원장제의 개념을 도입하여 운영한다.

연구진의 자질을 향상하고 학습을 강화한다. 벤치마킹 대상 연구진을 육성하고, 전공분야 연구의 연속성을 최대한 보장하며, 현장 실무경험 기회를 마련토록 한다.

1999년 연구사업 계획

구 분	내 용	비 고
기본과제	• 지역특성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 정책형성의 기초자료 제공	연 12건
연구	• 거시적 사회조류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정책대안 제시	
현안과제	• 도정 및 시군정의 현안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	연중 수시
연구	• 도정 및 시군정의 자문기능 담당 및 유대관계 강화	
	• 발주기관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수요자 중심의 연구결과 도출	연 10건
수탁과제	• 학연정 공동연구로 질높은 연구성과물 기대	
	• 계약사항 준수로 연구원의 위상제고	20개 업체
중소기업 디자인 홍덕터제	• 디자인 개발여건이 취약한 도내 유망 중소기업체를 선정	
	• 참신하고 독창적인 디자인 개발지원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연 1회
정 기	• 충청남도 핵심시책에 대한 발전전략 모색과 도민의 공감대 형성	
심포지엄	• 심포지엄 개최를 통한 연구원의 역할과 위상을 원내외에 홍보	연 4회
연구	• 지역단위의 각종 현안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토의와 정보교환	
현안문제 세 미 나	• 지역의 특성에 기초한 지역개발 방향과 발전전략 제시	도와 협의추진
조성	• 민선 2기 당면현안인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지방적 차원의 해결방안 모색	
사업	• 도정 현안문제에 대한 전문지식 제공으로 바람직한 정책수행에 기여	연 12회
협력사업	• 열린 도정을 위한 홍보강화로 도민의 공감대 형성	
원 내	• 토론을 통해 질높은 연구결과를 도출하는데 기여	연 4회
토 론 회	• 연구에 임하는 인식과 사고의 전환을 유도	
열린충남	• 지역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 및 정보제공	연 12회
발간 발 간	• 지역논단을 통한 지역내 학연정 학술교류센터 역할	
및 간행물발간	• 원내 연구결과물의 발간 보급으로 대외적 이미지 제고	연 14회
교류 및 보급	• 연구원 홍보자료 제작으로 연구기능 및 연구활동 홍보강화	
사업	• 시군 순회 워크숍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개발전략 지원	연 12회
사 업	• 학연정과 상호교류를 통한 다양한 연구기법 및 정보의 공유	
	• 각종 통계 및 문헌자료의 체계적 수집과 데이터베이스화	연 12회
정보자료센터	• 지역관련 정보의 효율적 제공으로 중핵적 지역정보 유통기능 담당	
기능 강화	• 발간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보급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경영마인드를 제고한다. 부족한 재원은 벌어서 쓴다는 경영전략을 추진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기금출연선의 다변화를 유도한다.

현재 지역경제, 자치행정, 역사 문화, 지역개발, 도시계획, 관광개발, 환경, 산업디자인 등의 분야에서 20여명의 연구진이 기본과제, 현안과제, 수탁과제, 기타 과제 등의 연구에 전념하고 있으며 99년 연구사업과 개원 이후의 연구실적은 <표-4>와 같다.

2. 연구원의 내일

충청남도의 싱크탱크인 충남발전연구원은 다가오는 새로운 천년에 대비하여 충남도민에게 새로운 비전과 자긍심을 줄 수 있는 중추적 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이고 국제적인 안목에서 도의 지정학적 특성에 맞는 중장기 발전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도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환황해권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2030년이면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교류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남도가 환황해권 시대를 주도하는 중심자치단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충남발전연구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첫째, 도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의 충남발전을 투시할 수 있는 천리안을 가져야 하며,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200만 도민에게 충남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꿈과 희망이 영그는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을 건설하기 위한 등대로서의 역할을 충남발전연구원이 수행해야 한다.

둘째, 도민의 욕구를 충족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대부분의 연구는 실용성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본다면 그 연구결과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의 요구를 언제든지 만족시켜 줄 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도민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를 실시간에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연구조성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방연구원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지방연구원의 위상제고 및 연구 know-how 축적을 통해 21세기 충남지역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역내 관련기관 및 대학들과 보다 밀착된 교류 및 연계강화가 필요하다. 자치단체 정책수립과 관련한 연구 및 자문기능의 충실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방문 간담회, 세미나, 공청회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이 요구되고 대학과도 공동연구팀을 구성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충남은 수도권과 접해 있어 기업입지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수도권 생활권에 속해 있어 수도권에 예속될 수 있는 단점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연구원이 이러한 충남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론적인 틀을 짜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입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유인책과 규제완화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한다. 기업하기에 아무런 불편이 없는 사회간접자본, 즉, 고속도로, 항만, 공항, 물류센터 등을 정비하고 확충하는 연구를 주도해야 한다.

다섯째, 충남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 발전하는 문화 르네상스를 주도해 가야 한다.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영역을 사회·경제개발 분야로부터 정신분야에까지 확대하여 도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한 대안과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도민의 정신문화 지평을 더욱 넓혀 가는데 기여해야 한다.

여섯째, 지식정보의 창고 및 터미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연구원은 지역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 가공, 축적하여 지역내 시군 자치단체나 관련 기관, 도민들에게 제공하는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과 지역관련자료를 원하는 도민들이 관련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종합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보자료실에 최대한 역

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원 자체도 첨단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정보 제공자로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 특히 연구원은 도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더불어 시군 단위의 자치단체와 보다 능동적인 관계를 맺어 상향식(bottom-up) 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충남발전연구원은 지금까지의 개별사업별 계획수립에서 벗어나 기초자료의 분석, 개발, 평가와 동시에 정보 자료화하여 지역에 제공해야 하며, 모든 계획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지를 파악하는 지표를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또한 각 지역간, 계층간의 기회균등의 원칙을 보장해야 하며, 주택·교통·환경, 성장관리 등의 각 부분별 전문가뿐 아니라 지방의원, 관련 공무원과 다른 연구기관들이 참가하는 학·연·정 협의회를 구성하여 각 지역별로 발생하는 현안문제뿐만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처해야만 충남지역의 싱크탱크로서 정보화 시대에 그 역할과 공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열린충남**

〈표-1〉 1996년 연구사업

구 분	과 재 명	건 수
정책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칭 '충남무역' 설립방안 연구 • 충남 신용보증조합 설립방안 연구 •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 따른 도유지 활용방안 연구 • 호남고속철도 천안-공주-논산 직결노선의 타당성 논리개발 • 첨단산업(미디어밸리) 유치 영상보고서 제작 협조 • 수도권 중소기업 공장입지 규제완화 시책에 따른 충청남도의 대응방안 • 환황해권 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 방안 • 「여성대상」운용방안 연구 • 「4대권 개발 경영구도」홍보리플렛 디자인 • 국제 경기대회 유치에 따른 지역 대응방안 구상 • 이 충무공 순국 400주년 기념행사 계획 수립 • 공주 백일주, 청양 구기자술 용기 및 포장디자인 • 건강종합센터 건립 및 TV경마장 유치계획 검토 • 「인본경영행정」의 이념과 좌표정리 • 「충남관광 안내판」개선방안 연구 • 「와이드 컬러 홍보판」디자인 연구 	16
수탁연구 사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 권역별 개발경영 사업 연구 • 서산기지 민항기 취항 사업성 연구 • 도청이전 기초조사 연구 • 충청남도 농업종합센터 조성연구 • 백제문화제 행사의 고증과 정리 • 재난 유형별 관리모형 프로그램 개발 • 향교지, 서원·사우지 집필 • 21세기 충남장기발전 비전 연구 • 충청남도 도민현장 제정 • '96 성홍산성 발굴조사 	10

구 분	과 제 명	건 수
연구구성 사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정신 발양 정기 심포지엄 •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 호남고속철도와 국토 균형발전에 관한 토론회 • 백제연구에 관한 학술세미나 • 국가안보와 지방의 역할에 관한 전문가 세미나 	5

〈표-2〉 1997년 연구사업실적

구 분	과 제 명	건 수
기본과제 연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남도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연구 	1
현안과제 연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제3청사 입주에 따른 지역대응 방안 • 환경관련 시설입지에 따른 주민갈등 방안 • 2000년을 향한 1,000일 도정운영 프로그램 수립 • 인본 경영행정의 이념과 추진전략 보완 • 서산시 연도별 유입인구 추산에 관한 연구 • 충남 도정 부문별 장기발전 계획수립 지침 • 도정평가위원 대상 설문서 작성 및 분석 • 충남 이미지통합(CIP) 추진사업 연구 • 21세기를 향한 인본도시 구상 수립 연구 • 천안 성남면 백제고분 시굴조사 연구 • 중부내륙 컨테이너기지 주변 개발구도 연구 	7
수탁연구 사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지표조사 • 청풍명월 쌀 포장재 디자인 개발 • 이원간척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 만세보령 자치시정의 발전전략 수립 • 태안정신 발굴 연구 • 농산물 디자인 개발 • 공주지역 산성조사 연구 	14

구 분	과 제 명	건 수
수탁연구 사 업	• '97 가공제품 포장재 개발 연구	14
	• 조선시대 무과시험 제도 고증연구	
	• 한산 세모시 브랜드마크 로고	

〈학술회의〉

연구조성 사 업	• '97 국제환경포럼	18
	• 환황해 경제권 구축과 충청남도의 역할 세미나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책 방안 세미나	
	• 금강하구 해상도시 건설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 환경 관련시설 갈등해소 방안 세미나	
	• 충청남도 통계체계 구축과 정보화 전략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달과 운용전략	
	• 백제문화권 개발과 21세기 충남의 미래 심포지엄	
	• 노온지역 사회개발을 위한 농업인력 확보 방안	
	• 21세기 아산권 지역정보화와 첨단산업화 전략	

〈발간사업〉

- 열린충남 4회
- 연구보고서 4회

〈표-3〉 1998년 연구사업실적

구 분	과 제 명	건 수
기본과제 연 구	• 지방 중소도시 체계 및 기능변화 조사	11
	• 지수론적 접근법에 의한 지역유형 분석	
	• 충남의 충·효·열 관련 문헌 조사	
	• 도정과 시군정의 효율적 연계방안	
	• 자원봉사자 활용방안 연구	
	• 조건불리지역 실태와 개발전략 연구	

구 분	과 제 명	건 수
기본과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구조 변화와 인구이동 관련 조사 • 백제유적 기초조사 연구 • 내포문화권 발전방안 연구 • 충남 관광자원과 관광상품 특화 방안 • 환경 기초시설 입지갈등 해결 모델 	11
현안과제 연구 (일반정책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자치단체 발전방안 연구 • 중부권 발전전략 연구 • 경제난 극복방안 설문서 작성 연구 • 안면도 관광지 시설별 투자순위 분석 연구 • 21세기 충남 발전정책 설계연구 • 외국인 투자자유지역 설치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연구 • 21세기 대응 인본경영행정 추진전략 연구 • 구공설운동장과 군부대 용지 개발방안 검토 연구 • 쓰레기매립장 사후 활용방안 연구 • 충남 자치도정 추진 프로그램 수립 연구 • 여성 수공예센터 운영계획 타당성 조사 연구 • 농산물 직거래장 운영계획 타당성 연구 • 주민현장견학 운영계획 타당성 연구 • 전 근무부서 돌아보기 운영계획 타당성 연구 • 제3청사 이전관련 공주시 발전방안 연구 • 조치원읍 대학촌 기본설계 사업계획서 검토 의뢰 • 외국인 전용공단 조성 효과분석 연구 • 지방전문직공무원 실적평가 기준 연구 • 백제역사재현단지 민자사업 시행계획 검토 연구 • 주요 인허가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 • 1999년도 도정방향 구상 • World Military EXPO 기본구상(안) 연구 	24

구 분	과 제 명	건 수
현안과제 연구 (일반정책 분 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도를 활용한 관광유료도로화 기본구상 연구 • 소도읍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24
수탁연구 과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양·아산문화제 심벌마크 및 로고 디자인 연구 • 21세기를 향한 부여비전 프로젝트 수립 연구 • 태안군 이미지개성화(CIP)사업 연구 • 홍주관아 건물복원 기초자료 조사 연구 • 강경되살리기운동 기본계획 수립 연구 • 보령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 서산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 변경 연구 • 신창학성 지표 및 실측조사 연구 • 충청남도 유통산업 발전방안 연구 • 효율적인 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 • 천안삼거리 문화제 심벌마크 및 매뉴얼 제작 • 당진쪽파 포장재 디자인 개발 연구 • 중부물류센터 CI개발 연구 	14
연구조성 사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세기 서해안시대 「충남관광 개발 방향」 • 「강경되살리기운동」추진방안 정립 토론회 • 충남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수출 촉진 전략 심포지엄 • 충남 여성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 모색 • 충청남도 정보화 시행계획 수립방향과 전략 • 21세기 백제문화권 개발의 과제와 전망 •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정책 도출 • 충남 수산발효식품의 육성 및 발전방안 • 지방선거 평가와 지방자치의 과제 	12

구 분	과 제 명	건 수
연구조성 사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년도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및 주요 경제개혁 조치 내역 •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안면도의 체계적인 개발 및 보전전략 •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활용 방안 	12
연구조성 사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린충남 4회 	4

주 : 현안연구과제 중 디자인분야 52건, 디자인 흠닥터 22건, 디자인개발 14건 등은 제외하였음.

〈표-4〉 개원이후 연구실적 총괄

사업별	연도별	계	'95년도	'96년도	'97년도	'98년도	비 고
합	계	377	12	55	118	191	
기 본 과 제 연 구		14			2	12	
현안과제 연 구	소 계	175(14)	4	20(1)	53(2)	98(11)	()안은 市·郡
	일반정책	55(9)	4	14(1)	9(1)	28(7)	
	디 자 인	120(5)		6	44(1)	70(4)	의뢰건수
용역과제 연 구 (천원)	소 계	44(1,626,350)	4(221,458)	9(426,700)	16(520,102)	15(458,090)	
	道	19(901,428)	4(221,458)	7(350,600)	2(153,210)	6(176,160)	()안은
	市·郡	16(547,522)			9(272,592)	7(274,930)	계약금액
	민 간	9(177,400)		2(76,100)	5(94,300)	2(7,000)	
연구조성 사 업	소 계	32	2	6	12	12	
	심포지엄	6	1	1	2	2	
	세미나 및 토론회 등	26	1	5	10	10	
디자인 흠닥터		65		8	21	36	
발간사업	소 계	47	2	12	14	18	
	열린충남	14	2	4	4	4	
	연구보고서	33		8	10	15	

연구기관명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과학도서관
광주과학기술원
교통개발연구원
국립수산진흥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해양조사원
국사편찬위원회
국토연구원
국회도서관
국회사무처
기초과학지원연구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문화재관리국
민족통일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산업기술정보원
산업연구원
생명공학연구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시스템공학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LG(엘지)상남도서관
연구개발정보센터
전자도서관
정보통신도서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천문대
첨단학술정보센터
충청남도
통계청
한국감정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재단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주소

<http://www.stepi.re.kr>
<http://liveo0.ac.ar>
<http://www.kjist.ac.kr>
<http://www.koti.re.kr>
<http://www.nfrda.go.kr>
<http://www.nl.or.kr>
<http://www.museum.go.kr>
<http://www.nori.go.kr>
<http://www.nhcc.go.kr>
<http://www.krihs.re.kr>
<http://www.nanet.go.kr>
<http://www.assembly.go.kr>
<http://www.comp.kbsi.re.kr>
<http://www.afmc.co.kr>
<http://www.rdc.co.kr>
<http://www.kiep.go.kr>
<http://www.kcci.or.kr>
<http://www.ocp.go.kr>
<http://www.unikorea.go.kr>
<http://www.pdi.re.kr>
<http://www.kiniti.re.kr>
<http://www.kiet.re.kr>
<http://www.geri.re.kr>
<http://www.sdi.re.kr>
<http://www.seri.re.kr>
<http://www.keei.re.kr>
<http://lg.or.kr>
<http://infosite.kordic.re.kr>
<http://dlibrary.or.kr>
<http://infol.etri.re.kr>
<http://www.kisdi.re.kr>
<http://www.hanul.issa.kr>
<http://www.kric.ac.kr>
<http://www.provin.chungnam.kr>
<http://www.nso.go.kr>
<http://www.kab.co.kr>
<http://kdiux.kdi.re.kr>
<http://www.kict.re.kr>
<http://www.kist.re.kr>
<http://www.kaist.ac.kr>
<http://www.kosef.re.kr>
<http://www.knto.co.kr>

연구기관명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문화예술포럼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식품위생연구원
한국언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은행
한국자원연구소
한국자원재생공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체육과학연구원
한국토지공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학술정보시스템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연구소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관리공단
홍익대도서관

홈페이지 주소

<http://www.kedi.re.kr>
<http://www.kida.re.kr>
<http://ns.kli.re.kr>
<http://www.krei.re.kr>
<http://www.kcaf.or.kr>
<http://www.kihasa.re.kr>
<http://www.kicox.co.kr>
<http://www.kidp.or.kr>
<http://www.kisco.or.kr>
<http://www.kitech.re.kr>
<http://www.cpb.or.kr>
<http://www.kowaco.co.kr>
<http://www.kimm.re.kr>
<http://www.foodnet.re.kr>
<http://www.kpi.or.kr>
<http://www.kier.re.kr>
<http://www.kins.re.kr>
<http://www.kaeri.re.kr>
<http://www.bok.or.kr>
<http://www.kigam.re.kr>
<http://www.koreco.or.kr>
<http://www.kepad.or.kr>
<http://www.rose.keri.re.kr>
<http://www.etri.re.kr>
<http://www.nitea.or.kr>
<http://www.kipf.re.kr>
<http://www.krila.re.kr>
<http://www.youthnet.re.kr>
<http://www.sports.re.kr>
<http://www.koland.co.kr>
<http://www.kriss.re.kr>
<http://koreanstudies.net>
<http://www.krf.ac.kr>
<http://www.kari.re.kr>
<http://www.kmi.re.kr>
<http://www.kordi.re.kr>
<http://www.kipa.re.kr>
<http://www.kic.re.kr>
<http://www.kriect.re.kr>
<http://keins.kei.re.kr>
<http://www.emc.or.kr>
<http://hongik.ac.kr>

새로운 밀레니엄과 21세기 충남의 비전(I)

특 집

21세기를 향한 충남의 신 정신문화 창조/ 임선빈

21세기 충남의 위상과 발전전망/ 이강선

21세기를 향한 충남의 도시개발 전략/ 김정연

21세기를 향한 충남의 신 정신문화 창조



임 선 빈

충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부장

1. 머리말

20세기 초에 망국의 쓰라린 경험을 했던 우리 민족은 20세기 중엽에 민족분단과 동족상잔의 비극을 맛보았고, 20세기 말에 또 한번 망국에 버금가는 IMF 구제금융을 신청해야만 했다. 우리는 아직도 서세동점(?)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가오는 21세기에 금세기(今世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나아가 금세기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신무장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화시대이면서 동시에 세계화·개방화가 요구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정체성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인류의 삶은 시행착오의 연속선상에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정신은 구태한 듯 하지만 언제나 참신하다. 충남의 신 정신문화 창조도 충남이 지나온 길을 살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충남의 역사·지리적 배경을 먼저 살피고, 충남의 전통문화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백제문화와 선비문화를 검토한 후, 21세기 충남이 지향해야 할 정신문화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충남의 역사·지리적 배경

충남지역은 유구한 역사와 문화 전통을 지닌 곳이다. 일찍이 1960년대에 공주시 장기면 석장리에서 구석기시대의 유적지가 확인된 이래, 공주·연기·서산 등지에서 구석기

유적이 발굴되었으며¹⁾, 신석기 시대의 유물이 발견된 곳은 도내 전역에 널리 산재해 있다. 따라서 충남지역은 아주 이른 선사시대부터 이미 인간이 정착해 살아 왔음을 알 수 있다.

삼한시대의 충남지역은 마한의 영토였고, 삼국 시대에는 백제의 영토였다. 특히 백제의 문주왕 때 도읍을 한성(서울)에서 웅진(공주)으로 옮긴 이후, 백제가 망하기까지 186년간 충남의 공주와 부여는 백제의 수도였다. 660년(의자왕 20) 백제가 망한 뒤에는 한때 당나라 도독부의 통치를 받았으나, 바로 신라에 병합되어 9주의 하나인 응주에 속하였다. 신라가 쇠퇴하면서 후백제가 이 지역에서 일어났다가, 931년(태조 14) 고려에 통합되었다.

고려시대에는 995년(성종 14)에 관제 개정에 따라 전국을 10도로 나누었는데, 충남지역은 주로 공주·운주 등 11개 주를 관할하는 하남도에 속하게 되었다. 1106년(예종 1)에는 하남도가 관내도·중원도와 합쳐져 양광충청주도라 칭하여졌고, 1171년(명종 1)에는 두 도로 나뉘었으나 1315년(충숙왕 2) 다시 합쳐 양광도라 하다가, 1356년(공민왕 5)에 비로소 충청도로 개칭되었다.²⁾

조선시대에는 1395년(태조 4)에 양주·광주의

관할 군현은 경기도로 옮기고, 충주·청주·공주·홍주의 관할 군현은 충청도라 칭하여 충주에 관찰사를 두었다.³⁾ 1399년(정종 1)에는 영월군을 강원도에 붙이는 대신, 강원도의 영춘현을 충청도에 편입시켰고, 1413년(태종 13)에는 여흥·안성·음죽·양지·양성 등의 5군현을 경기도로 옮기고, 경상도의 옥천·황간·영동·청산·보은 등의 5군현을 편입하여 4목 12군 38현을 관할하게 되었다. 그 뒤 1598년(선조 31)에는 감영을 충주에서 공주로 옮겼다.

조선시대에 충청도(忠淸道)란 명칭은 충공도(忠公道)·청공도(淸公道)·청홍도(淸洪道)·공청도(公淸道)·공홍도(公洪道)·충홍도(忠洪道)·공충도(公忠道) 등으로 자주 바뀌어 불리기도 했다. 이는 충청도 관내의 고을 중에서 충주·청주·공주·홍주의 4고을이 대표적인 고을, 즉 계수관(界首官) 고을이었으므로 이 고을명의 머리글자를 따서 도명(道名)을 삼고 있었는데, 도명으로 사용되던 고을에서 역모나 강상의 윤리를 범한 변이 일어나면 그 고을에 해당하는 머리글자를 빼고 다른 계수관 고을의 머리글자를 넣어 도의 명칭을 고쳤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의 충청도에는 관찰사가 한 사람만 파견되어 통치되었

1) 공주시 탄천면 시목리, 계룡면 소학리, 반포면 마암리, 장기면 금암리,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반곡리,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등지에서 구석기 유적이 발굴되었다.

2) 세종실록지리지, 충청도 우왕 말년에는 평창현을 교주도에 이속시켰다.

3) 충주·청주·공주·홍주 등은 조선초기에 道制가 확립되기 전까지 주위의 군현을 영속한 界首官 고을이었다.

으나, 행정상 편의에 의하여 충주·청주 관할권은 충청좌도, 공주·홍주 관할권은 충청우도로 나누어 부르기도 하였다.

그런데 1896년에 8도를 13도로 나눌 때 충청좌도를 충청북도로, 충청우도를 충청남도로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후에는 충청남·북도가 완전히 구분되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충청남도가 등장한 것은 100여 년 남짓 밖에 되지 않는다. 이 때 충청남도는 37개 군으로 구성되고 도청은 공주에 두었다.⁴⁾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는 행정구역 개편에 의하여 평택군이 경기도로 편입되었고, 어청도·연도·개야도·죽도 등 4개의 섬이 전라북도에 이속된 반면, 전라북도 익산군의 일부(현재 강경읍의 일부)가 충청남도에 편입되고, 1932년에는 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하였다. 1963년에는 전라북도의 금산군이 충청남도에 편입되었으며, 익산군의 황화면도 논산군에 편입되었다. 1989년에는 대전시가 직할시로 승격·분리됨으로써 대덕군이 대전시에 편입·폐지되었다. 충청남도는 1998년 6월 현재 6시 9군 22읍 147면 38동으로 이루어져 있다.⁵⁾

조선시대에 주로 충청우도에 해당했던 충청남도는 공주목과 홍주목이 이 지역 행정의 중심지였다. 공주목과 홍주목은 고려시대부터 계수관 고을이었는데, 이와 같은 계수관 고을은 각기 지역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충남지역은 크게 계수관 고을이었던 홍주를 중심으로 한 '내포[가야산]문화권'과 공주를 중심으로 한 '금강[계룡산]문화권'으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이 내포문화권과 금강문화권은 전통적인 지리인식인 산줄기와 물줄기를 통해서도 설명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산줄기와 갈래를 알기 쉽게 만든 지리서인 「산경표(山經表)」에 의하면,⁶⁾ 한반도의 모든 산줄기는 백두대간(白頭大幹)을 근원으로 하여 갈라져 나온다. 이 백두대간의 속리산 문장대에서 시작되는 한남금북정맥은, 청주의 상당산성을 바라보며 동쪽으로 돌아 죽산의 칠현산에서 다시 나뉘어 북으로 한남정맥, 남으로 금북정맥이 된다. 금북정맥(錦北正脈)은 칠현산에서 서남쪽으로 차령을 지나 남진하다가 오서산에서 북으로 방향을 틀어 가야산을 거치고 다시 서쪽으로 태안반도로 건너가 안흥진까지 이어진다. 산

4) 당시의 충청남도 37개군은 公州郡·燕岐郡·懷德郡·鎭岑郡·連山郡·魯城郡·恩津郡·石城郡·林川郡·韓山郡·舒川郡·庇仁郡·藍浦郡·鴻山郡·扶餘郡·定山郡·靑陽郡·保寧郡·鰲川郡·結城郡·海美郡·泰安郡·瑞山郡·唐津郡·沔川郡·德山郡·洪州郡·大興郡·禮山郡·新昌郡·牙山郡·溫陽郡·全義郡·木川郡·天安郡·稷山郡·平澤郡 등이다.

5) 충청남도가 등장한 이후 최근 100년간의 행정연혁은 지방행정구역연감(한국도시행정연구소, 1997) 812~814쪽 참조.

6) 조선후기의 실학자 申景濬(1712~1781)이 지은 것으로 추측되는 山經表는 1913년에 최남선이 조선광문회에서 출판한 적이 있으며, 1990년에 다시 박용수의 해설과 함께 간행되었다.(신경준 지음·박용수 해설, 「산경표」, 1990, 푸른산)

줄기가 금강 이북의 산세이기 때문에 금북정맥이라 불리웠다.

이중환의 「택리지」에 의하면, 내포문화권은 바로 이 금북정맥의 중심산인 가야산 앞뒤에 있는 열 고을을 지칭한다. 열 고을은 해미·결성·태안·서산·면천·당진·홍주·덕산·예산·신창 등으로, 오늘날의 아산시·예산군·당진군·서산시·태안군·홍성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원래 내포(內浦)는 조선초기에 대진(大津 : 현재의 당진군 송악면 한진리)의 별칭, 혹은 대진이 속해 있던 고을인 홍주목의 속현 신평현을 칭하다가, 조선 중·후기에는 점차 그 영역이 확대되어 계수관 고을인 홍주진관에 속해 있던 인근의 18개 군현을 지칭하게 되었다.⁷⁾ 이중환의 「택리지」에서는 충청도에서 내포가 제일 좋은 곳이라고 하였다. 지세가 한 모퉁이에 멀리 떨어져 있고, 또 큰 길목이 아니므로 임진년과 병자년 두차례의 난리[임진왜란·병자호란]에도 여기에는 적군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

내포문화권의 중심지에 가야산이 있듯이, 충남의 내륙에는 계룡산이 있다. 그런데 가야산과 계룡산은 산맥의 족보가 다르다. 가야산이 금북정맥에 속해 있는데 반해, 계룡산은 금남정맥에 속해 있다. 백두대간은 지리산에 이르기 직전 영취산에서 장수를 북으로 끼고 돌아 주화산에서 금

남정맥과, 곰재에서 호남정맥을 만난다. 금남정맥(錦南正脈)은 전주 동쪽 마이산에서 북으로 치달아 대둔산·계룡산을 거친 후 서쪽으로 망월산을 지나 부여의 부소산과 조룡대에 닿는다. 필자는 금남정맥의 중심이 되는 산은 계룡산이라고 생각하기에, 이 지역을 '계룡산문화권' 또는 '금강문화권'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육로교통이 발달한 오늘날과는 달리 수로교통이 중요했던 전통시대에는, 산은 길을 막고 물은 길을 이어 주었다. 계룡산문화권을 이어주는 연결통로는 계룡산을 휘감아 흐르는 금강이었다. 금강은 보은 속리산에서 발원하여 충북의 옥천군·회인현·문의현을 지나, 공주에 이르러 곰나루[熊津]가 되고, 부여에 이르러 백마강(白馬江)이 되고, 임천과 석성의 양읍 경계에 이르러 봉노진(蓬蘆津)이 되었다가, 서천군에 이르러 서해 바다로 들어간다. 바로 이 금강변의 공주와 부여에서 일찍이 찬란한 백제문화가 꽃피었다. 내포문화권이 고대 중국의 선진문물이 들어오는 관문이었다고 한다면, 금강문화권은 이를 받아 꽃피운 지역이었다. 또한 어진이는 산을 좋아한다고 했듯이[仁者樂山], 계룡산 자락과 가야산 자락에서는 조선시대 기호학맥의 기라성 같은 중심 인물들이 배출되었다.

7) 내포의 개념 변천에 대해서는 오석민(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의 내포지방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미간)에서 관련 문헌자료를 섭렵하여 자세히 다루고 있다.

3. 백제문화와 선비문화

충남의 전통문화를 돌아볼 때, 가장 먼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곳이 찬란한 백제문화의 중심지였다는 점이다. 백제사, 백제문화를 거론하면, 후자는 망국의 역사를 먼저 떠올린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대해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할 것이다. 지구상에 등장했던 나라 가운데 유사 이래 도대체 망하지 않은 나라가 어디에 있었던가.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했던 로마제국도 망했고, 당대에 인간 거주지역으로 알려졌던 영역의 절반을 지배했던 몽고제국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와 같이 멸명했던 무수히 많은 국가 가운데 하나처럼 백제도 망한 것에 불과하다.

고구려도 망하고 신라도 망하고 고려도 망하고 조선도 망했는데, 우리는 유독 백제가 망한 것에 대해 강한 미련과 아쉬움을 갖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찬란했던 백제문화가 망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망했기 때문일 것이다. 부여에서 중흥하던 백제는 전쟁다운 전쟁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나당연합군의 기습 공격에 의해 갑자기 망하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백제의 멸망에 대해 강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지니게 되었다.

충남에서 전개된 찬란한 백제문화는 서해안을 따라 발달한 ‘바닷길’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

다. 이 바닷길은 흡사 오늘날의 철도교통이나 고속도로망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도 좋을 만큼 정치·경제·문화적으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내륙의 깊숙한 골짜기와 평야지대보다 바다는 고대인들에게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문화전과 루트였고, 한반도의 서해안을 경유하는 이 해로는 중국이나 일본을 연결하는 대외교역으로 이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일찍이 이 해로는 선사시대 한강유역의 문물과 통하는 통로였고, 그에 연한 포구들은 백제시대에는 중국문화와 처음으로 만나는 현관이기도 하였다.⁸⁾

가야산을 중심으로 한 내포문화권의 문화유산으로 남아 있는 마애불은 이곳이 고대에 중국 선진문화 수용의 창구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마애불은 자연암벽에 조각한 불상을 말한다. 마애불의 기원은 서기전 3~2세기경의 인도 아잔타나 엘로라 등의 석굴사원에서 볼 수 있고, 중국의 원강·룽먼 등의 석굴사원에 분포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제작되기 시작했다. 태안의 백화산 중턱에 있는 태안마애삼존불이 최초의 것이다. 백제는 태안마애삼존불을 통해 마애석상을 조성하기 시작했고, 인접한 서산마애삼존불에서 활짝 꽃을 피웠다. 서산마애삼존불은 중국의 불교문화가 태안반도를 거쳐 부여로 가던 행로상에 위치하고 있다. 즉 태안반도에서 서산마애불이 있는 가야산 계곡을 따라

8) 이해준, “역사적으로 본 충남정신”(발표문), 충남 개도 100주년 기념 충남정신발양 심포지엄, 1996.

계속 전진하면 부여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데, 이 길은 예로부터 중국과 교통하던 옛길이었다. 이 옛길의 어귀가 되는 서산마애불 인근은 산세가 우수하고 천하의 경승지여서 7세기 초에 중국 불교문화의 자극을 받아 찬란한 불교문화를 꽃피운 것이다. 지금은 고인이 된 어느 고고학자는 이 서산마애삼존불의 신비한 미소를 두고 ‘백제의 미소’라고 명명한 바 있다. 또한 예산에도 화전리 사면석불이 있는데, 이는 백제시대에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석조사방불로, 세련미에서도 서산마애불에 버금갈 만하다. 이와 같은 내포문화권의 마애불 전통은, 이후 경북 봉화의 마애석불상을 거쳐 경주 남산의 여러 마애석상에까지 이어졌고, 드디어 신라 하대와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전국으로 퍼져 나갔으니, 실로 우리나라 마애불 조상(彫像)의 선구가 되는 셈이다.

서해안을 통해 수용된 중국의 선진문화는 백제 후기의 수도였던 금강문화권에서 활짝 꽃을 피웠다. 공주는 475년(문주왕 1)부터 538년(성왕 16)까지 5대 63년간, 부여는 538년부터 660년에 백제가 망할 때까지 6대 122년간 각각 백제의 수도였다. 현재 공주에는 백제의 왕궁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 특히

고고학계의 10대발굴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무령왕릉이 있으며, 부여에는 부소산성과 낙화암, 정림사지 5층석탑, 궁남지, 능산리고분군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찬란한 백제의 문화유적이 남아 있다. 특히 최근(1993년)에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대향로는 백제인들의 정신세계와 예술적 역량이 함축되어 이루어진 백제 공예품의 진수(眞髓)로 평가되고 있다. 이들 공주와 부여의 백제문화는 바로 금강을 끼고 발달한 것이다.⁹⁾

이와 같이 바닷길과 강길이 만든 문화지리적 특징은 백제의 문화예술 수준을 ‘선진’과 ‘고도’로 설명하는데 주저하지 않게 한다. 중국 남조와의 부단한 교류와 문화수용, 일본에의 문화 전파 능력, 통일 이후 신라의 예술에 기여한 백제 장인의 숨결이 그것을 잘 말해준다. 백제의 문화는 여러 측면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겠으나, ‘바다와 강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들의 문화’로 불려져도 좋을 듯하다. 바다와 강이라는 문화의 수용과 교류·전파의 열린 창구를 통하여 백제는 중국 남조의 선진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고 이를 충남에서 꽃 피울 수 있었다.¹⁰⁾

찬란한 백제문화가 꽃피었던 충남이 조선시대

9) 따라서 공주와 부여의 백제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공주에서 배를 타고 금강을 따라 부여까지 내려가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강물이 얕아 배를 띄울 수가 없다고 한다. 다행히 금강변을 따라 공주에서 부여까지 백제 큰 길이 개설되고 있으니, 배를 대신하여 자동차로 백제인의 천도(遷都) 자취를 더듬어 볼 날도 멀지 않은 듯 하다.

10) 이 외에도 백제는 강과 바다에 연한 지역에서 발달했던 마한의 여러 지역문화를 한데 아우르며 다양한 문화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에 이르면 선비문화의 중심지로 부각하고 있다. 선비는 학식과 인품을 갖춘 사람에 대한 호칭으로서, 특히 유교이념을 구현하는 인격체 또는 신분계층을 가리킨다. 그런데 막상 일반인들은 선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듯 하다. 이는 조선 왕조의 멸망이 성리학과 양반 때문이라는 논리 때문으로 보인다. 망국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망할 당시의 지배층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조선망국의 책임도 상당 부분 당시의 지배층이었던 양반에게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20세기 초에 나라가 망한 책임을 같은 양반이라고 해서 수백년 전인 조선 중기나 전기의 양반에게 돌리는 것은 잘못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어느 나라이고 언젠가는 망하게 마련이다. 그리고 망하기 직전의 사회는 대부분 타락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로마제국이 말기 향락에 빠진 귀족들의 타락한 생활 때문에 망했다고 해서, 전성기 로마제국의 건전한 귀족들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있을까? 몽고제국 원나라가 망했다고 해서, 대제국을 건국한 칭기스칸이나 쿠빌라이칸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20세기 초에 조선이 망했다고 해서 조선 중기의 양반이나 선비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 오히려 조선시대 대부분의 선비들은 같은 시기 세계 다른 지역의 지배층에 비해 건강한 도덕성을 지니고 있었다. 우리가 흔히 조선 선비에 대하여 갖고 있는 꼬장꼬장하고 깐깐하다거나 꿈생원 같

다는 표현은 조선 말 망국대부(亡國大夫)가 된 열악한 상황에서 자신감을 상실하고 자기방어적으로 편향된 지식인상에 불과하다. 사림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던 시기의 선비들은 오히려 개혁적이고 진취적인 기상을 지닌 인물이라 보수세력의 강한 견제를 받고 있었다.

선비문화의 전성기는 조선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기 충남은 선비문화의 중심지였다. 일찍이 여말선초 성리학이 수용되던 시기에 충남 출신 학자들은 성리학 수용과 연구에 앞장섰으니, 보령 남포의 백이정과 서천 한산의 이색은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충남에서 불사이군의 충절을 실천한 많은 사람과, 국가적 환란기에 선비정신을 발휘한 충절 인맥과, 조선조 예론의 요람으로 불려질 만큼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어 확고한 선비문화의 이미지를 지니게 되었다.

대개 충남의 선비정신이나 양반문화를 상기하면, 으레껏 사계 김장생이나 신독재 김집, 우암 송시열과 동춘당 송준길 등 조선 중기의 인물들을 먼저 떠올린다. 당연히 그럴만한 이유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들에게 집중된 인식이 오히려 충청지역의 전체적인 선비문화를 올바르게 보지 못하게 하는 측면도 있다. 충남에는 이들에 앞선 15~16세기에도 주목할 만한 인물들이 있었다. 15세기에는 불사이군의 충절을 실천했던 성삼문과 박팽년이 주목되며, 16세기에는 <토정

비결》의 작자로 널리 알려진 토정 이지함, 기수지학(氣數之學)에 밝았던 고창 서기 등이 충남에서 배출되고 있다. 특히 고창 서기는 공주의 공암에 충남 최초의 서원을 건립한 인물로, 보령에서 태어나 성장했으나 만년에 20여 년 간 계룡산 자락에서 후학을 양성하여 계룡산 문화권에 성리학적 학풍을 배태시킨 인물로 이해된다.¹¹⁾

충남은 조선시대 유학의 중심지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유학이 크게 영남유학과 기호유학으로 대별되는데, 기호유학의 중심이 바로 충남이었기 때문이다. 기호유학은 대체로 율곡을 조종(祖宗)으로 전개된 것인데, 그의 대표적 문인이라 할 수 있는 사계 김장생, 중봉 조현이 모두 충남과 인연을 맺고 있다. 기호학파가 실제로 그 폭과 깊이를 더해 간 것은 김장생 이후로 볼 수 있다. 김장생은 ‘동방예학의 종장(宗匠)’으로 일컬어지듯 율곡 이이의 적통이다. 그의 문하에서 신흠·이시백·조익·김집·송시열·송준길·이유태·김경여·장유 등이 배출되었다. 또 그의 아들이자 문인인 김집은 부친의 학문을 계승 발전시켰고, 그의 문하에서 송시열·송준길·이유태·윤선거·유계 등이 배웠다. 이 중 우암 송시열은 김장생의 적전(嫡傳)으로 성리학·예학 등에 밝았고, 특히 효종과 함께 북벌계획에 참여하여 북벌의리에 정성을 다했다. 동춘당 송준길 역시 성리학과 예학에 밝았으며,

도학적(道學的) 실천의 모범으로 전해진다. 충남의 유학자로 또 빼놓을 수 없는 이가 팔송 윤황, 미촌 윤선거, 명재 윤증이다. 이른바 소론계열 유학자라 불리우는 이들은 윤황이 우계 성혼의 사위요, 윤선거는 윤황의 아들이고, 윤증은 윤선거의 아들이니 모두 가학적(家學的) 학통을 잇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만회 권득기, 탄옹 권시, 유희당 권이진으로 이어지는 권문(權門)의 유학자들도 17세기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대표적인 유학자들이다.

인성(人性)과 물성(物性)이 같으나 다르냐 하는 인물성동이논쟁(人物性同異論爭, 일명 湖洛論爭)에서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 洛論)의 입장에 섰던 외암 이간은 지금은 민속보존마을로 더 널리 알려진 온양의 외암리에서 살았고,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 湖論)의 입장에 섰던 남당 한원진은 대하관광지로 유명해진 결성[홍성]의 남당리에서 살았다. 이들은 17세기 이후 한국유학사에서 호락논쟁의 불을 당긴 성리학자들로써 높이 평가된다. 또한 기일원론의 독특한 성리학을 전개했던 녹문 임성주도 공주를 무대로 활동했으며, 북학과 실학의 선구자였던 담헌 홍대용도 천안지역에 연고를 갖고 활동한 바 있다. 예학에 능했던 초려 이유태, 시남 유계, 주자학적 경전해석에 반기를 들고 자주적 학풍을 열었던 백호 윤희 등도 충남을 무대로 활동한 인물들이다.

11) 충남의 성리학도 내포문화권에서 수용되고 금강(계룡산)문화권에서 꽃피었다고 할 수 있다.

면암 최익현은 화서 이항로의 문인으로 위정척사(衛正斥邪)에 앞장섰던 한말의 큰 유학자였고, 청의 석학들과 금석학(金石學)의 교류를 가졌던 추사 김정희도 충남이 낳은 대표적인 유학자이다. 이렇게 볼 때, 한국유학사에서 충남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가를 짐작할 수 있고 한국 정신문화의 중심지라고 자부해도 좋을 성싶다.

흔히 선비문화를 논하면 문약(文弱)을 들먹이곤 한다. 문치주의 사회를 지향했던 조선시대의 사림정치가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닌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선비 개개인은 결코 나약하지만은 않았다. 선비들의 현실비판과 개혁정신은 종종 자신의 지위와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선비정신은 오늘날의 나약한 현대인들이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충남정신과 21세기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새시대를 이끌어 나갈 신 사교가 절실히 요구된다. 국가 융성의 저변에는 언제나 그 시대를 이끌었던 시대정신이 있었다. 작금의 시대는 물질적 풍요로부터 정신적 성숙을, 경제적 성장으로부터 정치적 민주화를, 중앙 집권으로부터 지방자치, 국가우위 대립으로부터 국제우위 협력을 추구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신사교가 절실히 요구된다.

충청남도는 1989년에 현대사회문제연구소에 연구를 의뢰하여, 「충남정신의 뿌리와 실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이 연구결과에서는 충남의 5대정신을 충효정신, 절의정신, 선비정신, 예의정신, 개척정신으로 설정하고, 이 5대정신을 내세우는데 근거가 될 수 있는 충남에서 출생했거나 인연을 가진 인물들의 업적을 나열하고 있으며, 이 5대정신을 현대적으로 조망하여 충효정신은 애항심으로, 절의정신은 정의실현으로, 선비정신은 청렴결백으로, 예의정신은 질서의식으로, 개척정신은 협동심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주장하고 있다.¹²⁾(표 참조)

이와 같은 충남 5대정신은 나름대로 충남의 역사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상당히 의욕적인 연구로 한 나라의 정신으로 삼아도 손색이 없는 시대정신의 모색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연구에 대해 그동안 비판적인 시각도 없지 않았다. 먼저 한국인은 작은 국토에서 같은 언어·역사·문화를 향유하면서 살아왔는데, 지역정신으로서의 독특한 충남정신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비록 중앙집권적 성향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각 지방의 구체적인 역사적 경험과 처한 환경은 차별성을 지녀 왔다고 할 수

12) 충청남도, 충남정신의 뿌리와 실체(보급관), 1991.

〈표〉 충남 5대정신과 근거로 제시된 사례 (「충남정신의 뿌리와 실체」에 의함)

5대정신

충 남 의 사 례 (인물)

현대적 조명

[백제] 海東曾子의 칭송을 받은 義慈王(?~660)의 효행 / 죽음에 임하여도 上奏한 成忠(?~656)의 충절 / 나당연합군 방어의 양책을 말한 興首(?~660)의 충성 / 모친의 병치료에 자신의 살을 뱀 向德(신라 경덕왕대)의 효성

[고려] 부원수인 姜民瞻(963~1021)의 글안군 패퇴 / 양계병마사를 여섯 번이나 역임한 徐恭(?~1171)의 효행 / 지혈로써 모친을 소생시킨 韓皐(1156~1241)의 효행 / 원나라 惠宗을 감탄시킨 李穀(1298~1351)의 충정 / 홍건적의 침입을 미리 상서한 普愚(1301~1382)의 선견지명 / 辛旽을 내몰도록 직언한 張夏(1326~1399)의 충성 / 권신들을 탄핵하여 10년간 유배생활을 한 李詹(1345~1405)의 강직

충효정신

애 향 심

[조선] 淸愼勤 등 當官之法을 실천한 孟思誠(1360~1438)의 충성과 효행 / 국난에 나라를 구한 李舜臣(1545~1598)의 위대한 충효정신 / 임진왜란 3대첩의 하나인 진주전투를 총지휘한 金時敏(1554~1592)의 지략 / 이순신을 도와서 왜선을 대파한 李億祺(1561~1597)의 충의정신 / 국난극복에 공을 세운 鄭忠信(1576~1636)의 지모와 용기 / 주자학의 거유 宋時烈(1607~1689)의 春秋大義 정신 / 「구운몽」의 작가인 유복자 金萬重(1637~1692)의 효심

[한일투쟁] 문신이며 학자인 崔益鉉(1833~1906)의 의병운동과 대의정신 / 홍주의병들의 충의정신 / 임시정부에서 조국 광복에 힘쓴 李東寧(1869~1940)의 충의정신

[백제] 처자를 베고 출전한 階伯(?~660)의 비장한 충의정신 / 백제의 부흥운동에 전력한 福信(?~663)의 충성 / 정절을 지킨 都彌의 아내(백제 개루왕대)의 節行

절의정신

정의실현

[고려] 왜구·홍건적 등의 토벌에 대공을 세운 崔瑩(1316~1388)의 순절 / 사직을 편안케 한 柳淑(?~1368)의 충직 / 끝까지 고려에 충성을 바친 李穡(1328~1396)의 높은 지조 / 불사이군을 몸소 실천하여 타살된 李種德(고려말)의 충의정신 / 관직을 사퇴하고 학행과 후진교육에 힘쓴 吉再(1353~1419)의 절개

5대정신

충 남 의 사 례 (인물)

현대적 조명

[조선] 야인들을 격퇴하여 6진을 개척한 金宗瑞(1390~1453)의 지용 / 단종복위를 도모한 朴彭年(1417~1456)의 절의 / 충절로써 비운을 겪은 成三問(1418~1456)의 절의정신 / 700의병과 함께 분전한 趙憲(1544~1592)과 靈圭(?~

절의정신 1592)의 精忠과 大節

정의실현

[조국광복정신] 청산리전투를 총지휘하여 대승을 거둔 金佐鎭(1889~1930)의 애국정신 / 독립만세를 외친 순국처녀 柳寬順(1904~1920)의 애국정신 / 국수 왜적들을 토벌한 尹奉吉(1908~1932)의 충의정신

선비정신

역학의 대가인 李之函(1517~1578)의 安貧樂道 / 諸子百家의 進修踐履 이론에 통달한 徐起(1523~1591)의 예지 / 암행어사로서 탐관오리를 숙청한 朴文秀(1691~1756)의 기민구휼 / 秋史體를 대성한 명필 金正喜(1786~1856)의 탐구정신 / 대중계몽에 헌신한 李商在(1850~1929)의 신의 / 33인의 민족대표로 독립을 선언한 韓龍雲(1879~1944)의 지조

청렴결백

예의정신

신분이 미천하나 세인의 존경을 받은 宋翼弼(1534~1599)의 학문과 인격 / 예학의 태두 金長生(1548~1631)의 덕행 / 알맞은 실지생활을 실천한 金集(1574~1656)의 예의정신 / 誤禮殺人의 불가함을 상소한 權謨(1604~1672)의 의리정신 / 자기를 스스로 탄핵한 도학군자 宋浚吉(1606~1672)의 예의정신 / 遺疏와 遺書를 남긴 우국지사 宋秉璿(1836~1905)의 의리정신

질서의식

개척정신

경세치용의 대가 梁誠之(1415~1482)의 실천철학 / 지구의 自轉說을 설파한 洪大容(1731~1783)의 혁신적 사회개혁사상 / 25세에 순교한 한국 최초의 신부 金大建(1822~1846)의 전교 / 혁신적 정열을 가진 선각자 金玉均(1851~1894)의 개화이지 / 독립문 건립을 주도한 徐載弼(1866~1951)의 조국애 / 상록수정신과 계몽운동 / 향약과 지역개발정신 / 애향정신과 새마을운동

협동심

있으므로, 지역정신의 정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서양의 경우에는 각 지역마다 지역정신에 기초한 지역공동체 행사가 수 백년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반해, 우리의 경우에는 일제시대, 근

대화 등을 통해서 지역공동체가 무너지고, 지역민의 단합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역정신 역시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오천년 역사를 통하여 주민들 의식 속에 깊이 스며 내려온 지역성이 완전

히 소멸된 것은 아니며, 우리 의식의 저변에는 언제나 지역정신이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정신이 지역이기주의와 지역감정이라는 왜곡된 지역정신으로 흐르지만 않는다면, 지역민들끼리의 동질감을 회복하고 다가오는 21세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정신 창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엄연히 존재하는 지역적 차이를 바탕으로 하여 올바른 지역정신을 발굴해 내고, 그것을 현재의 의미로 재조명하며, 한발 나아가 한민족 전체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동체 의식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¹³⁾

다음으로 충남 5대정신이 다른 지역정신과 분별되는 충남만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가? 5대정신 가운데 선비정신이 다른 4대정신과 동일한 위상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충남정신이 충남의 오랜 역사와 문화적 전통 속에서 형성된 다른 지역과는 다소 구별되는 충남인의 기질적, 정신적 특성이라고 일컬을 때, 부분적으로는 다른 지역의 특성과 중복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선비정신의 경우에는 선비가 유학에서 일컫는 바람직한 인간상이라고 할 때, 다른 4대정신을 모두 지닌 인간이어야 참된 선비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점에서 충남의 역사에 충실하게 기반하고 있는 충남 5대정신은 전통

시대의 선비상(像)을 담고 있다고 여겨진다.

충남 5대정신이 충남의 전통을 충실하게 반영하고는 있지만,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필자는 시론적이기는 하지만 21세기에 지향해야 할 충남정신으로 청명정신과 조화정신을 제시하고자 한다. 충남 5대정신이 전통시대의 선비상에서 추출된데 반해, 청명정신과 조화정신은 미래의 선비상에 해당하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다.¹⁴⁾

청명정신(淸明精神)의 '청명'은 충청도를 상징해 온 '청풍명월(淸風明月)'의 준말이다. '청풍명월'이 자연을 설명한 용어인데 여기에서 정신을 담보하는 인위적인 용어로, '청풍'과 '명월'의 머리글자인 '청'과 '명'을 따서 조어(造語)한 것이다. 충남 5대정신이 충효정신, 절의정신, 선비정신, 예의정신, 개척정신으로 정립되었는데, 이 가운데 '선비정신'은 나머지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용어라고 흔히 지적되어 왔다. 충효·절의·예의·개척은 과거 동양의 바람직한 인간상인 '선비'의 중요한 덕목인 것이다. 과거의 선비상에서 느낄 수 있는 '청렴(淸廉)하고 명철(明哲, 혹은 賢明, 分明, 高明)한 선비'와 '청명정신'을 쉽게 연계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청명정신'을 다가오는 미래의 지도자상으로 부각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¹⁵⁾

13) 충청남도 태안군·충남발전연구원, 태안정신 정립에 관한 연구, 1997, 9~10쪽.

14) 여기에서 시론적으로 제시되는 청명정신·조화정신은 선언적인 측면이 강한 것임을 밝힌다.

‘청명정신’, ‘청명운동’, ‘청명사회운동’, ‘청명정신운동’ 등의 표현이 가능하고, 바람직한 미래의 인간상(人間像 : 충남을 대표할 만한 인물, 혹은 清白吏<사실 청백리는 봉건시대의 표현>라고 할 수 있는 공직자)을 ‘청명인(淸明人)’이라고 일컬을 수도 있을 것이다. ‘청명(淸明)’을 우리말로 풀어 쓸 때에는 ‘맑고 밝은’이라는 의미이니, ‘깨끗한 바람과 밝은 달’이라는 자연을 상징하는 ‘청풍명월’에서 ‘청명’을 ‘맑고 밝은 환경보전’으로 연계시킬 수도 있으며, 도민에게는 ‘청명’이 ‘미래의 맑고 밝게 웃는 세상’, ‘맑고 밝은 세상’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아마 21세기는 정계·경제계·관계 할 것 없이 모두가 보다 투명한 사회, 투명성이 강조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조화정신(調和精神)도 충남정신을 대표할 만하다고 생각한다.¹⁵⁾ 충청도는 지형학적으로도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산과 강과 평야가 적당히 펼쳐져 있으며,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가 타지역에 비해 적었다. 이러한 자연환경은 옛부터 충청도를 살기 좋은 곳으로 일컫게 되었고, 이러한 자연환경에서 태어나 자란 충청인의 기질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다. 충청인은

비교적 온순하다는 평을 듣는다. 부딪혀 싸우기보다는 차라리 순응하는데 익숙하다. 자기 주장을 고집해 이기기보다는 오히려 남의 얘기를 듣고 이해해 주는 편이다. 이쪽 저쪽의 싸움 편에 서기보다는 싸움을 말려 화해를 도모하고 조화를 추구한다. 무슨 일에 곧장 행동하기보다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신중한 편이다. 자기의 표현을 드러내기보다는 내면적으로 소화하는 편이다. 그러므로 충청인은 전라도·경상도 어느 지역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고 그들을 수용할 수 있다. 그것은 충청인의 기질적 특성에 너그러움과 온유함이 있기 때문이다. 충청의 그릇은 흰색·검은색·노란색·파랑색을 다 담을 수 있고, 전라도·경상도를 모두 수용할 수 있으며, 진보와 보수를 함께 담을 수 있는 큰그릇이다. 이는 피상적으로 보면 충남정신의 커다란 단점같이 보일 수도 있으나, 참으로 훌륭한 장점이다. 충청인은 마음을 비우고 승부욕을 떠나 이해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이편 저편, 이쪽 저쪽의 중간에서 양편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이는 중용 철학에서 일컫는 ‘시중(時中)의 도(道)’를 실천하는 길이다. 오늘날 만연되어 있는 지역감정·지역갈등을 해소하고, 21세기에 분

15) 선비정신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흔히 한말 선비의 무능하고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현대사회나 미래사회에서 사용되는 것이 주저되어 왔는데, 이를 ‘淸明精神’, ‘淸明人’으로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16) 조화정신은 이미 1996년에 개최된 충남정신발양 심포지엄에서 황의동 교수에 의해 제시된 바 있다(황의동, “충남정신의 현대적 조망”(발표문), 충남 개도 100주년 기념 충남정신발양심포지엄,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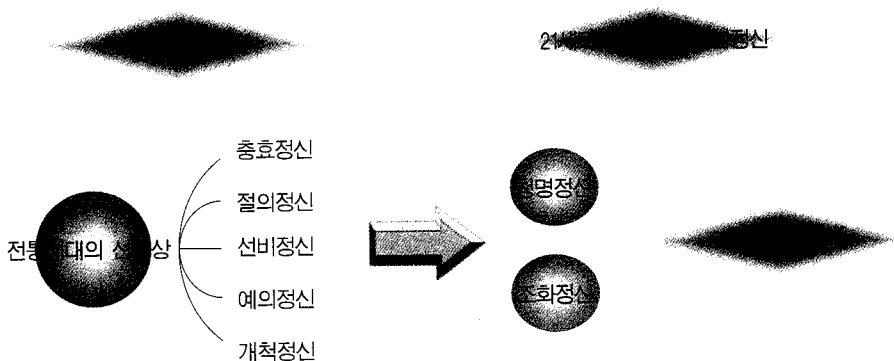
단된 조국의 남북통일을 달성하며, 동양의 정신 문화와 서양의 물질문명의 조화를 추구할 수 있는 정신이다.

5. 맺음말

충청남도라는 도명이 사용된 지는 100여 년 밖에 되지 않지만, 충남지역은 유구한 역사와 문화 전통을 지닌 곳이다. 전통시대에 홍주목과 공주목, 가야산과 계룡산으로 상징되던 내포문화권과 금강문화권은 각기 독특한 문화전통을 지니면서도 상호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해 왔다. 역사적으로 충남은 찬란한 백제문화와 조선시대의 간간한 선비문화가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또한 내포문화권과 금강문화권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충청남도에서는 일찍이 20세기의 시대정신으로 충남 5대정신을 설정하여 발양해오고 있다. 이는 충남의 역사와 전통이 충실하게 반영된 성과품으로 전통시대의 바람직한 선비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필자는 이를 수용하면서 다가오는 21세기 충남의 시대정신으로 청명정신(淸明精神)과 조화정신(調和精神)을 제시해 보았다. 이는 미래의 선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물질문명의 풍요로움을 마음껏 구가하던 20세기와는 달리, 21세기는 주어진 자원 속에서 절약하는 생활과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리는 다음과 같이 구조화 될 수 있을 듯하다. **열린충남**



21세기 충남의 위상과 발전 전망



이 강 선

충남발전연구원
연구기획부장

1. 머리말

내년부터 새로운 세기가 시작된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낱씨 체계상의 한 변화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과거 어느 때에도 경험하지 못한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놓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맞이할 새로운 세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더욱 큰 변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만 치부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우리의 힘과 의지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으는 한 좋은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충남의 경우도 새로운 세기는 많은 변화와 도전과 성취의 세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변화를 다 예상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다가올 여건의 변화를 전망하고 각 부문별로 충남이 풀어야 하고 지향해야 할 발전방향을 정리하는 것은 새로운 세기를 맞으며 우리가 해야 할 기본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배경에서 충청남도과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충남장기발전 비전을 수립¹⁾했고 본고는 그 비전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관점에서 21세기를 맞는 충남의 현황과 과제, 향후 충남의 여건 변화와 전망, 그리고 새로운 세기에 충남이 나아갈 발전 방향 등을 포괄적으로 새롭게 정리해 보려고 한다.

1) 충청남도·충남발전연구원, 21세기 충남장기발전비전, 1997.

2. 충남의 현황과 과제

1) 지역 현황

(1) 자연환경

충청남도는 수도권과 인접해 있어 수도권의 포화를 완화할 잠재적 개발 가능지라는 이점이 있는 동시에 영남과 호남을 연결하는 국토 중심부로서의 교량적 역할이 가능한 지역이다. 총면적은 8,590㎢로 전국토의 8.6%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임야가 52.9%, 농경지가 32.4%, 대지 2.3%, 도로 2.0%이지만 공장용지는 아직 0.36%에 불과하다.

충남의 지형은 전체적으로 완만해 1,000m 이상의 산지는 하나도 없고 100m 이하의 저지가 전체 면적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해안은 수심이 얕으며,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간석지가 넓어 활용 가능성이 크며 금강 주변의 충적평야와 구릉지는 농업에 유리한 이점을 갖고 있다.

(2) 인문·사회환경

1997년 기준으로 충남의 총인구는 190만 3,000명으로 전국의 4.1%이며 1995년까지 10년 동안 평균 1.51%씩 감소해 왔으나 1996년부터는 연평균 1%씩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차량산맥을 경계로 북부지역에는 산업·교육·관광·휴양시설이 집중되어 인구가 몰려 있고 남부 농업지역에는 인구의 유출이 심각하여 지역간 인구분포의 불균형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의 산업구조는 1차산업이 규모, 특화도, 생산유발 등에서 아직 비교우위에 있고 2·3차산업은 최근 들어 높은 성장률을 보이지만 충남내 지역간의 격차가 심화되어 수도권에서 원거리인 남부지역은 산업경제 기반이 여전히 취약한 편이다.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은 1994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의 97%에 불과하고 이중 상당액은 생산만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실제 소비는 충남 지역 이외의 대도시에서 일어나고 있어 지역경제에 충분히 파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다만 최근 들어 성장률은 충남 북부권의 공업화로 전국 평균을 약간 상회하고 있으나 수도권의 규제완화 움직임이 있어 산업화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으며, 생산인력만이 아닌 가족 전체가 와서 생활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의 개선이 시급한 과제이다.

(3) 생활환경

이농현상으로 주택보급률은 거의 100%에 근접하지만 인구의 노령화로 주택의 개보수가 미흡하고 주택의 질이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용수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공업화로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나 공급은 매우 제한적인 상태이다. 1997년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47.0%로 전국 평균의 절반 정도이고 순위로도 9개 도 중 최하위를 보이고 있을 정도로 많이 뒤떨어져 있다.

쓰레기 및 분뇨의 처리율은 농업지역이 많아 높은 편이나 쓰레기의 재활용률은 10.8%, 분뇨의 위생처리는 46.3%에 불과해 환경보전에 큰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

2) 과제

(1) 지역경제 기반의 취약

경제 인프라가 대도시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어 중소도시로 구성된 충남 지역경제의 경쟁력은 취약한 상태이다. 또한 1차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고 영세농의 비율이 높은 반면 2, 3차 산업은 적어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다. 최근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산업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은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다.

(2) 지역개발 격차 심화

수도권과 근접한 거리상 이점으로 활발한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충남 북부권과 농업중심의 중남부권의 개발격차에 따른 지역통합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일률적인 산업화가 아닌 지역간 특성을 살린 균형개발 전략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3) 지역중심성과 공간통합성의 결여

1989년 대전시의 분리이후 지역발전을 주도할 중심도시가 없어 성장 거점기능과 배후지역에 대한 파급기능이 취약하다. 대부분의 정치·행정·문화기능 등이 대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도내 중소도시의 성장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지역중심지의 부재는 산업의 역외의존을 가속화시켜 지역의 공간통합성 형성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천안시·아산시 등은 수도권, 연기군의 조치원읍은 청주권, 서천군은 군산권, 금산군·연

기군·논산시·공주시 등은 대전권의 영향하에 있어 충남은 공간통합성에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4) 광역교통망 등 산업 인프라의 취약

상대적으로 충남의 광역교통망은 남북축에 크게 의존하는 기형적 형태를 띠고 있어 지역간 접근성이 불량한 단점이 있고, 항만시설의 부족과 공항시설 부재로 지역경제활동 및 도민생활에 애로가 크다. 특히 지역교통망의 취약은 기업 물류비용을 증가시켜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도권의 기능을 분담하려는 국가적 전략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역간 개발 격차를 불러일으켜 상대적으로 낙후되는 불균형 개발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21세기에 활성화가 기대되는 환황해권 교류의 중심적 역할을 하려면 충남의 잠재력에 맞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데 현재로는 매우 열악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3. 충남의 잠재력과 21세기 여건 변화 전망

1) 개발 및 성장 잠재력

(1) 무한한 해양자원 보유

충남도의 해양은 수심이 얕고, 조수간만의 차가 크며 간척지가 풍부한 리아스식 해안으로 해안선의 길이는 953.3km에 달한다. 다양한 해양자원이 산재하고 있으며 조수간만의 차가 커 미래형 해양에너지 개발의 가능지이기도 하다. 특히

21세기 환황해권 시대의 거점기능 수행과 수도권 인근항의 대외교역량 증가에 따른 포화현상으로 아산항·대산항·보령항·장항항 등은 서해안의 중추항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2) 넓은 토지자원 확보

충남은 대부분의 지역이 평균고도 100m 이하의 구릉성 평야지대여서 답(畓)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작물재배가 가능하고 구릉지를 이용한 토지이용도 용이한 편이다. 100m 이하의 국토면적을 기준으로 한 유효 인구밀도가 세계 1위인 우리로서는 미래를 위해 아껴 둔 땅으로 볼 수 있고 21세기에 활용성이 클 것이다.

(3) 소중한 문화자원 풍부

충남은 백제문화의 중심지로 국보 28점, 보물 86점 등 총 187점의 국가 지정문화재가 곳곳에 산재해 있다. 이런 문화재를 복원·정비하고, 새로운 문화재를 계속 발굴하여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동시에 이들을 관광산업으로 개발하는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4) 다양한 관광자원 분포

충남에는 해양과 내륙의 다양한 자연경관을 소유하고 있고 공주·부여의 역사관광지와 국립공원 5개소를 비롯한 휴양림, 강, 온천, 계곡 등 다양한 관광지가 도전역에 분포되어 있어 21세기에는 해양과 내륙을 연계하는 관광루트 및 관광자원의 개발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곳이다.

(5) 접근에 유리한 입지자원

지리적으로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영·호남을 연결하는 교량역할이 가능하고 바다와 접해 있어 동북아시아로의 진출이 용이한 지역이다. 향후 수도권 기능의 능동적 분담과 함께 환황해권 무역과 교류가 폭등하면 대외교류와 물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다.

(6) 비중 높은 고부가 1차산업

충청남도는 아직 청정 전원지역으로서 농지의 생산성이 높고 세계적인 고려인삼의 재배적지로 환경보전형 농업과 영농의 첨단화를 통한 고부가 농업이 가능한 지역이다. 21세기에는 세계시장을 공략하는 첨단농업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할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

2) 여건 변화 전망

(1) 세계화에 따른 지역개발 여건의 변화

환동해권과 환황해권의 교역량 증대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토의 동서축이 필연적으로 구축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해 그동안 단절되어 온 충남의 서해안과 내륙지역이 동해안과 연결되므로써 국토의 지역 공간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충남은 아산-석문-대산-군장으로 이어지는 서북부 산업벨트 형성, 안면도를 중심으로 서해안 관광벨트 형성, 내륙의 백제문화권 개발 등을 통하여 세계적인 산업·교역·관광 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다.

(2) 지방행정 체계의 변화

다음 세기에 지방행정체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제의 정착에 따라 지방여건에 맞는 개발행정이 활발해지고 지방자치가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될 것이다.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역주민의 참여와 좀더 폭넓은 민간자본의 활용 등으로 참여행정 및 경영행정이 뿌리를 내릴 것이다.

(3) 광역 교통·물류 체계의 변화

경부·호남고속철도의 건설은 천안·아산·공주·논산 등 역세권 중심의 광역도시권 형성을 촉진할 것이고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은 충남 서부지역의 수도권 및 호남권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여 지역간 통합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또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보령-공주-조치원 및 서천-공주-논산간 고속도로는 충남 내륙의 발전과 동서교통에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해 줄 것이다. 이와 함께 대산항·아산항·안흥항·보령항·장군신항과 서산기지의 민항기 취항은 환황해권의 교통중심지로 충남이 발전할 가능성을 제고할 것이고 금강주운의 개발로 내륙수송의 원활화가 가능할 것이다.

(4) 환경에 대한 인식제고와 산업구조의 변화

신산업지대의 환경문제는 충남이 해결해야 할 우선적인 정책과제로 부상할 것이다. 소득의 증가와 환경의 악화는 개발과 환경보호의 평형을 점점 후자로 기울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서해안의 간척지와 내륙지역은 고급 농축산물의 생산지로 발전될 것이고 서해안은 수산물의 생산지로 많은 지역특산품 개발을 유도하여 서북부 공업지대와 함께 산업구조의 다변화·고도화가 진행될 것이다.

(5) 생활패턴의 변화

사회구성과 생활양식의 다원화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고 집단과 지역의 이해가 충돌되어 갈등관계가 안팎으로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조정할 기구, 제도, 법, 그리고 시민의식의 제고 등과 같은 종합적인 대책의 발전과 정착이 서서히 가시화 될 것이다. 한편론 다품종, 고품질의 소량생산과 자율행정, 참여보상체계와 같은 것들이 중요한 생활패턴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

(6) 정보화·지식화 및 주민복지 욕구 증대

정보혁명과 함께 정보·지식사회로 변화하면서 국제사회와의 경쟁과 협력체제가 강화될 것이고 산업과 공간구조도 이에 맞게 재편되어 갈 것이다. 충남의 정보화 기반과 지식기반이 아직은 매우 취약하지만 국가의 정보화·지식화 정책과 부응한 기간 통신망 및 정보인프라의 구축과 함께 새로운 지식기반 구축이 활발히 전개될 것이다.

나아가 사회구조가 다원화되면서 복지에 대한 주민의 욕구도 다양하게 표출되어 노인·아동·장애인·여성·청소년층 등에 대한 다각적인 복지기반의 구축이 실현될 것이다.

4. 충남의 21세기 발전 방향

새로운 세기에 충남도가 변화를 발전의 계기로 삼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기조를 6가지로 나누어 점검해 본다.

1) 초일류 도민만족 행정과 참여에 기초한 자치도정 실현

지방자치의 강화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자발적 도민참여 촉진, 도민의 공동체 의식 강화, 도민의 자치역량 배양, 도민을 위한 생활행정 구현 등 주민자치와 주민참여를 통한 인간중심의 공동체 형성을 지향해 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화를 통한 첨단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경영행정을 강화하여 민간인력 및 자본의 참여와 활용을 넓히는 동시에 도민만족을 위한 위민행정의 적용범위를 꾸준히 넓혀 가야 한다.

2) 풍요롭고 활력 넘치는 산업진흥과 첨단화·고도화를 통한 자립경제의 구축

환경친화적 첨단 하이테크 산업지대 건설, 기존 산업의 구조 고도화, 중소기업 자유지대 조성, 산업정보센터 설립, 산업전문 경영인력 양성, 산·학·관·연 파트너십 구축, 환황해권 산업협력 체계 구축, 외국인 투자 전용공단의 조성 등 고생산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의 육성에 진력해야 한다.

또한 21세기를 대비한 충남형 농업모델 개발, 유통구조 개선과 농업정보 시스템 구축,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기반 정비, 농수산업의 기

술 고도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향토색 있는 특산단지 조성, 수출전략형 농수축산업 육성, 1.5차 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 해양목장화 추진 등을 통한 농림수산업의 고능률화·하이테크화를 추진해 가야 한다.

3) 역사의 향기가 배어나는 다양하고 개성 있는 문화의 고향, 충남 창조

산업과 생활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문화적인 고도화도 병행되어야 한다. 찬란한 백제문화를 비롯한 전통문화의 보존계승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여가지대의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 전통과 현대를 접목하는 문화행사 개최, 참가형 문화활동 진흥, 역사 해양 내륙 관광자원의 연계 개발 등도 민간부문과 함께 실현시켜 가야 한다.

4) “인간중심의 복지 충남” 및 “안전하고 쾌적한 푸른 충남” 건설 실현

21세기에는 복지와 환경의 문제가 더욱 부각될 것이다. 혹독한 경쟁만이 강조되고 더불어 사는 문제가 도외시된다면 새로운 세기는 희망의 세기가 되기 어렵다. 안정된 소득보장과 자활기반 조성,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보장 내실화, 아동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여건의 조성, 진취적 기상을 지닌 청소년의 육성, 장애인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열린 사회의 건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위 향상,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후생활 보장 등은 사회적 형평을 추구하는 인간중심의

복지 충남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들이다.

환경측면에서는 이미 채택되어 발표된 “푸른 충남 21”의 범도민적 실현, 환경친화적 생태녹지 축 조성, 수변 개발시 Water Front 개념 도입, 환경오염원이 근원적으로 차단된 생태도시 조성 등이 안전하고 쾌적한 21세기 푸른 충남 건설의 기본방향이 될 것이다.

5) 매력 있는 신생활 공간으로써의

러번토피아(rurbantopia) 충남 지향

충남은 물이 부족하다. 현재도 부족하지만 산업화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다음 세기의 물 부족은 심화될 것이다. 댐의 추가적인 건설과 같이 현재 구상되고 있는 공급 측면의 정책과 함께 수요 측면에서도 체계적인 절약 시스템 정착과 효율적인 분배망의 조성 등 정책적 배려와 도민의 호응이 있어야 한다. 공급과 수요 양 측면에서의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현재 이농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는 열악한 주거수준의 지속적 향상과 생활 편의시설 확충, 교육 및 문화시설의 보강을 통해 도시적 편익과 농촌적 쾌적함이 공존하는 소위 러번토피아(rurbantopia) 건설을 지향해 가야 한다.

6) 정보창조형 지역사회 구현과

세계로 열린 국제교류 거점 구축

새로운 세기의 가장 큰 변화중 하나는 정보화의 진전일 것이다. 이 큰 변화에 맞추어 우리 지역에서도 정보화를 통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

화, 정보통신 관련산업의 유치와 육성, 지역주민의 사회활동 및 생활의 정보화를 촉진시켜 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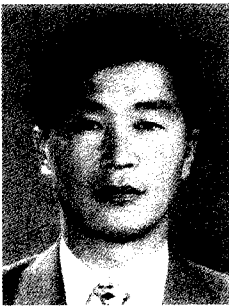
이와 함께 정보고속도로 구축, 해양과 내륙을 연계한 지역통합적 교통체계 구축, 통일에 대비한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3 ports(seaport, airport, teleport) 건설 등을 추진하여 환황해권 지역중심지로 발돋움해야 한다.

5. 맺음말

지금까지 21세기를 바라보며 충남의 현황과 새로운 세기에 충남이 직면할 여건을 살펴보고 6가지로 나누어 21세기에 충남이 나아갈 발전방향에 대한 언급을 했다. 이번 접근은 매우 개괄적이지만 새로운 세기에 충남이 직면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에 대한 거시적 분석이라고 볼 수 있다. 각 부문별로 좀더 상세한 전망과 전략은 기간 열린충남 봄호의 다른 지면과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여름·가을·겨울호들에서 제시가 될 것이다.

새로운 세기는 매우 빠르게 변화할 것이고 더 많은 도전과 한 차원 더 높은 정책적 대응을 요구할 것이 확실하다. 많은 세월이 흐른 후 우리의 전략과 대응이 세부적인 것까지 몰라도 큰 줄기에서 올바른 방향이었다는 평가가 있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주변여건에 순응하면서 각 분야에 대한 세심한 연구와 치밀한 실천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열린충남**

21세기를 향한 충남의 도시개발 전략



김정연

충남발전연구원
지역개발부

1. 머리말

충남지역은 1998년 말 현재 15개의 시·군청 소재지와 22개의 읍 소재지, 그리고 147개의 면 소재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천안시를 제외한 모든 도시가 인구 10만을 넘지 못하는 소도시 또는 소도읍들이다.

이들 도시의 대부분은 고용창출 기반이 취약하고, 기반시설이 불비하며, 교육 의료 등의 생활편익과 직결되는 기능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상태에서 침체의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충남의 중소도시들이 전통적으로 배후 농어촌 지역에 대한 서비스 중심지 기능을 해왔으나, 농어업의 상대적 쇠퇴와

농어촌인구의 감소에 따른 구매력 감퇴에 의해 주요 기능인 상업 서비스업이 영세화·사양화되는 한편, 제조업 등 도시발전의 기반이 되는 산업부문의 성장을 거의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간적으로는, 경부회랑과 북부 신산업지대에 위치한 일부 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들이 상대적 인 쇄퇴 또는 침체 상태에 있어 충남지역 전체적으로도 비효율적인 공간구조가 형성되고 있다.¹⁾ 다른 한편에서는 도시권이 광역화되면서 일반읍 및 면소재지들의 기능이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으며, 상당수의 시 군청 소재지들도 자족성의 약화를 경험하고 있다.

1) 이와 같은 공간구조의 비효율성은 지난 40년간의 국가정책이 서울과 부산을 양극점으로 하여 경부회랑 중심의 발전을 유도해 왔던 데서 기인하며(이기석, 1998, p. 103), 그것은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나타나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황용주, 1997, p. 8).

충남의 소도시들에 있어서, 이와 같은 성장동인의 상실은 도시의 물리적 환경의 노후화·불합리성의 증대로 이어졌으며, 결국 주민들로 하여금 마음을 붙이고(定) 살만한(住) 터전(地)로서의 매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충남지역의 대부분의 도시들은 그 장래가 불투명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소도시는 도농통합적 지역생활권의 중심지로서, 지역균형개발의 거점으로서, 유연적 산업화에 대응한 새로운 산업화 전략의 채택 장소로서 여전히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첫째로 농림어업 부문에서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중소도시를 개발의 초점(growth point)으로 하여 지역성장을 견인토록 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삶의 질 및 환경중시의 가치관 형성 등과 같은 거시적 사회조류의 변화는 지방 중소도시 개발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이 논문에서는 충남 중소도시의 현상과 문제점을 그 역할과 기능, 그리고 물리적 환경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사회조류의 변화에 따른 충남 중소도시의 새로운 가능성과

개발과제를 정리한 다음, 그 개발방향과 전략을 제시코자 한다.

2. 충남 중소도시의 현상과 문제점

1) 지역간, 도시 계층간 성장 격차의 심화

1997년 말 현재 전국의 도시화율은 85.9%인데 반해, 충청남도는 54.4%로 전국에서 가장 낮으며, 그 속도 또한 대단히 완만하다. 이러한 현상은 충청남도의 농어촌인구 비중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1989년의 대전광역시시의 분리 및 나머지 중소도시의 저조한 성장이 결합되어 나타난 것이다.²⁾

이에 따라 충남지역의 중소도시들은 전반적으로 인구규모가 작고³⁾, 천안시를 제외하면 지역개발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견도시를 발견하기가 어렵다. 도시계획 구역내의 인구를 기준으로 할 때, 시급 도시 중에서는 천안시만이 25만명 수준이고, 공주·서산·아산은 5~10만명, 그리고 논산·보령은 5만명 이하이다. 읍급도시 중에서 인구 5만을 넘는 도시로는 예산·부여·홍성 등 전 산업시대부터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했던 구읍(舊邑)들과, 20세기 초 철도교통의 중심지로 발전한 조치원 정도가 포함된다. 유구(9.3

2) 시가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시·군에서도 도시화율은 높아지고 있으나, 이것은 큰 폭의 농촌인구 감소가 상대적으로 도시인구의 비중을 높여준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시화 수준은 이보다 낮을 것이다.

3) 충남 시·읍의 평균 면적은 각각 전국 시·읍 평균의 48.7%, 62.8% 수준으로 규모가 작은 편이다. 도시적 토지이용 비율에 있어서는, 충남의 시는 전국 평균보다 낮고 읍은 전국 평균보다 높다(충청남도 충남발전연구원, 1997, p. 215).

천명), 청양(8.9천명), 웅천(5.3천명), 삽교(5.3천명), 안면(2.9천명) 등은 1만명 이하이며, 인구감소가 계속되고 있다. 면급도시 중에서는 계룡출장소와 배방이 1만명 이상으로 성장하였으나, 나머지 대부분은 1천명 이하로 지속적인 인구감소를 보이고 있다.

충남지역 내에서는 지역간 도시화 격차와, 그에 따른 지역발전의 불균형이 확대되어 왔다.

천안·아산·서산·당진 등 충남의 북부지역은 수도권으로부터의 도시화 압력 증대와 신산업지대의 형성에 따라 도시와 농촌 모두 급속한 도시화를 경험하고 있다. '90~'95 기간중 충청남도에서 인구가 증가한 12개 읍·면·동의 대부분이 충남 서북부의 천안시·아산시·서산시·당진군 및 경부회랑에 접해 있는 연기군의 일부 지역에 분포해 있다.⁴⁾

이 지역의 도시화는 천안시를 기점으로 하여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아산지역까지, 1990년대 이후부터는 서산·당진지역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아산만 일대에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및 항만시설이 조성되고, 서해안고속도로가 개설 예정으로 있어 도시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기존 시급도시의 동부(洞部)는 이미 상업·서비스 기능 및 주거시설에 대한 수요 확대로 시가지의 확대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농촌지역 역시 기능적 도시화 현상과 함께 도시경제에 밀접히 통합되어 가고 있다.⁵⁾

연기군의 동면·남면·금남면, 공주시의 반포면, 논산시의 계룡출장소 연산면·벌곡면·양촌면, 금산군의 복수면·진산면·추부면 등은 통근통학, 일상용품 구매 등의 일상적인 생활서비스를 대전광역시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교통체계가 개선될수록 강화되고 있다. 특히 대전광역시 자체의 제조업 기능이 약하여, 이것의 교외화가 아직은 미미한 편이다. 이에 비해 상업·서비스업 기능의 확산은 주요 간선도로를 따라 다소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서해안의 보령·홍성·서천·태안지역은 차량산맥에 의해 내륙지역과 차단되어 있고, 교통망의 발달이 저조하여 중견도시의 발달이 부진하다.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적인 서비스 수요를 충분히 충족해 주지 못하는 소규모 도시들이 정립적으로 분산 분포해 있다. 대부분의 시·읍·면 소재지가 농어업의 쇠퇴에 의해 농어촌 중심지

4) '90~'95년 기간중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천안시의 직산면(11.4%), 성거읍(5.6%), 입장면(1.3%), 천안동부(1.3%), 아산시의 탕정면(4.6%), 신창면(3.0%), 배방면(1.4%), 서산시의 동부(0.7%), 음암면(0.1%), 그리고 기타 지역중에서 계룡출장소(11.4%), 홍성읍(1.1%), 연기군 전동면(0.1%) 등이 해당된다.

5) 이 과정에서 도시적 토지이용과 농촌적 토지이용간, 농촌지역에 진출한 상공업 기능과 농촌 사회간의 긴장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공장, 상업시설 등과 같은 새로운 도시기능이 기존의 농촌지역으로 무질서하게 진출하고 있으나, 토지이용 관련법령의 규정조항 미비, 법령간의 충돌,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권한 미비로 효과적인 토지이용의 유도 규제가 어려운 상태에 있다.

로서의 기능은 약화되고 있으나, 서해안고속도로의 개설, 산업입지의 증가, 관광수요의 증가 등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외생적인 요인에 의한 도시기능의 다양화와 성장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대중국 교류가 본격화 될 경우 백제 왕조시대에 누렸던 활발한 문물 교류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⁶⁾

차령산맥 줄기에 있는 청양, 예산 남부, 공주 서부, 부여 서북부, 서천 동북부지역은 충청남도에서 가장 오지지역이면서 교통망 체계의 발달이 부진하여 타 지역과의 연계성이 약하고, 대전광역시와 수도권의 영향력이 낮다. 이 지역은 농업중심의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어, 읍·면 소재지들이 배후 농촌지역의 구매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전형적인 농촌중심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지형적인 면에서 농업경영 여건이 가장 불리한 편에 속한다. 따라서 농업경제의 쇠퇴가 타 지역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면서, 도시기능 역시 가장 크게 약화되고 있다.⁷⁾

이상과 같은 도시성장의 지역간 불균형 위에,

교통·통신체계 개선에 따른 지방생활권의 광역화가 진행되면서 도시체계의 불안정화와 하위계층 도시들의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통근·통학권, 시외버스 연계권, 통화권, 시외통화권 등에 의해 나타나는 대전·충남의 지역간 연계구조에 의해 [그림-1]과 같이 파악된다.⁸⁾

대전광역시와 천안시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확실한 중심지의 지위에 있다. 그러나 서해안의 서산시·홍성군, 그리고 보령시는 권역의 종류에 따라 중심지로서의 지위가 달라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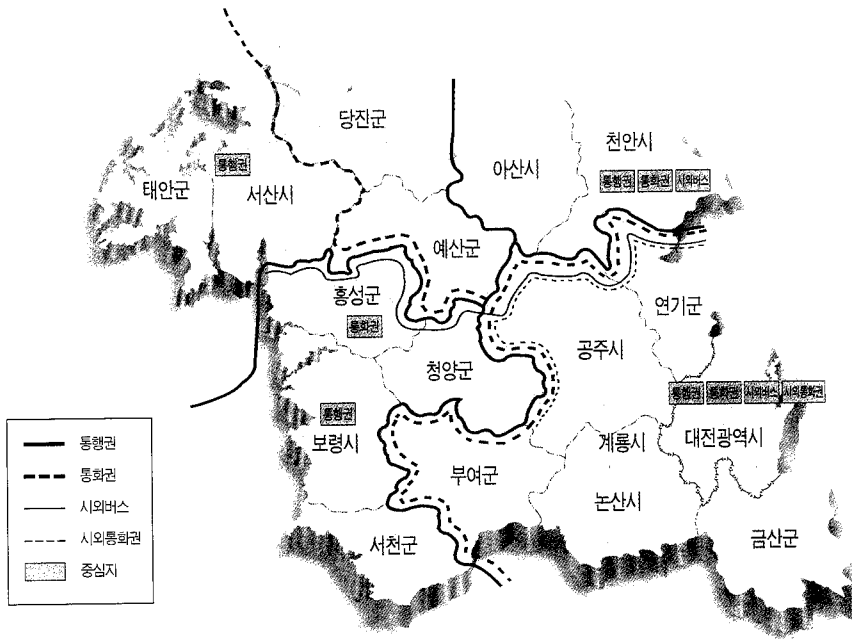
각종 권역의 구성 형태를 보면, 대전광역시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 주변의 공주시 논산시 금산군 그리고 연기군을 배후지로 하고 있지만, 시외통화권에서는 부여군이 제외된다.

천안시는 시외버스 연계권에서는 천안·아산·예산·당진·서산·태안의 6개 시·군을 배후지로 하지만, 통화권에서는 천안 아산 예산 당진의 4개 시 군을 배후지로 하고 있으며, 통근·통학권에서는 천안·아산의 2개 지역만을 포섭하고 있다.⁹⁾

6) 그러나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될 경우 서북부 해안지역은 수도권으로, 기타지역은 군산지역으로 경제, 문화 등의 활동기능이 흡수당하고, 이에 따라 기존의 경제기능 마저 양단지역으로 분산될 가능성도 높다. 다시 말해서 충남 서부지역은 주변지역의 개발압력으로 인하여 기능 분산이 가속화되어 한계지역으로 계속 남아 국가 균형발전에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황용주 외, 1989).

7) 따라서 이 지역의 주민들은 고차의 서비스가 아닐지라도 상위 도시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그만큼 도시적 편익을 얻는데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8) 통행권은 고차인자분석(Higher-order Factor Analysis)에 의해, 기타의 권역은 주연계 분석(Dominant Flow Analysis)에 의해 구분하였다(김정연, 1999, 미발간).



[그림-1] 대전 충남지역의 지역간 연계와 도시권의 구조

기타의 지역 중에서 통근통학권과 시외버스 연계권을 기준으로 할 때, 보령시는 보령·홍성·청양·서천의 4개 시·군의 중심지의 지위에 있고, 서산시는 서산과 태안의 2개 시·군의 중심지의 지위에 있다. 홍성은 통학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만 서해안의 6개 시·군의 중심지의 지위에 있다.

이상과 같이 대전광역시와 천안시가 강한 결

절기능을 하고 있지만, 각각 충남지역의 동남단과 동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심지의 성장이 미약한 서해안 일대의 권역구성과 그 중심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시·군청 소재지 중에서도 상당수가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으며, 그 외 읍·면급 도시는 전혀 중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9) 하지만 통근·통학권에서는 천안으로부터 예산으로의 유출 통행량이 유입 통행량보다 많기 때문에 예산군이 제외된 것이므로, 실제로는 예산군도 천안시를 중심으로 한 통근·통학권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2) 도시 기능의 침체·쇠퇴

충남의 시·읍급 도시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문별 사업체 수와 종업원 수를 대상으로 전국 도시와 상대적으로 비교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김정연 외, 1998, pp.19~26.), 시급 도시들은 거의 모든 부문에서 전국 시급 도시의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읍급 도시의 부문별 기능은 전국 읍급 도시의 평균 수준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제조업 기능과 도시 기반시설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 기능에 있어서는, 첫째, 제조업의 경우 충남의 시급 도시는 사업체 수와 종업원 수가 전국의 시급 도시 평균 수준의 각각 77.3%, 89.6%로 저조하다. 충남의 읍급 도시는 사업체 수에 있어서는 전국 평균의 125.6%이나 종업원 수는 전국 평균의 71.7%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제조업체가 재래의 영세한 소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상업 및 서비스 기능은 충남의 시급 도시는 사업체 수와 종업원 수가 전국 시급 도시 평균의 각각 76.7%, 76.4%로 저조하다. 반대로 충남의 읍급 도시는 전국의 읍급 도시 평균보다 월등히 높으며, 상업·서비스업 기능만 본다면 타 도의 읍급 도시에 비해 중심지 기능이 훨씬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충남

의 시급 도시는 금융 및 보험, 통화금융기관, 비통화 금융기관 업체 수가 전국 평균의 각각 75.7%, 37.9%, 42.0%에 불과하고, 이들 기관의 예금액과 대출액도 역시 낮은 수준이다. 반면, 읍급 도시는 업체수가 전국 읍급 도시 평균의 각각 136.8%, 133.3%, 100.0%로 전국 평균과 같거나 높고, 이들 기관의 예금액과 대출액도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교육기능에 있어서는, 충남의 시급 도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학교 수는 전국의 시급 도시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고, 대학교는 전국의 시급 도시 평균수준의 약 2배에 이르고 있으나, 대학원은 54.9% 수준이다.¹⁰⁾

충남의 읍급 도시는 초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교육기관이 전국 읍급 도시의 평균수준을 상회한다.

의료기능에 있어서는, 충남의 시급 도시는 모든 유형의 의료기관 설치율이 전국의 시급 도시 평균에 미달하고 있으나, 도시인구 만명당 병상 수는 전국 평균치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반면, 충남의 읍급 도시는 전국 읍급 도시의 평균 의료기관 설치율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며, 특히 의원과 한방병원 설치율은 전국 읍급 도시 평균 수준보다 각각 16배 높다.

10) 충남의 대학교는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천안시 및 아산시와 전통적으로 충남의 수부 역할을 담당했던 공주시 등에 집중되어 있다.

문화기능에 있어서는, 충남의 시급 도시는 공공도서관, 공보 문화원, 예식장 등의 설치율이 전국 시급 도시 평균보다 높은 반면, 시민회관과 극장 수는 전국 평균 수준에 미달하고 있다. 충남의 읍급 도시는 공보문화원과 시민회관은 전국 읍급도시 평균의 각각 78%, 84% 수준이나, 공공도서관, 실내체육관, 정구장, 수영장 등은 전국 읍급 도시 평균과 비슷하다.

도시기반 및 생활환경에 있어서는, 충남의 시급도시는 도로율, 주택보급률만 전국 시급 도시 평균 수준을 상회하고 있고, 상수도 보급률과 하수도 보급률(인구기준) 등은 각각 전국 시급 도시 평균의 77%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충남의 읍급도시 또한 상수도 1인 1일 급수량, 하수도 보급률, 공동주택률 등에서만 전국 읍급 도시 평균을 약간 상회하고, 나머지 시설은 전국 평균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다. 특히 도로율은 전국 읍급 도시 평균의 43.2%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충남의 시급 도시 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반면에 읍도시의 기능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읍급 도시가 시급 도시로 성장하지 못함으로써 군청이 소재한 읍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시급 도시 역시 기능 강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도시화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그 결과 지방생활권의 형성과 발전을 선도할 중견도시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지체되고 있다.

3) 도시 환경의 낙후

충남의 도시들의 물리적 환경 특성은, 첫째로 대부분의 도시가 지역간 간선도로 및 철도역을 중심으로 자연발생적으로 발달한 비정형적인 도시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지금도 이러한 결절점이 도시의 중심지로서 역할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혼잡과 시가지의 인위적인 단절에 의한 불균형적인 발전을 초래하고 있다.

둘째로 상업·서비스업 기능들이 간선도로변을 따라 입지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 때문에 간선도로와 우회·순환도로를 중심으로 토지이용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간선도로가 건설되면, 상업·서비스업 기능들이 기존 간선도로와의 접속지점에서부터 이것을 따라 확산하면서 그 배후에는 밀집 주거지를 동반하는 대상형(帶狀型)의 토지이용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로 기존 시가지는 혼잡·노후화를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외곽에서는 신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이 진행되고 있다. 시·군청 소재지 또는 성장도시는 간선도로를 따라 선형의 시가지가 조성되거나 도시 외곽부에 아파트 등 고층의 공동주택단지의 건설 또는 택지개발의 증가에 따른 비지적(飛地的)인 시가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도심은 전 산업사회에 입지한 시설물과 기능이 엄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도시기반이 정비되지 못한 채 혼잡과 노후화를 경험하고 있다. 신시가지 역시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확산

되는 경향이 있다.

이상과 같은 기초적인 도시환경이 낙후라는 문제 위에 질적인 도시환경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 첫째로, 그간의 개발과정에서 역사적 자산에 대한 보전노력이 미흡했고 도시민의 무관심 속에서 중요한 자원들이 사라져가고 있다. 그래서 공주시·부여읍을 비롯한 충남의 많은 역사도시들이 그 역사성과 고유성을 거의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둘째로, 충남의 도시들에서도 전국적으로 형성된 획일적인 가치관에 의해 건축활동과 도시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지역적 특성과 고유한 매력을 상실하고 있다. 셋째로, 신개발지는 지나치게 거대한 건물과 공간조성으로 인간적인 규모를 상실하고, 기성시가지는 협소한 대지와 건물, 가로망 등이 무질서하게 혼재하여 토지이용 효율의 저하와 공간적·심리적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¹¹⁾

3. 여건변화와 충남 중소도시의 새로운 가능성

1) 사회조류의 변화와 도시개발의 과제

(1) 도시화의 성숙 → 도·농공생형 개발방식의 정착

2020년대에는 남한의 인구가 5,060만 수준에서

정지되고, 도시화율은 90%에 이르러 사실상 대부분의 인구가 도시에서 거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도·농간의 인구이동이 극히 적거나 없어지는 대신에 도·농간의 기능적인 통합이 진전되면서 전통적인 농촌지역이 고립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도·농공존(混住)형 지역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천안시 등의 통합시나 광역시에서 그러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도·농간의 통합이 본격적으로 진전되면서 도·농공존지역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편화될 것이다.

따라서 도시와 농촌지역이라는 이원적인 공간구분에 의해 한 부분만을 다루고 있는 도시 및 지역계획제도는 상당부분 개선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중심도시와 배후 농어촌이 하나의 사회생활권으로 통합되어야 하며, 이와 병행하여 주위의 녹색공간과 조화를 이루고 전통적인 농촌의 분위기를 최대한 살리면서 생활편의시설을 도시화하는 농촌의 전원도시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의 시·군·읍·면 소재지 이외의 새로운 시가지지역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2) 생활가치관 변화 → 도시환경의 질 개선 중시

11) 주민들의 도시환경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도시규모가 클수록 생활 불만족도와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교통을 비롯하여 교육환경 문화공간 공원녹지 대기·수질·폐기물처리 등과 같은 도시환경의 쾌적성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는 도시기능의 양적 공급만으로는 도시민의 생활을 만족시킬 수 없음을 의미한다(김정연 외, 1998, pp. 39~49).

21세기를 앞두고 사람들의 관심이 생존과 경제력 향상과 같은 물질주의적 욕구충족으로부터 점차 자아 정체성의 확립과 자기계발, 지역사회와 환경에 대한 배려, 심미적 탐구 등 보다 고차원적인 욕구를 실현하는 데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 가치관의 변화를 삶의 질 추구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의 핵심은 물질적 생존과 경제적 향상 중심의 생활가치관으로부터 자아실현과 정신적 고양, 인간적 교류와 사회적 참여 등 시민성의 발현으로의 전환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생활가치관의 변화는 고도성장기의 생산기반 중시의 도시정책으로부터 생활기반 중시의 도시정책으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시민생활과 밀착한 도시개발 및 주민참여형의 도시정비 방식의 도입과 역사 문화 자연경관의 정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3) 지방화의 성숙 → 참여적 개발의 활성화, 도시환경의 공동체적 가치구현

삶의 질 중시의 도시개발은 고도 경제성장시대와 같이 지역주민을 배제시킨 채 행정이 주도하는 물리적 환경정비, 즉 공급자의 논리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 민간의 자율과 지역의 자치능력 극대화가 요청되는 시대에서 '행정=공익(公益)', '개인=사익(私益)'이라는 도식은 더 이상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한 도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개발이

그 도시주민의 복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에너지가 도시개발에 투여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도시기반시설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는 한편 새로운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제가 지방정부와 시민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 갖추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공동체적 가치 구현을 위한 도시환경 즉, 공공과 개인 모두에 속하는 공적 공간(共的 空間)이 적극적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공적(共的) 공간은 함께 하는 공간이며 나눔의 공간인 동시에 사회적 담화를 통해 합의해 가는 과정적 공간으로서 민주사회의 물리적 환경이기 때문이다.

(4) 정보화 산업체제의 유연화 → 지역의 문화, 쾌적한 환경을 토대로 경쟁력 확보

정보통신의 발전은 대도시 집중을 야기하는 한편, 입지제약 완화에 의한 산업 및 인구의 지방 분산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또한 산업체제의 변동은 정보 관련 활동의 대도시권 집중과 함께 지방 중소도시의 쾌적성과 전문화의 활용 가능성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지금까지의 유연적 산업화 추세를 볼 때 그 실현성은 아직 분명하게 말할 수 없지만,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냐 지방의 경우를 보면 지방 중소도시의 신산업화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보화와 산업체제의 유연화가 결합되면서 산업을 끌어들이기 위한 지역의 상대적 우위성의 개념은 과거의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으로부터 양호한 도시기반, 생산자에 대한 세제혜택, 문화적 시설이 풍부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다른 도시들보다 우월한 여건 즉, 다양하고 다원적인 문화경관, 주택, 토지, 직업에의 균등한 접근기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과 편의시설, 깨끗한 도시환경을 유지해 주는 효율적인 도시기반시설과 서비스, 새로운 도시활동기반이 되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

2) 충남 중소도시의 새로운 기능성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사회조류의 변화를 고려할 때 충남의 중소도시들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가능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첫째, 대부분의 지방중소도시가 소규모이면서 사양화되고 있는 재래의 상업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어 집적경제(集積經濟)를 달성하기가 곤란했으며, 인구와 새로운 산업의 유입이 어려웠다. 그러나 도시의 소규모성은 도시민의 사회적 만족도를 높이고, 도시의 개성적 특성을 표출하며, 과학적인 도시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인구나 산업을 끌어들이려고만 하기보다는 교류자의 증가를 추구하는 적소개발(適疎開發) 방식을 채택하고, 도시간의 광역기능의 효과적인 활용에 의한 네트워크의 효율성(network economy)을 추구한다면 소규모성의 단점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방중소도시는 주변의 배후지를 포함하여 동질적인 생활공동체 형성 기능이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다. 도시 규모가 작아질수록 근린성과 생활공동체의 문화성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장소성 및 근린성과 문화성은 사회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실질적인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생활공동체를 형성시키는 데 중요한 여건이 되고 있다.

셋째, 지금까지 충남의 중소도시는 도시개발 행위가 적었고, 도시개발의 완속성과 자연 순응성이 대도시보다 강하여 상대적으로 자연환경이 양호한 상태이다. 또한 도시공간의 미분화, 전근대적인 기능의 온존이 오히려 전통문화에 기초한 개성 있는 도시를 가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소도시가 지니고 있는 지방고유의 언어·문화적 생활상·의식적 관습·독특한 역사적 전통은 개성 있는 도시를 구성하는 무형의 자산이며, 지속적으로 문화와 역사 및 전통을 승계해 가는데 있어서도 강한 기반이 될 수 있다.

4. 충남 중소도시의 개발전략과 방향

1) 충남 도시개발의 기본목표와 전략

(1) 기본목표

21세기의 충남도시의 발전목표는 인본도시(人本都市)를 건설하는데 있다. 여기서 인본도시는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중시되는 도시' 또는 '시민이 도시의 주인으로서 인간답게 사는 도시'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보다 넓게는 사회·정치·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지구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는 도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의 모든 영역에 즉, '도시의 물리적 환경', '도시의 생활영역', '도시의 정치'를 포함한 '도시의 변화 전반'에서 인본주의적 요소를 확보함으로써 만들어져 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중심도시와 농촌이 통합되어 사회생활권을 형성하는 도·농 통합형의 도시구조를 형성하고, 도시의 내부 공간적 관계는 시민들의 근린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변화되며, 인간의 활력이 보장되고 평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도시사회구조를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도시화의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본도시를 지향하는 도시개발에서는 양적인 성장보다는 건강성,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등과 같은 시민생활의 질적인 향상이 더욱 중요한 목표가 된다(김정연 외, 1998, pp. 61~68).

(2)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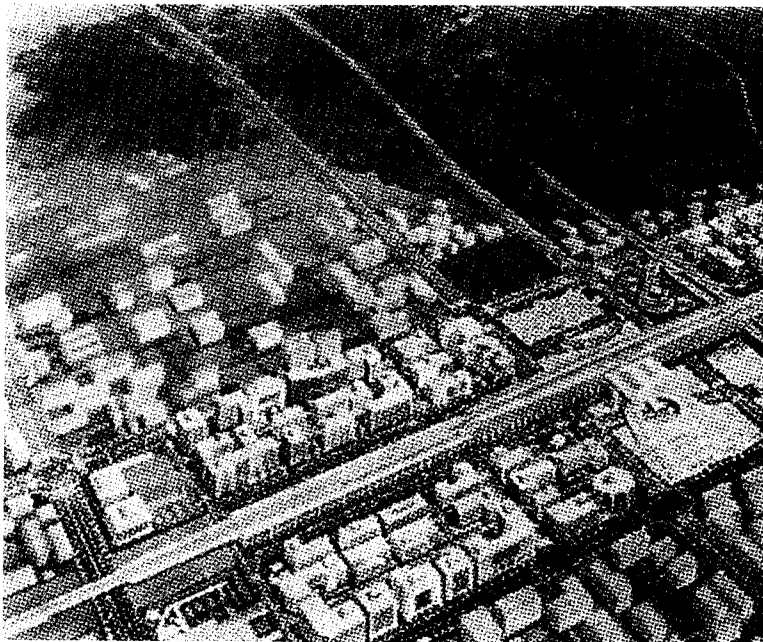
첫째, 개별 도시의 특성에 적합한 계획이 수립·집행되어야 한다. 인간이 주인이 되는 도시, 인간과 환경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 도시가 지니고 있는 특수한 조건들을 충분히 고려하는 가운데, 그 특성에 부합되는 유형별 준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각각의 도시는 자연환경,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요소별로 다양한 변이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 도시의 공간환경과 사회의 모든 부문들의 특성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 부문별 시행방안을 결정해야 한다.

둘째, 도시 내외적인 유기적 연계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각 도시 또는 지역은 사회적으로나 생태적으로 유기체적 긴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다른 모든 지역들과 나아가 전 지구와 상호 작용하는 개방체계이다. 따라서 인본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과정은 인간복지와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동시에 도시 내의 유기적인 생태계 순환과 안정성의 유지 및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파악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시민 위주의 도시개발을 추구해야 한다. 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의 관점에서 도시를 계획·정비하기 위해서는 제도나 조직보다 사람이 중시되어야 하며, 이용자 위주 또는 시민 위주의 계획과 설계가 요구된다. 시민 위주의 계획이 되

기 위해서는 안전성, 건강성, 편리성, 쾌적성 등의 최저기준(civil minimum)이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지방정부는 시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직접 조사해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넷째, 참여형 개발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에, 시민참여를 통한 지지기반 위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주민참여형의 개발과정이 정립되도록 해야 한다. 참여형 개발방식은 성숙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밑거름이다.



❶ 역세권신시가지 모습

2) 도시 유형별 개발방향

(1) 지역생활권 중심(시급)도시의 기능 향상

「천안-역세권신도시-아산」 연담도시권, 공주시·보령시·서산시·논산시·홍성 중심도시(홍성읍+신시가지)는 광역적 도농 통합 생활권의 장기적인 발전을 선도하는 거점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각각의 중심도시는 광역 지방생활권이 지니고 있는 자원 및 사회경제적인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동일 생활권은 아니지만 개발내용에 따라 하나의 계획구역 안에 포함되는 주변지역과의 유기적인 연계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천안-역세권신도시-아산」, 「논산-강경-연무」 등과 같이 연담도시권 자체가 광역 지방생활권의 중심도시 기능을 하게 되는 경우는, 광역적 도시기능 및 시설이 연담도시권 내의 개별 도시들간에 적절히 분담 배치되도록 함으로써 기능의 중복에 의한 불합리를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이들 도시가 도농 통합 중심도시로서 도시민은 물론 배후지 주민의 일상적인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생활 중심지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기초수요의 충족 및 지역사회 활동의 활성화와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교육 의료시설, 사회복

지시설, 문화 체육시설의 조기에 확보될 필요가 있다.

천안시는 2006년에 40만명, 2016년에 58만명 규모의 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나머지 대부분의 도시들도 2006년에는 인구 10만명 내외, 2016년에는 13만명~20만명 규모의 중견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존 시가지의 갱신과 신시가지의 개발이 조화를 이루어 합리적인 공간구조가 형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농림어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는 광역 지방생활권의 중심도시는 도시지역내 또는 인접지역에 제조업 기능·유통 기능·첨단 농림어업 지원 기능을 최대한 유치하여 지역경제의 구조적 개편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고, 대단위 산업단지 주변의 광역 지방생활권의 중심도시는 산업지원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용토록 한다.

(2) 새로운 기능 수용을 위한 신도시 개발

충청남도가 이미 개발을 추진하고 있거나 구상중인 신도시들은 고속전철 역세권 신도시(아산시 배방면), 신산업단지 지원도시(당진, 대산, 아산, 장항), 기존 도시와 연계하여 종합 기능적인 중견도시 육성을 지향하는 신시가지(홍성), 특정 기능입지에 따른 전원적 신주거단지(계룡) 등으로 그 성격이 매우 다양하다.

신도시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성장의 동력과 자족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여기서 자족성이란 신도시의 인구 규모에 어울리는 경

제활동 규모와 도시기능을 보유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성장의 잠재력과 활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활동 면에서 자족성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도시에서 생산한 재화나 용역을 다른 도시나 배후지역에 수출할 수 있는 기반산업이 발달해야 한다. 경험적으로 인구규모가 클수록, 제조업 기능이 우세할수록 자족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산품의 전문 도소매 유통기능, 중소기업의 창업보육시설, 연구개발시설 등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종 기반시설을 기본수요만큼 확보해야 한다. 교통, 교육, 문화, 의료, 주택, 공공기능 등이 도시 규모에 적합한 수준으로 공급됨으로써 도시 내에서 기본수요를 충족하고, 타 지역으로의 불필요한 이동을 저감시킬 수 있다. 특히 신도시 개발 초기에는 입주규모에 비해 이런 기반시설과 기능의 정착이 따라가지 못하는 시차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입주시기에 맞추어 이들 시설들을 공급하고 이를 지원하는 운영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족적 신도시 개발촉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충분한 도시 기반시설을 선행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상업, 업무, 유통, 고차적 서비스 기능, 행정기능이 확충되도록 한다. 상업, 업무시설의 조기 유치를 위해 상업·업무용지의 매각조건 완화, 매입자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부여 등과 같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이

전 추진을 위해서 정부, 공공투자기관에 대한 부지 매입가격을 대폭 낮추고, 이에 대한 예산 확보를 추진한다. 직주근접 유도를 위한 주택공급과 업무기능 유치의 연동화 및 주택 취득세 등의 면세 혜택을 통해 조기 고용창출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업무기능과 주택공급을 연계하여 시행토록 한다.

(3) 농어촌지역 활력화의 거점으로서 소도읍의 활성화

농촌 중심형은 생산기반시설의 확충과 지역경

제 잠재력 강화를 통한 개발거점기능의 강화, 농수축산물 가공집적기업 육성 등 지원지향형의 지역산업 육성, 생활환경 개선·정비를 통한 전원도시화 추진, 성장에서 적소(適疎)로의 전략적 전환 등을 추진토록 한다.

대도시 주변형은 대도시와의 연계를 기반으로 하여 산업 특화와 신산업지구화를 모색하고, 무분별한 도시화와 공장입지를 조정한다. 장기적인 도시기반시설 구축, 주택공급에 의한 인구수용과 쾌적한 도시건설 및 교육·문화·유통 등 생활기

〈표-1〉 소도시 유형별 특성과 발전전략

유형	특성	발전전략
농촌 중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는 대부분의 읍 소재지 인구증가율, 전입률, 공동주택률, 제조업종사자율이 매우 낮은 정체형의 도시 광업활동 및 숙박·서비스업의 특성도 매우 미약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기반 시설의 확충 생활기반 시설의 정비·확충 지역소득원 개발·육성 개발 거점기능 강화 전원도시화 적정수준의 과소화 전략
대도시 주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로 대도시 주변에 분포 - 충남은 북부권에 집중 분포 인구증가율, 전입률, 공동주택률, 제조업종사자비율이 높은 전형적인 성장 특성을 나타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도시 기반의 정비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 신 산업지구화
특수 기능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안역의 어항, 신산업단지 인접지역, 관광지 주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기반의 확충 지역소득원 개발·확충 관광산업 육성과 전원도시화 네트워크형 거점 개발

반시설 확충을 추구하고, 학원·연구·시험기관 등을 입지시킨다.

특수기능형은 도시 특성자원의 생산성을 강화하고, 대체형 산업 혹은 보완형 산업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도시는 자원보존 및 개발과 실버타운 건설, 어업도시는 어업기반 확충과 가공처리 기능 도입과 어촌 고유의 관광자원 및 관광상품 개발 등을 실시한다. 개발 저점기능을 강화하고, 생활환경 개선·정비를 통해 전원도시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5. 맺음말

충남의 도시들은 경제적인 침체·쇠퇴라는 문제와 도시환경의 질 악화라는 이중적인 고민을 안고 있다. 천안시를 제외하면 지방생활권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중견도시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읍·면급 도시들은 기초적인 생활서비스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도시화의 성숙, 생활 가치관의 변화, 지방화의 성숙, 정보화·산업체제의 유연화와 개방화 등의 사회조류의 변화는 충남의 중소도시 개발에 있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것은, 중소도시가 대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집적에 대응하여, 우월한 자연환경을 토대로 한 쾌적성 확보와 역사 문화적 자산을 토대로 한 정체성 확보를 통하여 지역의 매력을 가꾸어나감으로써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21세기의 충남 중소도시의 발전목표는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중시되고 시민이 도시의 주인으로서 인간답게 사는 인본도시 건설에 두어야 하며, 개별도시의 특성에 적합한 계획의 수립·집행, 도시 내외적인 유기적 연계성의 충분한 고려, 시민 위주의 도시개발 추구, 참여형 개발방식의 적용 등과 같은 추진전략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열린충남**

참고문헌

- 권오혁, “소도시 개발의 전략과 추진체계 개선방안”,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1996.
- 김정연 외, 21세기 충남의 도시발전 구상 : 인본도시를 위한 시론, 충청남도, 1998.
- 이기석·이옥희, “정주체계의 정립과 계획구역의 설정”, 국토 개발연구원, 21세기 구도개발의 정책과제, 1996.
- 이기석, “한국 근대도시의 공간적 이해”, 한국도시론, 한국 도시연구소, 박영사, 1998, pp.83~104.
- 이건호 외, 충청남도 중소도시의 도시계획 수립방안, 충청남도 목원대학교, 1998.
- 충청남도·충남발전연구원, 충남 장기발전 비전 21, 1997.
- 한표환 외, 일본 지방도시의 발전전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 황용주 외, 충청남도 권역별 개발계획(안), 충청남도, 1989.
- 황용주, 도시계획, 삶과 문화의 틀짜기, 저작이카데미, 1997.

지정번호	명 칭	소 재 지	소 유 자	지 정 일
84	금산 참후의 은행나무(1주)	금산군 추부면 요광리 329-8	吳彰煥	62. 12. 3
106	예산의 白松(1주)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 78-28	金城鎬	"
136	外煙島 상록수림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산293	문화재관리국	"
138	安眠島 모감주나무 군락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1318	태안군	"
169	마량리 동백나무 숲	서천군 서면 마량리 산14	共有	65. 4. 1
265	연산 화악리 烏骨鷄	논산시 연산면 화악리	李來璉	80. 4. 1
317	당진 송산면 회화나무(1주)	당진군 송산면 삼월리 52	李康化	82. 11. 4
320	부여 내산면 은행나무(1주)	부여군 내산면 주암리 148-1 부여군 내산면 주암리 157-2	李壽馥 李柄祺	82. 11. 4
321	연기 봉산동 향나무	연기군 조치원을 봉산동 128 연기군 조치원을 봉산동 20-11	崔鍾錫 崔重洛	82. 11. 4
334	卵島 꿩이갈매기 번식지	태안군 근흥면 寶宜島里 산22 卵島 일원	李淑圭	82. 11. 4
353	서천 신송리 곰솔(1주)	서천군 서천읍 신송리 262-3	國有	88. 4. 30
365	금산 보석사 은행나무(1주)	금산군 남이면 석동리 709	寶石寺	90. 7. 26
398	천안 광덕사 호도나무	천안시 광덕면 광덕리 601-6	廣德寺	98. 12. 23

충청남도의 산업연관표



이종상

충남발전연구원
산업경제부장

1. 서 론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후생을 증진시키며, 재정의 자주적인 역량을 증대시켜 지역발전과 지방자치의 구현을 가능하게 하는 근간이 되고 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 한정된 투자재원에서 재정투자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의 경제구조와 각종 개발사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역경제의 분석기법으로는 입지계수모형, 경제기반모형, 변화할당모형, 지역경제 기반모형 등이 있으나, 이러한 모형은 이용하기는 간편하지만 분석내용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더 세밀한 분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지역 산업연관 분석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산업연관 분석은 생산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산업간의 상호 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분석하는 경제 분석방법이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2~3년 간격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산업연관표를 작성·발표하고 있으며, 1995년의 산업연관표가 가장 최근의 산업연관표이다.

전국과 지역은 산업구조, 투입계수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전국의 산업연관표를 그대로 충남지역의 경제 분석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충남지역의 지역경제 구조, 지역경제 장래예측 및 계획 수립 등을 위해서는 충남지역의 산업연관표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작성되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의 산업부문별로 입지계수를 구하고, 입지계수와 전국의 기술계수를 이용하여

충남의 산업연관표를 작성하는데 있다. 기준년도
는 1995년이며, 산업분류는 28개 부문과 77개 부
문으로 작성하였다.

2. 지역 산업연관표 작성의 원리

산업연관 분석은 각 산업에서 생산된 재화 및
서비스가 다른 산업의 생산을 위한 원재료로 투
입됨으로써 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서로 밀접
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러한 산업간의 상호
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방법이
산업연관 분석이다.

산업연관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착상은 F.
Quesnay의 경제표, 이론적인 근거는 왈라스의
일반균형이론에서 비롯되었는데, 현실경제에 적
용할 수 있게 된 것은 W. W. Leontief가 1936년

에 「미국 경제체계에서의 수량적인 투입산출 관
계」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초기의
산업연관모형은 국가를 단위로 분석이 이루어졌
는데, 1950년대 W.Isard를 중심으로 한 지역과
학자들에 의해서 지역경제 분석에 응용하였다.

전국의 산업연관모형이 국가 전체의 산업부문
간 상호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라면, 지역의 산업
연관모형은 지역차원에서 산업부문간 상호관계
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 산업연관모형에서 어떤 지역 a와 a 이외
의 기타 지역 b로 구성된 전국의 거래관계를 표
로 나타내면 <표-1>과 같다.

<표-1>을 전국의 산업연관의 균형방정식으로
표현하면,

$$\alpha_{11} + \alpha_{12} + Y_1 - M_1 = X_1$$

<표-1> 지역의 산업연관표

		중 간 수 요						최 종 수 요			수 입 (-)	총산출
		a 지 역		b 지역		합 계		a 지 역	b 지역	합 계		
		산업1	산업2	산업1	산업2	산업1	산업2					
a	산업1	α_{11}^{aa}	α_{12}^{aa}	α_{11}^{ab}	α_{12}^{ab}	α_{11}^{at}	α_{12}^{at}	Y_1^{aa}	Y_1^{ba}	Y_1^{at}	M_1^a	X_1^a
지역	산업2	α_{21}^{aa}	α_{22}^{aa}	α_{21}^{ab}	α_{22}^{ab}	α_{21}^{at}	α_{22}^{at}	Y_2^{aa}	Y_2^{ba}	Y_2^{at}	M_2^a	X_2^a
b	산업1	α_{11}^{ba}	α_{12}^{ba}	α_{11}^{bb}	α_{12}^{bb}	α_{11}^{bt}	α_{12}^{bt}	Y_1^{ba}	Y_1^{bb}	Y_1^{bt}	M_1^b	X_1^b
지역	산업2	α_{21}^{ba}	α_{22}^{ba}	α_{21}^{bb}	α_{22}^{bb}	α_{21}^{bt}	α_{22}^{bt}	Y_2^{ba}	Y_2^{bb}	Y_2^{bt}	M_2^b	X_2^b
전국	산업1	α_{11}^{ta}	α_{12}^{ta}	α_{11}^{tb}	α_{12}^{tb}	α_{11}	α_{12}	Y_1^{ta}	Y_1^{tb}	Y_1	M_1	X_1
	산업2	α_{21}^{ta}	α_{22}^{ta}	α_{21}^{tb}	α_{22}^{tb}	α_{21}	α_{22}	Y_2^{ta}	Y_2^{tb}	Y_2	M_2	X_2
부 가 가 치		V_1^a	V_2^a	V_1^b	V_2^b	V_1	V_2	α 공급지, 수요지 공급부문, 수요부문			Y 공급지, 수요지 산업	
총 투 입		X_1^a	X_2^a	X_1^b	X_2^b	X_1	X_2	$t=a+b$				

$$\alpha_{21} + \alpha_{22} + Y_2 - M_2 = X_2$$

가 되며, 이것을 기술계수($a_{ij} = \frac{X_{ij}}{X_j}$)로 표현하면,

$$a_{11}X_1 + a_{12}X_2 + Y_1 - M_1 = X_1$$

$$a_{21}X_1 + a_{22}X_2 + Y_2 - M_2 = X_2$$

위 식을 X 에 관해서 풀면,

$$X = (I - A)^{-1}(Y - M)$$

가 된다.

위 표에서 a 지역 산업부문1과 산업부문2를 균형방정식으로 표현하면,

$$\alpha_{11}^{aa} + \alpha_{12}^{aa} + \alpha_{11}^{ba} + \alpha_{12}^{ba} - \alpha_{11}^{ab} - \alpha_{12}^{ab} + Y_1^{aa} + Y_1^{ba} - Y_1^{ab} - M_1^a = X_1^a$$

$$\alpha_{21}^{aa} + \alpha_{22}^{aa} + \alpha_{21}^{ba} + \alpha_{22}^{ba} - \alpha_{21}^{ab} - \alpha_{22}^{ab} + Y_2^{aa} + Y_2^{ba} - Y_2^{ab} - M_2^a = X_2^a$$

가 된다. 여기서,

$$\alpha_{ij}^a = \alpha_{ij}^{aa} + \alpha_{ij}^{ba}$$

α_{ij}^a 중에서 a 지역으로부터 공급받은 비율을 r_{ij}^{aa} 라 하면,

$$r_{ij}^{aa} = \frac{\alpha_{ij}^{aa}}{\alpha_{ij}^a} = \frac{\alpha_{ij}^{aa}}{\alpha_{ij}^{aa} + \alpha_{ij}^{ba}}$$

가 되며, $0 \leq r_{ij}^{aa} \leq 1$ 이 성립한다. r_{ij}^{aa} 가 0인 경우에는 α_{ij} 는 모두 a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것을 의미하며, r_{ij}^{aa} 가 1인 경우에는 α_{ij} 는 모두 a 의 지역에서 공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기술계수를 이용하여 다시 쓰면,

$$(a_{11}^{aa} + a_{11}^{ba})X_1^a + (a_{12}^{aa} + a_{12}^{ba})X_2^a + (-\alpha_{11}^{ab} - \alpha_{12}^{ab} + Y_1^{aa} + Y_1^{ba} - Y_1^{ab}) - M_1^a = X_1^a$$

$$(a_{21}^{aa} + a_{21}^{ba})X_1^a + (a_{22}^{aa} + a_{22}^{ba})X_2^a + (-\alpha_{21}^{ab} - \alpha_{22}^{ab} + Y_2^{aa} + Y_2^{ba} - Y_2^{ab}) - M_2^a = X_2^a$$

된다. 따라서 a 지역의 기술계수는 $a_{ij}^a = a_{ij}^{aa} + a_{ij}^{ba} =$

$$\frac{(\alpha_{ij}^{aa} + \alpha_{ij}^{ba})}{X_j^a} \text{가 되며, } a \text{ 지역의 투입계수는 } a_{ij}^a = \frac{\alpha_{ij}^{aa}}{X_j^a} \text{가}$$

된다.

지역의 기술계수와 투입계수는 직접조사, 부분조사, 비조사방법에 의해서 추정할 수 있는데, 비조사법은 전국 기술계수표를 기초로 여러 가지 통계 및 경제수학기법을 사용하여 지역투입계수를 작성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비조사법에는 지역가중치 조정법, 수요-공급혼합법, 지역투입계수법,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 등의 방법이 있다.

비조사방법에 의한 지역투입계수의 추정은 먼저 전국의 기술계수(a_{ij}^n)에 지역자료(t_{ij}^a)를 이용하여 지역기술계수(a_{ij}^a)를 구한 다음, 해당 지역의 자체 공급비율(r_{ij}^{aa})을 고려하여 지역투입계수(a_{ij}^a)를 추계하게 된다.

$$a_{ij}^a = t_{ij}^a a_{ij}^n, \quad a_{ij}^{aa} = r_{ij}^{aa} a_{ij}^a$$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투입계수를 추계하기 위하여 입지계수법을 사용하였는데, 입지계수법의 원리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즉, 전국의 투입구조와 지역의 투입구조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a_{ij}^n = a_{ij}^a$ 가 성립하므로

$$a_{ij}^n = a_{ij}^{aa} + a_{ij}^{ba}$$

(a_{ij}^n : 전국의 기술계수, a_{ij}^{aa} : 지역의 투입계수, a_{ij}^{ba} : 지역이입분의 투입계수)

$$a_{ij}^{aa} = a_{ij}^a - a_{ij}^{ba} = a_{ij}^n - a_{ij}^{ba}, \quad a_{ij}^{aa} = r_{ij}^{aa} a_{ij}^a = r_{ij}^{aa} a_{ij}^n$$

따라서,

$$a_{ij}^{aa} = a_{ij}^n - a_{ij}^{ba} = r_{ij}^{aa} a_{ij}^n, \\ r_{ij}^{aa} = \frac{a_{ij}^n - a_{ij}^{ba}}{a_{ij}^n} = 1 - \frac{a_{ij}^{ba}}{a_{ij}^n} = \frac{a_{ij}^{aa}}{a_{ij}^n}$$

가 성립한다.

여기서 a_i 지역의 i 부문에 대한 입지계수 LQ_i^a 와 a_{ij}^{ba} 와의 관계는

- 1) $LQ_i^a \geq 1$ 이면, $a_{ij}^{ba} = 0$, $r_{ij}^{aa} = 1$, 따라서 지역의 투입계수는 전국의 기술계수와 동일하고,
- 2) $LQ_i^a < 1$ 이면, $a_{ij}^{ba} > 0$, $r_{ij}^{aa} < 1$, 따라서 $a_{ij}^{aa} = a_{ij}^n \times LQ_i^a$ 가 된다.

3. 충남의 산업연관 분석의 방법

1) 지역산업 부문의 분류

충남 산업연관표의 산업분류는 1995년 산업연관표 통합 대분류와 통합 중분류에 따라 28개 부문 77개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2) 입지계수 산정 및 자료

충남의 기술계수는 전국의 기술계수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입지계수법을 이용하여 추계하였다. 입지계수법은 단순 입지계수, 구매자측 입지계수, 교차산업 입지계수, 대수교차산업 입지계수 등이 있으나, 단순 입지계수법을 이용하였다.

입지계수는 어떤 지역의 산업이 전국의 동일 산업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를 측정하는 지수

로서 일반적으로 종사자수를 사용하고 있지만, 부문별로 종사자수를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면적, 가구수 등을 혼용하였다.

28개 부문의 입지계수는 농림수산품의 경우 1995년도 지역내 총생산의 산출액, 그 이외 부문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보고서」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기타 부문은 전국 및 지역에 관한 자료를 구득 할 수 없기 때문에 입지계수는 1로 사용하였다.

77개 부문의 입지계수의 작성에 있어서는 작물은 경지면적(농업총조사), 축산은 축산농가수(농업총조사), 임산물은 임야면적(농림수산통계연보), 수산물은 어업 가구수(지역통계연보)를 이용하였으며, 그밖의 부문은 1995년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보고서 전국편과 충남편의 종사자수를 이용하였다. 사무용품, 가계외 소비지출, 분류 불명 등의 입지계수는 1로 사용하였다.

4. 충남의 산업연관표 작성결과

1) 충남의 입지계수

충남의 투입계수를 추계하기 위하여 1995년 전국의 총종사자수 13,578,889명, 충남의 총종사자수 454,120을 사용하여 충남의 입지계수를 28개 부문과 77개 부문에 대하여 계산하였는데, 28개 부문에 대한 충남의 입지계수는 <표-2>와 같다.

충남은 농림수산물, 비금속 광물제품, 석유·석

〈표-2〉 충청남도 28개 부문 입지계수

산 업 연 관 표		전국 부문별	충남 부문별	부 문 별	입지계수
통합 대분류 (28부문)		종사자수	종사자수	충남/전국*100	
1	농림수산물*	33,601	3,965	11.80	2,712,209
2	광산품**	39,723	2,130	5.36	1,603,360
3	음식료품	322,279	20,890	6.48	1,932,537
4	섬유·가죽제품	711,465	15,147	2.13	0,636,600
5	목재·종이제품	145,766	6,926	4.75	1,420,727
6	인쇄·출판 및 복제	140,037	2,710	1.94	0,578,656
7	석유·석탄제품*	14,863	982	6.61	1,975,598
8	화학제품	343,932	16,045	4.67	1,394,957
9	비금속 광물제품	165,604	13,293	8.03	2,400,191
10	제1차금속	123,453	3,822	3.10	0,925,726
11	금속제품	284,402	8,349	2.94	0,877,800
12	일반기계	335,923	8,381	2.49	0,746,019
13	전기·전자기기	534,058	20,860	3.91	1,167,937
14	정밀기기	61,239	1,424	2.33	0,695,305
15	수송장비	360,844	8,041	2.23	0,666,322
16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172,393	2,912	1.69	0,505,086
17	전력·가스 및 수도	48,662	2,592	5.33	1,592,717
18	건설	981,217	28,415	2.90	0,865,917
19	도소매	2,522,953	71,881	2.85	0,851,920
20	음식점 및 숙박	1,284,655	48,242	3.76	1,122,878
21	운수 및 보관	725,067	18,867	2.60	0,778,069
22	통신 및 방송	100,898	4,303	4.26	1,275,212
23	금융 및 보험	708,239	23,339	3.30	0,985,362
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734,219	12,305	1.68	0,501,129
25	공공행정 및 국방	581,606	29,790	5.12	1,531,564
26	교육 및 보건	1,175,201	45,224	3.85	1,150,669
27	사회 및 개인서비스	960,191	37,250	3.88	1,160,011
28	기타	-	-	-	1,000,000

주 *) 지역내 총생산 농림어업과 산업부문의 산출액을 기준으로 계산(단위 : 10억원)

주**)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보고서 종업원을 기준으로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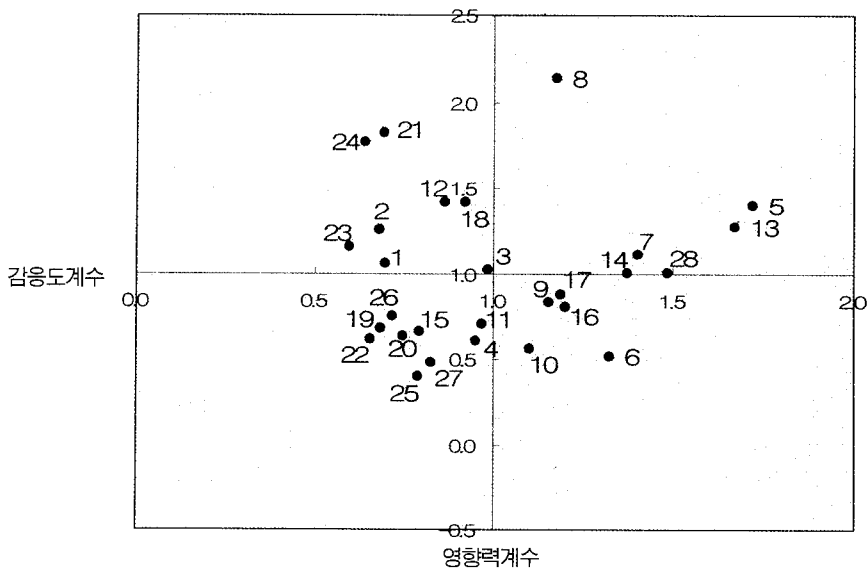
탄제품, 음식료품 순으로 특화되어 있으며, 금융 및 보험, 가구 및 기타 제조업, 인쇄·출판 및 복제 등은 입지수치가 낮게 나타났다. 77개 부문의 경우에는 석탄제품은 충남에서만 생산하는 부문으로서 29.9로 월등히 높고,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축산, 수산물 등이 높게 나타났다.

2) 충남의 산업연관분석 결과

충남의 생산유발계수($I-A$)를 계산한 결과는 <부표-2>와 같다. 어떤 산업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 수요가 한 단위 발생할 때 전 산업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 즉 후방연쇄효과의 정도를 나타내는 영향력 계수는 28개 부문의 경우 <표-3>에 제

시된 바와 같이 목재·종이제품, 전기·전자기기, 석유·석탄제품, 정밀기기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국의 영향력 계수와 비교해 볼 때 석유·석탄제품, 목재·종이제품, 전기·전자기기, 전력·가스 및 수도 등의 분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 산업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 수요가 각각 1단위씩 발생할 때 어떤 산업이 받는 영향, 즉 전방연쇄효과를 나타내는 감응도 계수는 28개 부문의 경우 <표-3>에 제시된 바와 같이 화학제품, 전기·전자기기,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국의 감응도 계수와 비교해 볼 때, 건설, 정밀기기,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1> 충남의 영향력 계수와 감응도 계수

〈표-3〉 전국 대비 충남의 영향력 계수와 감응도 계수

부 문	영향력 계수			감응도 계수		
	충남	전국	충남/전국	충남	전국	충남/전국
1 농림수산물	0.698792	0.771127	0.9062	1.058102	1.122458	0.9427
2 광산품	0.680511	0.741954	0.9172	1.253078	1.341053	0.9344
3 음식료품	0.983013	1.065586	0.9225	1.023556	1.085983	0.9425
4 섬유·가죽제품	0.951093	1.201540	0.7916	0.611717	0.815156	0.7504
5 목재·종이제품	1.722490	1.187372	1.4507	1.401005	1.405135	0.9971
6 인쇄·출판 및 복제	1.322510	1.068111	1.2382	0.513645	0.629072	0.8165
7 석유·석탄제품	1.402536	0.939860	1.4923	1.116778	1.112812	1.0036
8 화학제품	1.175714	1.193399	0.9852	2.143887	2.129181	1.0069
9 비금속 광물제품	1.154901	1.026092	1.1255	0.831751	0.775741	1.0722
10 제1차금속	1.101263	1.423041	0.7739	0.566241	2.400488	0.2359
11 금속제품	0.966537	1.275161	0.7580	0.704994	0.705281	0.9996
12 일반기계	0.864051	1.208579	0.7149	1.421626	0.936578	1.5179
13 전기·전자기기	1.670469	1.171427	1.4260	1.274607	1.148615	1.1097
14 정밀기기	1.372064	1.103471	1.2434	1.001264	0.546432	1.8324
15 수송장비	0.793776	1.257804	0.6311	0.662427	0.814592	0.8132
16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1.199534	1.119491	1.0715	0.804593	0.519202	1.5497
17 전력·가스 및 수도	1.187403	0.895746	1.3256	0.877660	0.971933	0.9030
18 건설	0.921208	1.052955	0.8749	1.421239	0.635784	2.2354
19 도소매	0.682869	0.722952	0.9446	0.678294	0.922749	0.7351
20 음식점 및 숙박	0.748702	0.838849	0.8925	0.633871	0.672916	0.9420
21 운수 및 보관	0.693708	0.887831	0.7814	1.821565	0.942013	1.9337
22 통신 및 방송	0.655867	0.617299	1.0625	0.618552	0.665466	0.9295
23 금융 및 보험	0.596684	0.681262	0.8759	1.159903	1.153516	1.0055
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638526	0.735384	0.8683	1.766902	1.844534	0.9579
25 공공행정 및 국방	0.786985	0.873471	0.9010	0.401475	0.433300	0.9266
26 교육 및 보건	0.718541	0.706869	1.0165	0.751809	0.725832	1.0358
27 사회 및 개인서비스	0.824194	0.844118	0.9764	0.478193	0.511809	0.9343
28 기타	1.486056	1.389250	1.0697	1.001264	1.032370	0.9699

77개 부문의 경우, 영향력 계수는 사무용품, 육류 및 낙농품, 컴퓨터 및 사무기기 순으로 높았고, 감응도 계수는 유기화학 기초제품, 석유제품, 사업서비스, 작물이 높게 나타났다.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의 28개 부문과 77개 부문의 산업별 입지계수와 산업연관표를 작성하여 지역경제 분석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산업별 입지계수는 종사자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며, 산업연관표 작성에 있어서는 입지계수법을 사용하였다.

충남은 농림수산물, 비금속 광물제품, 석유·석탄제품, 음식료품 순으로 특화되어 있으며, 금융 및 보험, 가구 및 기타 제조업, 인쇄·출판 및 복제 등은 입지계수가 낮게 나타났다. 77개 부문의 입지계수는 석탄제품,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축산, 수산물 등이 높게 나타났다.

28개 부문의 경우, 영향력 계수는 목재·종이제품, 전기·전자기기, 석유·석탄제품, 정밀기기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감응도 계수는 화학제품, 전기·전자기기,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77개 부문의 경우, 영향력 계수는 사무용품, 육류 및 낙농품, 컴퓨터 및 사무기기 순으로, 감응도 계수는 유기화학 기초제품, 석유제품, 사업서비스, 작물 등이 높게 나타났다.

충남의 산업연관표 작성에 있어서는 비조사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투입산출표의 정확성에 한계가 있으며, 77개 부문까지만 작성하여 이용상의 제약은 있으나, 1995년의 충남 산업연관표가 공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경제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보다 정확한 지역의 산업연관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역통계를 좀더 세분화해서 조사·공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열린충남**

참고문헌

- 강광하, 산업연관분석론, 비봉출판사, 1985.
- 국토개발연구원, 지역산업연관표 작성방안 연구, 1983.
-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해설 -원리와 이용-, 1987.
- Leontief, W., The Structure of American Economy, 1919~39,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1953.
- 金子敬生, 改訂新版 産業連關の理論と適用, 日本評論社, 1980.
- 金子敬生, 2段階 RAS=ラグラジユ未定係數法による投入係數の豫測, 早稻田政治經濟學 雜誌, 266-267 合併號, 1981.
- 농림부, 1995 농업총조사, 1996.
- 농림부, 1996 농림수산물통계연보, 1996.
- 통계청, 1995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전국편), 1996.
- 통계청, 1995년 시도별 지역내총생산, 1997.
- 통계청, 1996 지역통계연보, 1996.
- 충청남도, 1995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1996.
- 한국은행, 1995년 산업연관표 작성보고, 1998.

〈부표-1〉 77개 부문별 입지계수

	산업연관표	전국 부문별	충남 부문별	부문별	입지계수
	통합중분류(77개부문)	종사자수	종사자수	충남/전국 *100	
1	작물*	1,476,827	190,358	12.89	1,4971
2	축산**	155,923	20,735	13.30	3,4286
3	임산물***	1,392,667	4,979	0.36	0,0415
4	수산물****	104,480	12,357	11.83	3,0493
5	석탄	13,515	87	0.64	0,1925
6	원유 및 천연가스	0	0	-	-
7	금속광석	1,989	29	1.46	0,4360
8	비금속광물	24,219	2,014	8.32	2,4865
9	육류 및 낙농품	35,213	3,431	9.74	2,9135
10	수산 가공품	40,380	708	1.75	0,5243
11	정곡 및 제분	17,814	1,647	9.25	2,7646
12	제당 및 전분	4,299	223	5.19	1,5511
13	빵·과자 및 국수류	60,791	3,435	5.65	1,6896
14	조미료 및 유지	22,813	996	4.37	1,3055
15	과채가공품 및 기타식료품	97,245	7,924	8.15	2,4365
16	음료품	27,193	1,449	5.33	1,5933
17	배합사료	11,132	1,077	9.67	2,8929
18	담배	5,399	0	0.00	0,0000
19	섬유사*****	46,775	1,275	2.73	0,8151
20	섬유직물	195,181	5,318	2.72	0,8147
21	의류 및 장신품	259,715	3,333	1.28	0,3337
22	기타 섬유제품	111,086	3,919	3.53	1,0549
23	가죽제품 및 모피	98,708	1,302	1.32	0,3944
24	목재 및 나무제품	61,534	1,746	2.84	0,8484
25	펄프 및 종이	84,232	5,180	6.15	1,8388
26	인쇄·출판 및 복제	140,037	2,710	1.94	0,5787
27	석탄제품	178	178	100.00	29,9015

	산업연관표	전국 부문별	충남 부문별	부문별	입지계수
	통합중분류(77개부문)	종사자수	종사자수	충남/전국 *100	
28	석유제품	14,685	804	5.47	1,6371
29	유기화학 기초제품	21,023	174	0.83	0.2475
30	무기화학 기초제품	11,670	533	4.57	1,3657
31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22,733	3,206	14.10	4,2170
32	화학섬유	10,324	304	2.94	0.8805
33	비료 및 농약	10,339	959	9.28	2,7735
34	의약품 및 화장품	69,876	2,715	3.89	1,1618
35	기타 화학제품	42,135	2,391	5.67	1,6968
36	플라스틱제품	110,199	5,424	4.92	1,4718
37	고무제품	45,633	339	0.74	0.2221
38	유리제품	34,673	1,431	4.13	1,2341
39	도자기 및 점토제품	34,951	3,253	9.31	2,7830
40	시멘트 및 콘크리트제품	67,966	5,388	7.93	2,3704
41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28,014	3,221	11.50	3,4380
42	선철 및 강반성품	4,444	22	0.50	0.1480
43	철강 1차제품	87,910	3,070	3.49	1,0442
44	비철금속 및 1차제품	31,099	730	2.35	0.7019
45	금속제품	284,402	8,349	2.94	0.8778
46	일반목적용기계 및 장비	156,512	4,876	3.12	0.9316
47	특수목적용기계 및 장비	179,411	3,505	1.95	0.5842
48	전기기계 및 장치	156,047	7,189	4.61	1,3775
49	전자기기 부분품	159,807	8,262	5.17	1,5459
50	영상·음향 및 통신기기	134,740	3,142	2.33	0.6973
51	컴퓨터 및 사무기기	32,165	802	2.49	0.7456
52	가정용 전기기기	51,299	1,465	2.86	0.8539
53	정밀기기	61,239	1,424	2.33	0.6953
54	자동차 및 부분품	264,473	7,528	2.85	0.8511
55	선박	78,081	200	0.26	0.0766

	산업연관표	전국 부문별	충남 부문별	부문별	입지계수
	통합중분류(77개부문)	종사자수	종사자수	충남/전국 *100	
56	기타 수송장비	18,290	313	1.71	0.5117
57	가구	71,171	778	1.09	0.3269
58	기타 제조업제품	101,222	2,134	2.11	0.6304
59	전력	29,439	2,278	7.74	2.3138
60	도시가스 및 수도	19,223	314	1.63	0.4884
61	건축 및 건축보수	790,001	19,119	2.42	0.7237
62	토목건설	191,216	9,296	4.86	1.4537
63	도소매	252,953	71,881	2.85	0.8519
64	음식점 및 숙박	1,284,655	48,242	3.76	1.1229
65	운수 및 보관	725,067	18,867	2.60	0.7781
66	통신 및 방송	100,898	4,303	4.26	1.2752
67	금융 및 보험	708,239	23,339	3.30	0.9854
68	부동산	223,068	3,399	1.52	0.4556
69	사업서비스	511,151	8,906	1.74	0.5210
70	공공행정 및 국방	581,606	29,790	5.12	1.5316
71	교육 및 연구	829,053	35,682	4.30	1.2869
72	의료·보건 및 사회보장	346,148	9,542	2.76	0.8243
73	문화오락서비스	239,601	6,032	2.52	0.7528
74	기타 서비스	720,590	31,218	4.33	1.2954
75	사무용품	-	-	-	1.0000
76	가계의 소비지출	-	-	-	1.0000
77	분류 불명	-	-	-	1.0000

자료 : 1995년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보고서, 전국편과 충남편.

주 * : 경지면적(농업총조사)과 행정구역의 면적(지역통계연보)을 이용하였음(단위 ha).

주 ** : 축산농가수(농업총조사)와 가구수(지역통계연보)를 이용하였음.

주 *** : 임야면적(농림수산통계연보)과 행정구역의 면적(지역통계연보)을 이용하였음.

주 **** : 어업가구수(지역통계연보)와 가구수(지역통계연보)를 이용하였음.

주 ***** : ①9 섬유사와 ②0 섬유직물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보고서에서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산업연관표의 총산출액의 비율로 종업원수를 배분하였다. 배분비율은 섬유사가 19.332%, 섬유직물이 80.668%였다.

주 ***** : (75)사무용품, (76)가계의 소비지출, (77)분류 불명에 관한 자료는 구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지계수는 1로 하였다.

〈부표-2〉 28개 부문 충남 생산유발계수표

부	문	1	2	3	4	5	6
1	농림수산물	1.111281	0.016756	0.503248	0.074348	0.142977	0.055827
2	광산품	0.022527	1.033722	0.028476	0.033767	0.111104	0.070391
3	음식료품	0.139246	0.021405	1.231026	0.066942	0.050056	0.039931
4	섬유·가죽제품	0.005428	0.003902	0.005063	1.265832	0.013582	0.009169
5	목재·종이제품	0.026361	0.024930	0.053234	0.041658	1.686523	0.460256
6	인쇄·출판 및 복제	0.003568	0.004092	0.003969	0.004769	0.007622	1.007372
7	석유·석탄제품	0.036461	0.050456	0.040519	0.048660	0.174050	0.115347
8	화학제품	0.129370	0.063416	0.145795	0.328501	0.257521	0.188529
9	비금속 광물제품	0.006790	0.008071	0.015875	0.011440	0.022854	0.016413
10	제1차금속	0.003579	0.007603	0.004687	0.005716	0.014847	0.009182
11	금속제품	0.007386	0.008535	0.025439	0.012602	0.018684	0.013286
12	일반기계	0.011432	0.017474	0.020521	0.018835	0.035355	0.026177
13	전기·전자기기	0.014320	0.024747	0.018810	0.023260	0.043323	0.043470
14	정밀기기	0.023800	0.047034	0.035574	0.050990	0.074469	0.078454
15	수송장비	0.006203	0.012258	0.009271	0.013289	0.019408	0.020447
16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0.012697	0.015969	0.018411	0.023853	0.036331	0.031223
17	전력·가스 및 수도	0.012894	0.046766	0.024806	0.036552	0.074540	0.040906
18	건설	0.016725	0.028903	0.021969	0.027166	0.050598	0.050770
19	도소매	0.007941	0.011244	0.010275	0.012310	0.030237	0.028342
20	음식점 및 숙박	0.005524	0.010917	0.008257	0.011835	0.017284	0.018209
21	운수 및 보관	0.037453	0.035420	0.075632	0.059185	0.975382	0.653912
22	통신 및 방송	0.006227	0.008818	0.008058	0.009654	0.023711	0.022225
23	금융 및 보험	0.020537	0.074486	0.039508	0.058218	0.118720	0.065151
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036119	0.054069	0.045658	0.054141	0.178140	0.112863
25	공공행정 및 국방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26	교육 및 보건	0.011034	0.013878	0.016000	0.020729	0.031573	0.027134
27	사회 및 개인서비스	0.001861	0.003120	0.002850	0.003755	0.007041	0.010686
28	기타	0.023800	0.047034	0.035574	0.050990	0.074469	0.078454
	열 합 계	1.740562	1.695027	2.448504	2.368996	4.290403	3.294128
	영향력 계수	0.698792	0.680511	0.983013	0.951093	1.722490	1.322510

	부 문	7	8	9	10	11	12
1	농림수산물	0.022572	0.044301	0.021766	0.015400	0.017343	0.014476
2	광산물	0.570817	0.065149	0.233498	0.082261	0.023352	0.026092
3	음식료품	0.030919	0.039592	0.027265	0.020140	0.022192	0.017707
4	섬유·가죽제품	0.005486	0.012684	0.006616	0.005457	0.006208	0.005704
5	목재·종이제품	0.030442	0.054681	0.056389	0.031944	0.042241	0.037667
6	인쇄·출판 및 복제	0.007671	0.006317	0.006085	0.010186	0.009339	0.014546
7	석유·석탄제품	1.087414	0.123074	0.092430	0.065087	0.037924	0.030894
8	화학제품	0.094673	1.767057	0.132963	0.095577	0.121438	0.112745
9	비금속 광물제품	0.014442	0.025870	1.218688	0.039514	0.024627	0.033348
10	제1차금속	0.055292	0.011626	0.025465	1.011353	0.005426	0.004291
11	금속제품	0.017366	0.022788	0.020971	0.038304	1.109568	0.060949
12	일반기계	0.054669	0.036773	0.046753	0.632857	0.444368	1.207884
13	전기·전자기기	0.041991	0.030515	0.036665	0.075252	0.066015	0.114682
14	정밀기기	0.068116	0.055018	0.058563	0.043546	0.047623	0.037447
15	수송장비	0.017753	0.014339	0.015263	0.011349	0.012412	0.009760
16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0.025738	0.044460	0.028751	0.034331	0.028296	0.035631
17	전력·가스 및 수도	0.057055	0.061719	0.075092	0.056719	0.034761	0.023070
18	건설	0.049043	0.035640	0.042822	0.087890	0.077101	0.133942
19	도소매	0.044841	0.018649	0.030139	0.017244	0.012186	0.010497
20	음식점 및 숙박	0.015810	0.012770	0.013593	0.010107	0.011053	0.008692
21	운수 및 보관	0.043250	0.077688	0.080116	0.045385	0.060014	0.053515
22	통신 및 방송	0.035163	0.014624	0.023634	0.013522	0.009556	0.008232
23	금융 및 보험	0.090873	0.098301	0.119600	0.090337	0.055365	0.036744
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915225	0.136524	0.374382	0.131894	0.047062	0.041835
25	공공행정 및 국방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26	교육 및 보건	0.022368	0.038639	0.024987	0.029836	0.024591	0.030966
27	사회 및 개인서비스	0.006353	0.004670	0.005585	0.004002	0.003778	0.003429
28	기타	0.068116	0.055018	0.058563	0.043546	0.047623	0.037447
	열 합 계	3.493457	2.928485	2.876645	2.743040	2.407463	2.152190
	영향력 계수	1.402536	1.175714	1.154901	1.101263	0.966537	0.864051

	부 문	13	14	15	16	17	18
1	농림수산물	0,029245	0,030534	0,011941	0,048003	0,018277	0,017937
2	광산물	0,071585	0,053590	0,023615	0,060525	0,220286	0,057946
3	음식료품	0,031366	0,031290	0,013321	0,035303	0,025012	0,017915
4	섬유·가죽제품	0,010478	0,015943	0,008521	0,044999	0,005529	0,005144
5	목재·종이제품	0,097393	0,120994	0,032485	0,271691	0,027945	0,067600
6	인쇄·출판 및 복제	0,016440	0,074244	0,011191	0,007050	0,007953	0,006096
7	석유·석탄제품	0,063217	0,059214	0,027763	0,088027	0,143650	0,041235
8	화학제품	0,261608	0,222873	0,147626	0,280572	0,094070	0,107069
9	비금속 광물제품	0,165658	0,086181	0,031390	0,035474	0,016633	0,158318
10	제1차금속	0,010146	0,008064	0,003673	0,008376	0,068951	0,007110
11	금속제품	0,074185	0,049541	0,033574	0,039088	0,013412	0,075695
12	일반기계	0,200454	0,117839	0,120721	0,082903	0,064447	0,130065
13	전기·전자기기	1,641031	0,298376	0,104014	0,059662	0,052475	0,086081
14	정밀기기	0,064060	1,063630	0,026501	0,065505	0,054826	0,037052
15	수송장비	0,016695	0,016583	1,006907	0,017072	0,014289	0,009657
16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0,086705	0,178117	0,032402	1,033964	0,040006	0,024711
17	전력·가스 및 수도	0,044770	0,041799	0,020755	0,042013	1,183483	0,023710
18	건설	0,748685	0,348484	0,121482	0,069681	0,061288	1,100538
19	도소매	0,024120	0,020738	0,009252	0,018476	0,029584	0,013181
20	음식점 및 숙박	0,014868	0,014769	0,006151	0,015204	0,012725	0,008600
21	운수 및 보관	0,138372	0,171904	0,046153	0,386006	0,039702	0,096043
22	통신 및 방송	0,018914	0,016263	0,007256	0,014488	0,023199	0,010337
23	금융 및 보험	0,071306	0,066574	0,033057	0,066915	0,292237	0,037764
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114777	0,085924	0,037863	0,097044	0,353197	0,092909
25	공공행정 및 국방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26	교육 및 보건	0,075352	0,154794	0,028159	0,029517	0,034768	0,021476
27	사회 및 개인서비스	0,005341	0,005665	0,004875	0,004754	0,004830	0,003318
28	기타	0,064060	0,063630	0,026501	0,065505	0,054826	0,037052
	열 합 계	4,160829	3,417558	1,977150	2,987816	2,957600	2,294558
	영향력 계수	1,670469	1,372064	0,793776	1,199534	1,187403	0,921208

	부 문	19	20	21	22	23	24
1	농림수산물	0,016566	0,014798	0,010497	0,013163	0,015408	0,011559
2	광산물	0,021952	0,047306	0,074799	0,013510	0,009797	0,015906
3	음식료품	0,024530	0,016102	0,014863	0,019603	0,024037	0,016702
4	섬유·가죽제품	0,003669	0,007440	0,003403	0,003471	0,003901	0,002794
5	목재·종이제품	0,025546	0,037705	0,013699	0,016640	0,014035	0,014108
6	인쇄·출판 및 복제	0,004873	0,003349	0,003462	0,004720	0,004373	0,004327
7	석유·석탄제품	0,033644	0,071224	0,137695	0,015526	0,012563	0,018154
8	화학제품	0,035637	0,064402	0,058346	0,035308	0,026905	0,033846
9	비금속 광물제품	0,008606	0,014699	0,006780	0,013332	0,007625	0,008411
10	제1차금속	0,005119	0,009241	0,008285	0,004849	0,002241	0,058299
11	금속제품	0,006433	0,012019	0,007251	0,007770	0,005252	0,006283
12	일반기계	0,013999	0,019703	0,014638	0,018150	0,011508	0,044307
13	전기·전자기기	0,026871	0,035945	0,021804	0,055105	0,025528	0,026252
14	정밀기기	0,055241	0,034075	0,032667	0,044080	0,054617	0,037220
15	수송장비	0,014397	0,008881	0,008514	0,011488	0,014235	0,009700
16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0,018957	0,023244	0,016788	0,020406	0,016600	0,013596
17	전력·가스 및 수도	0,021376	0,061365	0,017562	0,020880	0,013222	0,023144
18	건설	0,031383	0,041981	0,025466	0,064359	0,029815	0,030661
19	도소매	1,077305	0,026571	0,014221	0,050843	0,028813	0,039948
20	음식점 및 숙박	0,012822	1,007909	0,007582	0,010231	0,012677	0,008639
21	운수 및 보관	0,036294	0,053569	1,019463	0,023641	0,019941	0,020045
22	통신 및 방송	0,060621	0,020836	0,011152	1,039870	0,022595	0,031326
23	금융 및 보험	0,034046	0,097737	0,027971	0,033256	1,021059	0,036861
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035197	0,075849	0,119930	0,021661	0,015708	1,025503
25	공공행정 및 국방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26	교육 및 보건	0,016474	0,020201	0,014590	0,017734	0,014426	0,011815
27	사회 및 개인서비스	0,004102	0,004653	0,003801	0,009966	0,004732	0,003823
28	기타	0,055241	0,034075	0,032667	0,044080	0,054617	0,037220
	열 합 계	1,700900	1,864878	1,727899	1,633642	1,486229	1,590451
	영향력 계수	0,682869	0,748702	0,693708	0,655867	0,596684	0,638526

	부	문	25	26	27	28	행합계	감응도 계수
1	농림수산물		0.027371	0.021804	0.032778	0.275360	2.635535	1.058102
2	광산품		0.027212	0.021199	0.024828	0.049972	3.121185	1.253078
3	음식료품		0.040023	0.027705	0.050365	0.454928	2.549487	1.023556
4	섬유·가죽제품		0.008218	0.005540	0.010823	0.038670	1.523674	0.611717
5	목재·종이제품		0.030267	0.027001	0.030823	0.115388	3.489644	1.401005
6	인쇄·출판 및 복제		0.012573	0.012649	0.009664	0.010892	1.279393	0.513645
7	석유·석탄제품		0.036175	0.028751	0.032900	0.069633	2.781687	1.116778
8	화학제품		0.065734	0.145918	0.102049	0.220476	5.340025	2.143887
9	비금속 광물제품		0.016235	0.013133	0.017066	0.034265	2.071738	0.831751
10	제1차금속		0.037615	0.005202	0.006242	0.007922	1.410402	0.566241
11	금속제품		0.013803	0.008626	0.013762	0.033438	1.756010	0.704994
12	일반기계		0.043031	0.020016	0.026121	0.060008	3.541007	1.421626
13	전기·전자기기		0.051375	0.037649	0.053614	0.065978	3.174810	1.274607
14	정밀기기		0.088607	0.057894	0.110588	0.046763	2.493962	1.001264
15	수송장비		0.023093	0.015088	0.028822	0.272810	1.649983	0.662427
16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0.028470	0.036121	0.030899	0.067417	2.004092	0.804593
17	전력·가스 및 수도		0.029719	0.024033	0.031605	0.041771	2.186089	0.877660
18	건설		0.060003	0.043971	0.062618	0.077059	3.540041	1.421239
19	도소매		0.026726	0.011319	0.022983	0.041521	1.689505	0.678294
20	음식점 및 숙박		0.020566	0.013437	0.025668	0.242957	1.578855	0.633871
21	운수 및 보관		0.043003	0.038361	0.043791	0.163938	4.537180	1.821565
22	통신 및 방송		0.020958	0.008876	0.018023	0.032560	1.540699	0.618552
23	금융 및 보험		0.047334	0.038277	0.050338	0.066529	2.889104	1.159903
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043631	0.033989	0.039809	0.080123	4.401024	1.766902
25	공공행정 및 국방		1.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1.000000	0.401475
26	교육 및 보건		0.024742	1.031391	0.026853	0.058590	1.872616	0.751809
27	사회 및 개인서비스		0.005142	0.003905	1.039295	0.025758	1.191090	0.478193
28	기타		0.088607	0.057894	0.110588	1.046763	2.493962	1.001264
	열 합 계		1.960234	1.789752	2.052914	3.701490		
	영향력 계수		0.786985	0.718541	0.824194	1.486056		

〈부표-3〉 77개 부문 충남 영향력 계수 및 감응도 계수

	통합중분류(77개부문)	열 합 계	영향력 계수	행 합 계	감응도 계수
1	작물	1,457,001	0.596623	5,726,724	2,345,019
2	축산	2,856,594	1.169738	2,276,215	0.932080
3	임산물	1,304,241	0.534069	1,809,126	0.740813
4	수산물	1,949,638	0.798351	1,660,498	0.679952
5	석탄	2,151,776	0.881124	2,364,965	0.968422
6	원유 및 천연가스	1,000,000	0.409487	4,528,934	1.854539
7	금속광석	1,766,389	0.723313	1,729,205	0.708087
8	비금속광물	1,669,666	0.683706	2,063,028	0.844783
9	육류 및 낙농품	3,221,015	1.318963	1,861,008	0.762058
10	수산 가공품	2,620,068	1.072883	1,136,386	0.465335
11	정곡 및 제분	2,404,663	0.984678	1,659,303	0.679463
12	제당 및 전분	2,845,401	1.165155	2,171,478	0.889192
13	빵·과자 및 기타식료품	2,696,900	1.104345	1,233,119	0.504946
14	조미료 및 유지	2,606,676	1.067400	1,727,769	0.707499
15	과채가공품 및 기타식료품	2,350,228	0.962388	1,386,977	0.567949
16	음료품	2,162,021	0.885319	1,718,262	0.703606
17	배합사료	2,490,393	1.019783	2,205,649	0.903184
18	담배	1,434,261	0.587311	1,050,219	0.430051
19	섬유사	2,930,981	1.200198	1,737,971	0.711676
20	섬유직물	2,953,085	1.209249	2,191,280	0.897300
21	의류 및 장신품	2,771,813	1.135021	1,233,994	0.505304
22	기타 섬유제품	2,810,601	1.150905	1,374,874	0.562993
23	가죽제품 및 모피	2,953,580	1.209452	1,499,734	0.614122
24	목재 및 나무제품	2,439,094	0.998777	2,278,241	0.932910
25	펄프 및 종이	2,800,387	1.146722	5,315,702	2.176711

	통합중분류(77개부문)	열 합 계	영향력 계수	행 합 계	감응도 계수
26	인쇄·출판 및 복제	2,494,117	1,021,308	2,218,900	0,908,610
27	석탄제품	2,790,850	1,142,817	1,609,956	0,659,256
28	석유제품	1,767,857	0,723,914	5,937,383	2,431,281
29	유기화학기초제품	2,688,503	1,100,907	7,481,262	3,063,479
30	무기화학기초제품	2,275,045	0,931,601	2,542,165	1,040,983
31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2,960,616	1,212,334	2,854,442	1,168,857
32	화학섬유	3,070,223	1,257,216	1,827,285	0,748,249
33	비료 및 농약	2,970,162	1,216,242	1,946,184	0,796,937
34	의약품 및 화장품	2,372,836	0,971,645	1,745,359	0,714,702
35	기타 화학제품	2,804,155	1,148,265	3,103,065	1,270,665
36	플라스틱제품	2,896,749	1,186,181	3,079,677	1,261,087
37	고무제품	2,578,506	1,055,864	1,482,195	0,606,940
38	유리제품	2,207,486	0,903,936	1,698,857	0,695,660
39	도자기 및 점토제품	2,155,762	0,882,756	1,420,930	0,581,852
40	시멘트 및 콘크리트제품	2,450,397	1,003,406	1,616,360	0,661,878
41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2,302,086	0,942,674	1,357,307	0,555,800
42	선철 및 강반성품	3,432,872	1,405,716	4,890,157	2,002,455
43	철강 1차제품	3,360,070	1,375,905	4,311,277	1,765,411
44	비철금속과 및 1차제품	3,101,518	1,270,031	4,611,558	1,888,372
45	금속제품	2,948,719	1,207,462	2,728,583	1,117,319
46	일반목적용기계 및 장비	2,740,895	1,122,361	2,833,450	1,160,261
47	특수목적용기계 및 장비	2,848,501	1,166,424	2,353,385	0,963,681
48	전기기계 및 장치	2,744,259	1,123,738	2,697,375	1,104,540
49	전자기기 부분품	2,289,494	0,937,518	3,377,329	1,382,972
50	영상·음향 및 통신기기	2,789,775	1,142,376	1,287,650	0,527,276
51	컴퓨터 및 사무기기	3,065,893	1,255,443	1,418,889	0,581,016

	통합중분류(77개부문)	열 합 계	영향력 계수	행 합 계	감응도 계수
52	가정용 전기기기	2,747,360	1,125,008	1,202,574	0.492438
53	정밀기기	2,485,459	1,017,763	1,618,673	0.662825
54	자동차 및 부분품	2,926,914	1,198,533	2,267,873	0.928664
55	선박	2,790,725	1,142,765	1,114,428	0.456344
56	기타 수송장비	2,948,422	1,207,340	1,408,505	0.576764
57	가구	2,545,995	1,042,551	1,089,100	0.445972
58	기타 제조업제품	2,573,550	1,053,835	1,520,993	0.622827
59	전력	1,969,760	806,591	3,973,713	1.627183
60	도시가스 및 수도	2,050,007	839,451	1,716,253	0.702783
61	건축 및 건축보수	2,445,596	1,001,439	1,772,634	0.725871
62	토목건설	2,452,538	1,004,282	1,031,646	0.422445
63	도소매	1,654,647	677,556	4,685,528	1.918662
64	음식점 및 숙박	1,886,502	772,498	2,072,550	0.848682
65	운수 및 보관	2,013,593	824,540	4,202,881	1.721025
66	통신 및 방송	1,433,693	587,078	2,308,489	0.945296
67	금융 및 보험	1,573,470	644,315	5,630,330	2.305546
68	부동산	1,504,033	615,882	3,165,554	1.296253
69	사업서비스	1,958,456	801,962	7,007,451	2.869460
70	공공행정 및 국방	2,013,790	824,620	1,000,000	0.409487
71	교육 및 연구	1,440,816	589,995	2,563,339	1.049654
72	의료, 보건 및 사회보장	1,923,812	787,776	1,293,712	0.529758
73	문화오락서비스	1,971,992	807,505	1,232,981	0.504889
74	기타 서비스	1,892,598	774,994	1,191,824	0.488036
75	사무용품	3,543,817	1,451,147	1,335,605	0.546913
76	가계외 소비지출	3,154,129	1,291,575	4,089,812	1.674725
77	분류 불명	3,384,710	1,385,995	1,172,111	0.479964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과 과제

- 백제문화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



서정석

충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부 연구원

1. 머리말

최근 정부는 민족문화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민족문화의 개발과 전승을 위한 여러 가지 획기적인 시책을 발표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주목을 끄는 것은 역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아닌가 한다.¹⁾ 백제문화는 신라문화와 더불어 우리의 민족문화를 형성한 중요한 근간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왔고, 그에 따라 지역경제 역시 신라문화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시책은 우리의 민족문화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또 균형 잡힌 국토

개발을 꾀하기 위해서 시의 적절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충청도민은 물론이고 학계에서도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즉, 한마디로 백제문화권 개발이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크게 보아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²⁾ 하나는 백제문화의 내용을 입증하는 당시의 문화유적을 잘 보존함으로써 민족문화 창달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백제문화의 보존과 정비가 단순히 문화개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광 수요에 의한 경제성의 증대와 지역개발로 연결되리

1) 대통령공고 제134호(93. 6. 11) 및 백제문화권종합개발계획 확정 공고(94. 10. 12), 투자계획 5개 분야 55개 사업, 사업비 1조 5,065억원, 2001년 목표.

2) 윤용혁, "백제문화권 개발과 충남 발전", 열린충남, 창간호, 1995, 69쪽.

라는 기대감이다. 백제문화의 내용을 입증하고 당시의 문화내용을 잘 보존하는 일은 백제문화에 대한 학술적 조사와 연구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빈약한 연구자료에 허덕여 왔던 학계에서는 이번 개발사업을 계기로 백제문화의 실체를 밝혀 줄 많은 자료들이 속속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기대감은 비단 백제사를 전공으로 하는 학자들뿐만 아니라 고구려사나 신라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백제사를 체계적으로 복원함으로써 기형적으로 성장해 왔던 우리의 고대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학계의 공통된 염원이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연결 도로망이 확충된다는지, 도시 경관이 정비된다는지 하는 여러 가지 관련 부대사업이 뒤따르게 될 터인데, 이러한 관련 사업으로 낙후되었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지역개발을 거둘 수 있으리라는 것이 충남도민들의 한결같은 기대감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에 전혀 우려되는 바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산의 대부분이 지방비와 민자로 계획되어 있고, 백제문화의 내용을 입증하고 당시의 문화내용을 보존할 자료들이 아직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1998년에 개발사업의 계획 내용이 변경되면서 국비 지원도 증액되었고, 전체 사업 기간과 규모

가 증대되기는 하였지만³⁾ 여전히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핵심이라 할 당시 문화내용의 입증자료와 복원자료는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개발사업의 핵심인 백제문화의 내용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이미 여러 사람들이 지적하였듯이 백제가 남긴 자료가 워낙 적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백제가 패전국이기 때문에 그 문화 내용이 후대에까지 효과적으로 전해지지 못한 데에 원인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적은 자료라도 철저한 조사와 고증을 거쳐 복원자료로 활용하고, 또한 백제는 백제 나름의 문화배경과 역사적 배경이 있었던 만큼 그러한 역사·문화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적절한 개발의 방향을 정한다면 자료 부족이라는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개발사업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백제문화의 입증자료와 복원자료의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개선점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충남지역의 백제유적 조사 현황

충남지역은 백제 중기와 후기의 도읍지가 있던 곳이다. 따라서 당시의 문화유적이 도내 곳곳에 산재되어 있다. 이러한 유적은 특히 당시의 도읍이 있었던 공주와 부여지역에 집중되어 있

3) 충청남도·전라북도·충남발전연구원,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 변경계획, 1998.

는데, 이러한 제유적을 정비·복원하는 것이 백제 문화권 개발사업의 핵심 내용이다. 특히, 이번에는 부여에 따로 백제역사재현단지를 조성하여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이 백제 문화를 좀더 심도 있게 이해하고,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에 새롭게 들어설 백제역사촌은 7개의 기능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⁴⁾

- 개 국 촌 : 백제 개국 초의 생활상 재현
- 왕 궁 촌 : 백제의 왕도 입지, 궁궐 등의 모습을 재현
- 전통민속촌 : 백제마을, 충남의 전통마을, 그리고 다른 나라의 마을을 비교마을로 복원
- 산업교역촌 : 전통농업, 공업, 상업의 발전과정 재현과 특산물 판매장
- 군사통신촌 : 백제시대의 무기와 축성 등
- 풍속종교촌 : 백제이래 충남의 전통민속행사를 통한 볼거리 제공
- 장제묘지촌 : 백제의 장제와 묘제 재현

이러한 백제 역사촌의 재현은 백제문화권의 고질적인 약점이었던 볼거리를 풍성하게 하고, 백제사와 백제문화의 연구에 획기적인转机(轉機)를 마련할 것이라는 점에서 자못 그 의의가 큰 것이 사실이다. 계획대로만 된다면 분명히 백제문화권은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는 관광지로 탈바꿈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야기

로만 들던 백제문화의 실상을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러한 기대감 못지 않게 우려되는 점도 한 둘이 아님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역사촌을 효과적으로 장식할 자료들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통민속촌이나 산업교역촌의 경우에는 아예 백제시대라는 시대개념에 구애받지 않고 구성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거니와 이 외에도 개국촌이나 왕궁촌, 군사통신촌 등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러한 역사촌이 효과적으로 재현될 만큼 자료가 축적되어 있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조만간 그러한 자료들이 새롭게 확보될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사실, 민족문화유산의 보존과 정비를 통한 종합개발 사업은 신라의 도움이었던 경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72년부터 대략 10년간의 사업으로 경주는 문화관광도시로의 면모를 나름대로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공주·부여 등의 백제문화권 지역은 남아 있는 문화재 자원이 상대적으로 빈약하고, 게다가 신라와 달리 백제는 천도를 거듭함에 따라 관련 유적이 서울·공주·부여·익산 등지에 흩어져 있는 등의 몇 가지 이유로 개발의 우선 순위에서 뒤쳐지게 되었으며, 그 결과 백제 유적에 대한 조사는 현재까지도 절대 부족한 상태로 남아 있다. 최근 들어 과거에는 상상할 수

4) 충청남도,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 기본설계 보고서(백제역사촌), 1993, 114~120쪽.

〈표-1〉 충남지역 소재 국가사적 현황표

연번	지정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지 정 일
1	4호	부여 성흥산성	부여군 임천면 군사리 산 1-1	63. 1. 21.
2	5호	부여 부소산성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산 4	"
3	12호	공주 공산성	공주시 산성동 2	"
4	13호	공주 송산리고분군	공주시 금성동 산 5	"
5	14호	부여 능산리고분군	부여읍 능산리 산 15	"
6	34호	부여 청마산성	부여읍 능산리 산 1-1	"
7	44호	부여 군수리 사지	부여읍 군수리 19	"
8	58호	부여 나성	부여읍 염창리 565	"
9	59호	부여 청산성	부여읍 쌍북리 6	"
10	60호	건지산성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 산 3	"
11	89호	부여 석성산성	부여군 석성면 현내리 83	"
12	90호	대흥 임존성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 산 8	"
13	99호	부여 쌍북리 요지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산 30-14	"
14	105호	칠백의총	금산군 금성면 의총리 52-1	"
15	109호	아산 맵씨행단	아산시 배방면 중리	"
16	112호	이 충무공 묘	아산시 음봉면 삼거리 산 2-1	"
17	116호	해미읍성	서산시 해미면 오학리 16	"
18	135호	궁남지	부여읍 동남리 117	64. 6. 10.
19	155호	이 충무공 유허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184 - 1	67. 3. 18.
20	156호	증산성	부여군 규암면 신성리 산 88	67. 3. 25.
21	229호	매현 윤봉길 의사 사적지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산 40-1	72. 10. 14.
22	230호	유관순 열사 유적	천안시 병천면 탑원리, 용두리	72. 10. 14.
23	231호	홍주성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13-1	72. 10. 14.
24	249호	부여 송국리 선사취락지	부여군 초촌면 송국리 산 24-1	76. 12. 31.
25	301호	부여 정림사지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254	83. 3. 26.
26	307호	성주사지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72	84. 8. 13.
27	316호	서산 보원사지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105	87. 7. 18.

연번	지정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지 정 일
28	321호	죽도 앞바다, 고려청자 매장 해역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죽도 앞바다	87. 9. 18.
29	333호	공주 학봉리 도요지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212	90. 8. 16.
30	334호	공주 석장리 구석기유적	공주시 장기면 장암리 98	90. 10. 26.
31	373호	부여 정암리 와요지	부여군 장암면 정암리 41	92. 5. 9.
32	383호	논산 돈암서원	논산시 연산면 임리 74	93. 10. 18.
33	387호	우금치 전적지	공주시 금학동 산 78-1	94. 3. 17.
34	393호	노성산성	논산시 노성면 송당리 산 1-1	95. 8. 2.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유적이 조사되고 있지만 역사촌 재현을 위해서는 여전히 자료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발굴조사가 양적으로 크게 팽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부족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발굴조사 대부분이 백제사나 백제문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학술발굴이 아니라 도로건설이나 공장 설립에 따르는 구제 발굴이었기 때문이다. 일정한 목적 하에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을 미리 정해 놓고 시작하는 발굴 작업과 곧 파괴될 유적의 현황파악을 위해 진행하는 발굴조사는 당연히 그 결과에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발굴조사가 대부분 구제발굴이었다는 사실은 충남 도내에 남아 있는 사적지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를 보면 한층 명확해진

다. 1998년 1월 현재 충남 도내에는 34개소의 국가 사적지가 있다.⁵⁾

그 중 백제시대의 유적지는 모두 18개소에 이르고 있다. 사적지란 국가에서 인정하는 중요 기념물이다. 역사적으로나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어서 정해진 것이 사적이다.⁶⁾ 그러나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백제 사적지에 대한 조사는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다. 대부분의 사적지는 지표조사조차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그 때문에 유적의 축조시기에 이론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다.⁷⁾ 백제유적이라서 사적으로 지정되었지만 실제로는 백제유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사실이 이렇다 보니 사적지로 지정된 문화재도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백제문화의 내용을 입증할 발굴조사가

5) 충청남도, 문화재목록, 1998.

6) 문화재보호법 제6조.

부진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조사의 부진으로 말미암아 정작 사적으로 지정된 곳의 문화내용은 참고할 수 없고, 기타 주변지역의 문화내용을 토대로 역사재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충남 도내에 자리하고 있는 백제 사적지에 대한 조사 내용이 <표-2>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백제유적에 대한 조사는 대부분이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조사라는 것은 당시의 문화내용을 입증할 실질적인 자료를 확인하는 것인 동시에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조사를 하더라도 조사자의 지식의 정도, 목적 등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충남지역의 백제유적은 이미 일제시대부터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당시의 조사는 것은 일제 식민통치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거나 일본문화와의 관계만이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백제문화의 후진성 및 타율성, 그리고 일본문화와의 관계 등만 강조하고 유적의 특성을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다. 예를 들어 능산리고분군과 송산리고분군을 조사하고 이들이 왕릉임을 밝히는 정도에 머물러 있던 것이 사실이다.

정립사지 5층석탑 역시 소정방이 백제를 정벌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웠다고 보고, 이름도 평제탑(平濟塔)이라고 불렀다. 식민사관에 의해 부정적인 역사적 사실만을 강조하는 것이 당시의 조사목적이요, 결과였던 것이다. 백제문화의 실상을 종합적으로 보고자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의 범위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고, 조사 내용도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면서도 이끌어 내는 결론은 항상 같은 것이었다.

해방 후 이러한 역사 인식은 어느 정도 불식되었지만 몇몇 병폐는 한동안 지속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조사지역이 공주나 부여 등 특정지역에 치우쳐 있는 것이 대표적인 문제점이다. 물론, 이 두 지역에 많은 백제유적이 몰려 있고, 따라서 한정된 예산과 시간으로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 두 지역에 집중적인 조사를 벌일 필요는 있지만 조사지역의 편중성은 백제문화의 다양한 모습을 외면한 채 왕을 중심으로 한 당시 특정 계층의 문화만을 확인하는데 그칠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런가 하면 해방 후 초기에는 일본인들의 그릇된 백제사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우리 역시 유적보다는 유물에 대한 조사와 연구에 더 많은

7) 예를 들어 대전에 있는 유적이기는 하지만 계족산성은 그동안 백제산성으로 알려져 1991년에 사적 355호로 지정되었지만 최근 들어 발굴조사를 진행해 본 결과 신라산성으로 판명되었고(충남대학교박물관, 계족산성발굴조사개략보고, 1998), 서천의 건지산성 역시 백제 주류성(周留城)으로 지정되어 사적 60호로 지정·보호받아 왔지만 최근 조사에 의하면 백제산성이 아 아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건지산성, 1998.)

〈표-2〉 충남지역 소재 백제 사적의 조사 현황

연번	지정번호	유적명	소재지	발굴조사 현황
1	4호	부여 성흥산성	부여군 임천면 군사리 산 1-1	동문지, 남문지만 부분적으로 발굴
2	5호	부여 부소산성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산4	연차적인 조사중
3	12호	공주 공산성	공주시 산성동 2	1차 발굴조사 완료, 성안마을 정비시작
4	13호	공주 송산리고분군	공주시 금성동 산 5	발굴조사 완료 정비·복원완료
5	14호	부여 능산리고분군	부여읍 능산리 산 15	발굴조사 완료 정비·복원완료
6	34호	부여 청마산성	부여읍 능산리 산 1-1	조사된 바 없음, 현황파악 안됨
7	44호	부여 군수리사지	부여읍 군수리 19	부분조사(일제시)
8	58호	부여 나성	부여읍 염창리, 가탑리 일대	부분조사, 현황파악 안됨
9	59호	부여 청산성	부여읍 쌍북리 6	조사된 바 없음, 현황파악 안됨
10	60호	건지산성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 산 3	지표조사만 실시, 축성시기 파악 안됨 주류성 여부 미확인
11	89호	부여 석성산성	부여군 석성면 현내리 83	조사된 바 없음, 현황파악 안됨
12	90호	대흥 임존성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 산 8	조사된 바 없음, 현황파악 안됨 임존성 여부 미확인
13	99호	부여 쌍북리요지	부여읍 쌍북리 산 30-14	조사 완료
14	135호	궁남지	부여읍 동남리 117	부분발굴, 규모 미확인
15	156호	증산성	부여군 규암면 신성리 산 88	조사된바 없음, 현황파악 안됨
16	301호	부여 정림사지	부여읍 동남리 254	조사 완료, 가람배치 확인
17	373호	부여 정암리와요지	부여군 규암면 정암리 41	조사 완료
18	393호	노성산성	논산시 노성면 송당리 산 1-1	지표조사만 실시, 축성시기 미확인

관심을 쏟아 왔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유적의 구조와 규모, 원래의 형태, 복원 방법 등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백제문화권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시키

고 있다. 얼마 안 되는 자료마저 복원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된 것이다.

1971년에 있었던 무령왕릉의 발굴은 백제사 연구뿐만 아니라 백제유적 조사에 중요한 기폭제가 되었다. 확실히 1970년대 이후의 조사는 그

이전의 조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조사빈도가 많아지고, 조사기간 또한 길어졌다. 특히, 1차 백제문화권 개발계획이 발표된 1978년 이후 매년 정기적인 발굴조사가 실시되어 온 것은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을 통해서 볼 때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이때의 조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쉬움을 남기기도 하였다. 실질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백제유적이 도내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가 먼저 밝혀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가시적인 효과를 의식한 나머지 이러한 기초자료를 채기는 일에는 다소 미흡했기 때문이다. 특히 1980년대 이후 미증유의 국토개발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순식간에 많은 유적들이 기초조사도 거치지 않은 채 사라진 것을 생각하면 1970년대의 기초조사 미비는 상당한 아쉬움으로 다가온다. 현재까지도 충남 도내에 남아 있는 백제유적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거니와 처음부터 계획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 여기 저기서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중 하나가 조사에 있어서의 일관성 부재이다. 이러한 사실은 조사의 문제점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조사의 문제점

백제유적에 대한 조사는 일제의 한반도 식민통치와 더불어 시작되었다. 그런 점에서 약 1세

기 동안 조사가 진행되어 온 셈이다.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짐으로써 문헌기록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많은 새로운 사실들이 확인되었고, 그에 따라 백제사 연구의 폭과 깊이가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와 짝하여 몇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점도 남겨 놓았다. 이러한 문제점은 결국 앞으로 백제유적의 조사와 연구를 계속해 나가고,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들인 셈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백제유적의 조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유적을 어떻게 조사해서 어떻게 복원·정비하겠다는 기본 계획이 없었다는 점이다. 사실, 이러한 종합계획안을 누가 만들어야 하는지조차 분명하지 않은 것이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현재의 실정이다. 행정당국은 당연히 백제문화의 내용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태이고, 이러한 지식을 갖고 있는 학계에서는 행정당국의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설립 취지로 본다면 95년 1월에 설립된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정원이 28명인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는 관리과와 개발과만 있을 뿐 백제문화권개발을 연구하고 기획할 부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유적의 현황 파악에서부터 발굴조사, 정비·복원에 이르기까지 개발사업을 위한 일련의 작업들

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산성을 조사할 때에는 먼저 지표조사를 통해 성의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고, 그것을 토대로 발굴조사에 대한 청사진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발굴조사 먼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상태임도 불구하고 성벽의 전체 둘레와 현황 등과 같이 가장 기초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경우도 많다. 사적 4호로 지정된 성흥산성은 이미 문지(門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⁸⁾ 아직까지 성내의 현황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확인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⁹⁾ 사적

58호로 지정된 부여 나성 역시 여러 차례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정확한 나성의 규모와 통과지점, 그리고 현황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웅진시대와 사비시대를 대표하는 공산성과 부소산성 역시 그 위치나 규모로 보아 도성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유적임에 틀림없고, 그에 따라 10여 년에 걸쳐 장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초축 시기가 언제인가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¹⁰⁾

그런데, 어찌 보면 공산성이나 부소산성은 그 래도 나은 편에 속할 수도 있다. 나머지 유적들은 아예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소개한 대로 충남지역에는 많은 수의

8) 안승주·서정석, 성흥산성 문지발굴조사보고서, 충남발전연구원, 1996.

9) 유원제, “백제 가림성 연구”, 백제논총 제5집,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96.

10) 공산성에 관한 보고서와 논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① 안승주, 공산성, 공주사대 백제문화연구소, 1982.
- ② 안승주·이남석, 공산성 백제 추정왕궁지 발굴조사보고서, 공주사대 박물관, 1987.
- ③ 안승주·이남석, 공산성 성지발굴조사보고서, 공주대학교 박물관, 1990.
- ④ 안승주·이남석, 공산성 건물지, 공주대학교 박물관, 1992.
- ⑤ 안승주, “웅진성에 대하여”, 백제연구 19집, 충남대 백제연구소, 1988.
- ⑥ 성주탁, “백제 웅진성연구”, 백제연구 11집, 충남대 백제연구소, 1980

부소산성에 대한 보고서와 논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① 부여문화재연구소, 부소산성 발굴조사 중간보고, 1995.
- ② 문화재연구소, 부소산성발굴조사보고서, 1996.
- ③ 부여문화재연구소, 부소산성발굴조사 중간보고 Ⅱ, 1997.
- ④ 성주탁, “사비도성연구”, 백제연구 13집, 충남대 백제연구소, 1982
- ⑤ 윤무병, “백제왕도사비성연구”, 학술원논문집 33집(인문사회과학 편), 1994.
- ⑥ 김정보, “부소산성의 축조시기에 대한 고찰”, 역사고고학지, 1998.
- ⑦ 김용민, “부소산성의 성벽 축조기법 및 변천에 대한 고찰”, 한국상고사학보 26호, 1997.

백제유적이 남아 있다. 사적지만도 18개소에 이른다. 이들이 사적으로 지정된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름대로의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적에 대해서는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유적의 성격을 공산성이나 부소산성만큼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는 사적으로 지정된 것이 실제로 백제유적인지의 여부에 의심이 가는 것도 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유적이건, 아니면 지방 기념물로 지정된 유적이건 간에 유적에 대한 지표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아 기본성격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적의 복원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대부분의 행정이 그러하듯이 유적의 의미나 중요도와는 무관하게 차창을 통해 바라보이는 지점을 중심으로 복원·정비작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물론, 일부 남아 있는 것을 참고로 붕괴된 부분을 복원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 정확한 유적의 성격이나 내용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복원작업은 내용이 무엇인지 모른 채 포장한 선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포장 작업은 자칫 유적의 성격을 왜곡하기 쉽고, 나아가 복원이 아닌 또 다른 문화유적의 파괴를 초래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 그런 점에서 현재 진행중인 복원작업은 재고되어야 한다.

이처럼 현재 진행중인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개발사업의 목표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정 등이 담긴 청사진 - 기본계획 - 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청사진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백제유적의 조사와 정비, 그리고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현재와 같이 부족한 자료를 바탕으로 포장하기에만 급급해서는 자칫 국적 없는 개발사업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을 통해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조사 지역이 공주와 부여 일대로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지금까지의 조사가 이렇게 된 데에는 나름의 이유도 있다. 도내에 남아 있는 국가지정 문화재 184점 중 절반에 가까운 74점이 이 두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비용을 바탕으로 백제문화권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았던 것이다. 엄격히 말하면 백제문화권개발이라는 것은 충남지역의 발전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문화유산의 개발이라는 국가 정책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몇 가지 이해의 측면을 생각한다면 해도 사실이 이렇게 된 데에는 실질적인 개발을 위한 준비자료가 소홀했던 것이 직접적인 원인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특정지구로 공주와 부여가 지정되어 있

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 건설”을 위해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권개발사업의 경우 백제권에 공주·부여와 함께 청양·예산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¹¹⁾ 청양·예산 등지에서는 ‘백제권’이라는 명칭에 걸맞는 가시적인 조치들이 전혀 취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 아는 것처럼 예산지역에는 백제 부흥운동의 상징적인 산물인 임존성이 남아 있고, 사면석불(四面石佛)도 남아 있다. 그러나 청양지역에는 이렇다 할 백제유적이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사실이 이렇다 보니 ‘백제권’이라고 이 지역을 구분한 기준에 의문이 가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두 지역에 백제유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예산에는 앞서 지적한 임존성과 사면석불이 있다. 다만, 이 두 유적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것이 실제로 백제유적인지, 그리고 주변에 관련시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이 밝혀지지 않아 이 지역이 백제권이라는 것을 주저케 하는 것 뿐이다. 청양지역 역시 실제로 사적으로 지정된 곳은 한 군데도 없지만 계봉산성, 백곡리산성, 우산성 등의 산성 유적과 강정리고분군, 화암리고분군, 대박리고분군 등의 고분 유적은 백제유적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들이다. 다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백

제유적으로 주장하기가 주저되는 것뿐이다.¹²⁾

이처럼 공주나 부여지역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이 백제권으로 구분되고, 도내의 모든 도민들에게 이것이 설득력 있게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남아 있는 백제유적에 대한 조사와 정비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지역에 남아 있는 백제유적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아울러, 이는 비단 이 두 지역만이 아니라 충남지역 전체에 걸친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는 곧 개발사업의 준비 미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개발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자연히 조사지역이 편중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최근에 공주·부여지역 이외에 논산이나 서산지역이 개발사업 대상지역으로 편입시켜 줄 것을 강력히 희망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에서 세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조사된 유적의 종류가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일제시대부터 진행되어 온 충남 지역의 백제유적의 조사 사례를 살펴보면 80% 이상이 고분 관련 유적이다. 이처럼 조사분야가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 백제문화에 대한 연구 역

11) 충청남도, 4대권개발경영구상연구, 1997, 159~167쪽.

12) 백제문화개발연구원, 충남지역의 문화유적(제7집 - 청양군 편), 1992.

시 한쪽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었다. 조사분야와 연구 주제에 있어서의 이러한 편중성은 백제 고분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는 데에는 일정한 기여를 하였지만 나머지 산성이라든가, 사찰, 주거지 등 관련 핵심유적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자연히 소홀히 취급될 수밖에 없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그 결과 백제역사재현단지에 조성될 7개의 기능촌 중에서 장제묘지촌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촌의 경우, 재현에 있어 자료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기능촌이 말 그대로 백제 당시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이라면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주거지와 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찾았던 사찰, 전쟁시 피난했던 산성, 그리고 죽어서 묻혔던 고분 등이 함께 재현되어야만 제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여기에 당시의 생활필수품을 생산하던 가마터 같은 것이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유적에 대한 올바른 실체가 구명되어야 비로소 균형 잡힌 백제사 연구가 진행될 수 있고, 개발사업 역시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앞서 지적한 예산 임존성의 경우, 그것이 백제 부흥운동의 중심성이었던 “임존성”이라는 주장¹³⁾만 제기되었을 뿐 그것이 실제로 백제시대 유적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사 한 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록도 중요하지만 관련기록이 미비할 때에는 물적 증거가 되는 고고학적인 조사가 필수적인 요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표조사 조차 실시되지 않아 성내에 어떤 시설물이 남아 있는지, 성벽은 어떻게 축성되어 있는지, 유물은 어떠한 것들이 남아 있는지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¹⁴⁾ 이 성이 조사 결과 실제로 백제 임존성임이 밝혀진다면 외세에 대하여 끝까지 항전한 호국정신의 산 교육장으로서 더 없이 좋은 교육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발사업 진행에 있어서 부딪치는 자료부족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와 같은 고분 일변도의 조사는 앞으로 시정될 필요가 있음이 자명해 보인다.

백제유적에 대한 조사의 문제점으로 또 한가지 거론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의 조사가 너무나 ‘백제시대’라는 시간적인 틀에 구애받은 감이 있다는 사실이다. 백제유적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는 대체로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고, 특히 1978년에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확정되면서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라는 명분에 집착한 나머지 백제시대 이전 유적이나 이후의 유적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소홀한 감이 없지 않다.

13) 심정보, “백제 부흥군의 주요거점에 관한 연구”, 백제연구 14집, 충남대 백제연구소, 1983.

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은 사적 90호로 지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백제문화권개발이라는 것이 백제정신의 계승이요, 백제 얼을 되새겨 보는 것이라면 당연히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걸쳐 백제 고지(故地)에서 새롭게 등장한 이른바 백제계 석탑이라는 것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가령, 비인 5층석탑, 부여 장하리 3층석탑, 계룡산 청량사지 쌍탑(남대탑) 등이 대표적인 백제계 석탑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러한 석탑들이 대체로 백제가 멸망한 후 200여 년이 지난 시기에 세워진 석탑들이기는 하지만 신라문화의 바람을 200여 년간이나 쫓고 나서도 백제인임을 잊지 않고 있었던 백제인들의 정신과 백제문화의 저력을 이 석탑을 통해 실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⁵⁾ 다시 말해서 이러한 탑들이 비록 백제시기에 세워진 것은 아니지만 탑을 통해 백제인들의 정신, 그리고 거기에 깃들인 백제인들의 얼을 느끼기에는 충분한 이상 백제시대에 제작된 다른 유적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느껴지는 것이다. 이처럼 백제 멸망 후에 백제 고지(故地)에서 생겨난 이른바 백제계 석탑이라는 것은 백제정신의 마지막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유물이라는 점에서 백제시대에 조성된 유물이나 유적 못지 않게 조사와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생각된다. 볼거리가 없다고 하여 자꾸 볼거리만 만들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시멘트개발사업이 되고 말 것이다. 개발의 한계나 문제점을 슬기롭

게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나 방법들을 강구하여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택이라도 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향후 개선방향

충남지역에 남아 있는 백제유적을 조사하는 이유가 유적을 통해 백제문화의 진수를 살피고, 거기에 스며 있는 백제의 얼과 슬기를 오늘날의 삶과 연결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면 거기에는 이러한 목적과 부합될 수 있는 조사 계획의 설정 및 그에 준하는 조사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조사는 이러한 사전 계획이 다소 미흡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앞에서 지적한 조사지역의 편중성, 조사 분야의 편향성은 바로 이러한 사전 계획의 미흡으로 빚어진 결과물이다. 그 이유를 한 두 마디로 간단히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충남도내에 산포(散布)되어 있는 백제유적의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이 미흡했고, 또 현재 남아 있는 유적 중 어떤 유적을 어떻게 개발해야겠다는 기본계획이 미흡했던 것만큼은 또 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아울러 백제문화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1960년대에 지정된 문화재만을 고집하고, 그에 대한 평가 및 새로운 자료의 발굴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앞서서도 제시하였지만 충남도내에 남아 있는 사적지의

15) 윤용혁, “백제권 개발과 충남발전”, 열린충남 창간호, 1995, 74~75쪽.

대부분은 1960년대에 지정된 것이 대부분이고, 80년대와 90년대에 들어서서는 간헐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많은 백제유적이 남아 있는 공주·부여지역에 사적지가 집중되게 되었고, 조사 역시 이 두 지역에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반면에 한번 지정에서 누락된 유적은 계속해서 개발 및 조사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중요한 유적이 방치되고, 파괴되도록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는 단시간 내에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장기간을 요하는 대안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단기적인 처방과 장기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단기적인 대안

먼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충남지역에 남아 있는 백제유적·유물에 대한 지명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여러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진행 중인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나 백제권 개발 등 백제관련 개발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개발 사업의 방향과 내용이 담긴 기본계획이 미비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러한 기본계획이 미비된 이유는 충남 도내에 남아 있는 백제유적의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충남도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 「문화재목록」은 국가, 혹은 충남도에서 지정한 지정문화재에 한해 간단한 지정 내용만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지정이유나 지정된 유적·유물의 축조 시기 및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지정에서 제외된 유적이나 유물에 대해서는 따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다. 「문화재대관」에는 해당 유적이나 유물의 축조 시기와 함께 간단한 설명이 붙어 있으나 이 역시 지정된 문화재만을 대상으로 하기는 마찬가지다. 또한 지정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채 현황 설명에 그치고 있는 것도 있다. 물론, 지정된 유적의 대부분이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와 같은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성격을 명확히 할 수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에서 사적지를 지정하건 충남도에서 도지정 기념물을 지정하건 간에 문화재로 지정할 때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다. 따라서 해당 유적이나 유물의 참 의미를 알 수 없게 되어 있고, 이 때문에 개발 방법도 떠오르지 않게 되어 있다. 어떠한 유적이나 유물이 담고 있는 의미가 명확해져야 그것을 바탕으로 찾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개발 방법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정문화재든 아니면 비지정문화재든 간에 충남도내에 남아 있는 백제유적을 총망라한 백제유적·유물 지명표가 시급히 작성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이 지명표를 바탕으로 도내에 남아

있는 백제유적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기초한 개발 방법이 구상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존에 이루어졌던 지표조사를 바탕으로 유적·유물 지명표를 작성한다면 단기간에 적은 비용으로도 지명표 작성이 가능할 것이다.

단기간에 가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충청남도 문화재전문위원회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문화재전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충남도내에 있는 문화재 전문가들의 모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다 할 활동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활동이 소극적인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문화재위원회를 실질적인 위원회로 성격을 탈바꿈시키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면 문화재 조사가 지역적으로 편중된다는지, 또 특정 분야에 조사가 편중되는 현상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화재 전문위원회에 참석한 전문위원들의 자문을 수렴한다면 현재와 같은 무원칙한 조사와 개발은 어느 정도 시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당국에서는 문화재 위원들로 하여금 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사실들이 그대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고, 아울러 이 위원회를 통해 조사와 개발의 책임자를 선정함으로써 전문위원 역시 소속감과 사명감을 갖고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운영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화재전문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다 할

수 있게 된다면 또 한가지 위원회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유적이 갖는 중요성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그것이다. 현재 국가 사적, 혹은 충남 도지정 기념물로 되어 있는 도내의 문화유적은 대부분이 일제시대 이래의 불완전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그 중에는 실제로 지정기념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도 있지만 해방 후 계속된 조사와 연구로 지정될 당시의 가치를 상당수 잃어버린 것도 있고, 또한 중요한 유적임에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유적에 대한 재평가작업을 통하여 꾸준히 유적의 가치와 변별력을 높이고, 이러한 작업을 토대로 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요한 유적임에도 개발사업에서 누락되는 경우는 최소한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공주의 대통사지(大通寺址)는 「삼국유사」에 창건 동기와 시기가 나와 있는 대표적인 웅진시대 백제 사찰이다. 백제시대 사찰은 이미 한성시대부터 창건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유적이 확인된 예는 없다. 공주로 천도한 후 성왕 때 세워진 이 대통사지가 실제 유적으로 확인된 최초의 백제 사찰인 셈이다. 여기에는 보물급의 석조(石槽) 1기와 당간지주(幢竿支柱) 1기도 남아 있다. 그러나 이 대통사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화재 지정이 없는 실정이다. 사지에 남아 있는 당간지주와 석조는 보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정작 사지 자체는 아무런 법적 보호장치 없이 나

날이 민가가 들어서면서 파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청양의 두릉산성은 사서(史書)에 보이는 두릉윤성(豆陵尹城), 혹은 두릉이성(豆陵伊城)이라고 하는 것인데, 충청남도 지정기념물 156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두릉산성은 기록에 의하면 임존성이나 주류성과 더불어 백제가 멸망한 후 3년 동안 전개한 부흥운동의 핵심 거성 중의 하나였던 곳이다. 따라서 이곳이 실제로 백제 두릉윤성임이 확실하다면 임존성이나 주류성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국가 사적으로 지정 받아야 할 것이다.

부여의 왕흥사지(王興寺址) 역시 「삼국유사」에 그 창건 배경이 전해지고 있는데, 사서(史書)에 등장한 사지(寺址)와 실제 유적이 부합되는 유적이다. 부여에 남아 있는 많은 일명 사지(逸名 寺址)와 비교해 본다면 학술적으로도 그렇고,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중요한 유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지금은 도지정 기념물 33호 지정되어 있을 뿐이다.

논산의 육곡리고분군과 황산성도 마찬가지다. 육곡리고분군에서는 백제고분으로써는 유례가 드문 은제관식(銀製冠飾)이 출토되었다. 전체 고분군 중에서 극히 일부만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상태인데, 유물의 희소성이나 유적의 중요도 등을 감안해 볼 때 도지정 기념물 95호 보다는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어야 마땅할 성격의 유적이다.

황산성은 계백 장군이 최후의 전투를 벌인 황산벌과 가까운 거리에 자리하고 있는 산성이다.

따라서 이 산성이 황산벌 전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축성 연대를 알 수 없는 것이다. 이 역시 발굴을 통해 백제시대에 축성된 것이 밝혀진다면 사적지로 지정하고, 이 일대를 계백 장군의 묘소와 연결시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백제역사재현단지에는 군사통신촌이 들어설 예정이거니와 이러한 황산성 일대의 산성 구조와 배치를 참고로 한다면 보다 설득력 있는 재현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문화재전문위원회가 활성화된다면 충남도내에 남아 있는 문화유적에 대한 재평가 작업을 벌일 필요가 있다. 그러한 재평가 작업을 통해 유적의 중요성이 좀 더 선명하게 부각되고, 개발의 당위성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지역주민들에게 자긍심과 문화유적의 소중함을 제고시키는 데에도 이러한 문화유적의 재평가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해당 유적이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가 사적이든 도지정 기념물이든 아무런 지정도 받지 못하여 법적 보호장치마저 없는 유적의 경우 이러한 재평가 작업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전문위원회에는 여러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만큼 분야별로 올바른 평가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큰 어려움 없이 유적의 중요성과 개발의 당위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고, 나아가 재현단지 조성시 예상되는 자료부족의 한계를 극복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재위원회와 함께 한 가지 더 단기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는 말 그대로 백제문화권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존의 기구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개발 방향을 제시토록 하고, 실제로 그러한 계획에 맞추어 사업을 진행한다면 계획하는 사람과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이 다른 데에서 오는 괴리감을 극복할 수도 있고, 이론과 실제를 함께 함으로써 더 효과적인 개발방법을 개발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의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는 연구·기획 부분이 취약점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작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구조이다. 그러므로 하루빨리 기구를 개편하여 연구·기획부분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백제역사재현단지 내에 “백제역사·민속박물관”이 들어설 예정이고, 그 박물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될 책임이 “사업소”에 있는 만큼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을 위해서라도 “사업소”에 연구인력의 보강은 필수적인 요건이다.

2) 장기적인 대안

단기적인 대안이 임시방편으로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대안이라면 장기적인 대안은 좀 더 거시적이고, 문화행정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치유책에 해당된다. 그런 점에서 장기적인 대안의 첫째는 충남 도내에 남아 있는 백제유적을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연구·개발할 새로운 전담기구를 만드는 것이다.

앞에서도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였지만 문제점으로 제시된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백제유적의 효과적인 조사와 개발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없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른 현재에도 이러한 마스터 플랜을 제시할 기구나 담당자가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고 현장에서

● 백제역사재현단지



그 운영을 추진할 새로운 기구가 우선 설립될 필요가 있다.

또한, 충남지역에 남아 있는 백제유적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도 이를 담당할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다. 앞서서도 조사의 현황을 통해 지적하였듯이 지금까지의 백제유적에 대한 조사는 백제사 연구를 위해서도, 그리고 백제문화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백제문화권 개발이라는 것이 이미 1978년부터 시작되었고, 그에 따라 백제유적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유적은 손을 꼽을 정도로 적은 수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수적인 열세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및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개국촌은 백제 개국 초의 생활상을 재현하는 것이므로 개국 초의 주거지나 생활유물 등이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자료는 전무한 편이다. 일반 서민들의 주거지나 관아 터가 발견된 예가 없기 때문이다.¹⁷⁾ 다만, 최근 들어 미사리유적(漢沙里遺蹟)이 발굴되어 참고자료가 어느 정도 확보되었지만 복원을 위해

서는 아직도 절대 부족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개국촌에는 신석기시대에서 백제시대에 이르는 각종 주거지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¹⁷⁾ 부족한 자료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이렇게 폭넓은 시기의 주거지를 재현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왕궁촌은 백제의 궁궐을 재현하는 것이다. 궁궐이란 많은 사람들에게 호기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재현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그러나 그 복원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라는 것이 궁궐 복원을 담당한 연구자의 고백이다.¹⁸⁾ 사정은 다른 기능촌도 마찬가지다. 전통민속촌의 경우 아예 ‘백제마을, 충남의 전통 마을, 그리고 다른 나라의 마을을 비교마을로 복원한다’고 되어 있다.¹⁹⁾ 백제마을은 밝혀진 바 없으므로 결국 시대불명의 국적 없는 마을이 되기 십상이다. 산업교역촌 역시 전통 농업·공업·상업의 발전과정 재현과 특산물 판매장으로 조성할 예정인데, 특산물 판매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설립 취지나 설립되고 난 후의 긍정적인 효과와는 달리 백제역사촌 재현이 이렇게 하나같이 어렵게 된 것은 물론 자료가 부족하기

16) 다만 성터 안에서 주거지가 발견된 예는 있다. 예를 들어 부소산성 내에서 1기의 수혈주거지가 발견된 바 있으며(홍성빈·장경호, “부소산성내 수혈주거”, 문화재 17집) 천안 백석동토 성내에서도 3기의 수혈주거가 발견된 바 있다(이남석, “백석동 토성”, 한국상고사학보 29집).

17) 이강승, “고대주거지연구”,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조사연구보고서(고건축분야), 충청남도, 1996, 9~64쪽.

18) 김동현, “고대궁궐연구”,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조사연구보고서(고건축분야), 충청남도, 1996, 162쪽.

19) 충청남도, 백제문화권 특색지역 종합개발 기본설계보고서(백제역사촌), 1993, 114~120쪽.

때문이다. 최근 들어 발굴조사가 활기를 띠면서 조사 유적의 수가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원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기존의 조사라는 것이 백제문화의 실체를 밝힌다거나 백제문화권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학술발굴이 아니라 도로 건설이나 공장 부지 등 개발사업으로 파괴되거나 인멸될 염려가 있는 유적에 대한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구제발굴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래의 조사기관들과는 달리 학술발굴만을 전담할 새로운 기구가 필요한 것이다.

발굴조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도내에 남아 있는 사적지에 대한 발굴 현황을 살펴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현황에서 밝혔듯이 도내에는 34개소의 사적지가 있고, 이중 18개소가 백제시대의 유적이다. 사적이란 기념물중 중요한 것을 문화재로 지정한 것을 의미하는 만큼²⁰⁾ 백제역사재현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사적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백제문화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발굴조사가 완료된 곳은 공주 송산리고분군과 능산리고분군, 쌍북리요지, 그리고 정암리요지 등 4개소에 불과하다.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발굴이 이루어졌거나 그마저도 아예 이루어지지 않아 유적의 축조 시기, 성격, 구조, 규모 등을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백제문화의 실체를 재현하고

자 하면서도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이다. 복원작업이 있을 때마다 자료부족을 호소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사적지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적지를 전담 발굴조사할 기구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백제유적·유물 지명표가 만들어지면 이를 바탕으로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도 전담기구의 몫이 될 것이다.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에 필요한 자료는 발굴조사를 통해서 확보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방법은 각 지역별로 특징적인 유적이나 유물을 발굴해 내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내용을 복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각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를 확충한다면 유적이 경주처럼 집중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넓은 지역을 쉽게 이동하면서 자유롭게 백제문화의 내용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공주·부여를 벗어난 지역으로써 또 다른 백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는 서산·예산지역과 논산·연기지역 등을 우선 들 수 있다.²¹⁾

서산지역은 다 아는 바와 같이 운산면 용현리에 마애삼존불이 있고, 예산에는 덕산면 화전리에 사면석불이 있다. 이 두 지역은 가야산을 중심으로 그 서쪽과 동쪽에 자리하고 있어 실은 서로 가까운 거리에 놓여 있다. 더구나 마애삼존불과 지근거리에는 보원사지(사적 316호)라고 하는

20) 문화재보호법, 제6조.

큰 절터가 있고, 사면석불 주변으로도 많은 절터가 알려져 있으며, 특히 가야산 주변에는 수많은 절터와 암자가 몰려 있어 경주의 남산과 같은 곳이다. 이러한 유적들은 공주나 부여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다. 물론, 공주나 부여에도 절터는 있지만 마애불이나 사면석불은 없으며, 시대를 달리하여 이렇게 다양한 절터가 자리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이들을 중심으로 백제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장으로 꾸민다면 이 지역민들에게 백제유적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도 심어 줄 수 있고, 또한 백제유적이 갖고 있는 자료부족, 소재 빈곤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이들 두 지역 주변에는 앞서 설명한 가야산과 온천이 있으며, 서해안 해상국립공원이 있고, 예산에는 백제 부흥운동의 상징적인

존재인 임존성(任存城)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존재들은 문화유적 감상과 관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런 점에서 가야산을 중심으로 한 서산·예산지역은 공주·부여지역에 버금가는 백제문화권 특정지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논산지역 마찬가지로. 논산지역은 공주·부여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자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 지역에서는 다양한 백제고분들이 확인되었다.²²⁾ 이러한 여러 유형의 고분들은 그 자체 중요한 학술적 자료인 동시에 일반인에게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종래에 백제무덤이라고 하면 서울 석촌동에 있는 적석총이나 공주 무령왕릉, 그리고 부여 능산

21) 이러한 작업도 앞서 지적한 대로 현재 충남지역 전체에 대한 정확한 현황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열거한 예산·서산과 논산지역은 그동안 진행된 공식·비공식적인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며, 앞으로 지역별 정밀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대상 지역을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백제유적에 대한 어떤 정책을 추진해 나갈 때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도내 전역에 대한 문화유적 지표조사 현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부 민간단체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정책 수행에 가장 큰 어려운 점으로 꼽히고 있다.

22) 지금까지 발굴조사된 백제유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① 윤무병, “논산 신흥리고분군 발굴조사”, 백제문화 7·8합집, 공주사대 백제문화연구소, 1975.
- ② 안승주, “논산 표정리고분과 출토유물”, 백제문화 10집, 공주사대 백제문화연구소, 1977.
- ③ 윤무병, “논산 표정리고분군”, 백제연구 13집, 충남대 백제연구소.
- ④ 서성훈·신광섭, “논산 표정리 폐고분”, 중도, V, 국립중앙박물관, 1984
- ⑤ 안승주·이남석, 논산 표정리고분군 발굴조사보고,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85
- ⑥ _____, 논산 육곡리고분군 발굴조사보고,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86.
- ⑦ _____, 논산 모촌리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90.
- ⑧ _____, 논산 모촌리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II),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92.

리고분군에 있는 석실분 등만 알고 있던 일반인들에게는 이들 지역에서는 구경도 못했던 새로운 묘제(墓制)를 살펴보면서 새삼 삶과 죽음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서도 지적하였듯이 논산지역에는 백제 계백 장군이 신라의 5만 군대와 맞서 최후의 전투를 벌인 현장이 남아 있고, 주변에 많은 성터도 남아 있다. 그런 점에서 논산지역은 백제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호국정신의 역사적 현장이 되는 셈이다.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노력이 경주된 바 없어 당시의 전장(戰場)이었던 황산벌의 위치라든가, 계백 장군이 신라의 군대와 맞서 싸우기 위해 설치하였다는 삼영(三營)의 존재에 대해서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황산벌이 현재의 논산시 연산면 일대를 가리킨다는 것은 이미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와 있고,²³⁾ 삼영의 존재는 황산벌 일대에 남아 있는 산성을 대상으로 고증작업을 벌인다면 어느 정도 윤곽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지역과 소재를 동시에 늘림으로써 종래에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고질적으로 따라 다니던 불거리가 없다는 불만을 어느 정도 불식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남아 있는 백제유적의 종류와

성격에 대한 정확히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는 것이다.

이밖에 사이버(CYBER) 백제역사문화관의 효과적인 구축 및 지속적인 관리자로서의 역할도 새로운 전담기구의 몫이며, 충남 도내의 관광지를 소개하는 각종 문화재 안내책자의 제정과 개정, 문화재 정비·복원에 대한 자문도 새로운 전담기구가 있어야만 가능한 사업들이다.

장기적인 대안책으로 새로운 기구의 설립과 함께 또 한가지 들고 싶은 것은 전문인력의 양성·확보문제이다. 지금처럼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 것은 백제사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자가 극히 적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문인력의 부족은 백제사를 복원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더 나아가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처럼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설령 새로운 전담기구가 설립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충원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재의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구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연구가 조직화되지 못하고 산만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문화의 복원이나 재현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충남에서 멀리 떨어진 타지역 연구자들에게 크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

23)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8 連山縣, 「山川」條, “黃山一云天在縣東五里 新羅金庾信將兵與唐蘇定方攻百濟百濟將軍階伯禦 羅兵于黃山之野 設三營…”

는 현상이 빚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전문인력의 부족 현상은 이들 전문인력이 마음놓고 조사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설령 백제사나 백제문화에 관심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들이 관심사를 계속해서 연구해 나갈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연구는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충남도내의 백제유적을 조사·연구할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문인력의 확보와 관련하여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비록 전문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선에서 문화행정을 담당할 사람들도 문화재에 대한 일정한 수준의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충남도는 이미 백제문화권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에 걸맞는 문화행정을 기획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반 다른 부서와 달리 문화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적어도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을 추진할 충남도와 공주시, 부여군의 문화재 담당자는 문화재 자체에 대한 전문가이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 분야에 종사하는 담당자는 일정 기간을 한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줌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문화행정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으로 배려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결 론

충남지역은 백제 중·후기 도읍지가 자리했던 지역으로 당시의 문화유적이 도내 곳곳에 산재되어 있다. 이러한 유적들은 충남도민의 자긍심을 높여 주는 것인 동시에 더없이 좋은 관광자원이 되고 있다. 충남지역에는 이러한 백제유적 이외에도 계룡산과 서해안, 온천 등 많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들은 대체로 계절성을 띠고 있는데 비해 백제유적은 4계절 가능한 관광자원이 되고 있어 어느 자원보다도 개발에 유리한 것이다. 더구나 최근 들어 소득이 증대되면서 과거 조상들의 생활상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백제문화권개발은 그 타당성이 입증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백제문화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당시의 문화 내용을 잘 보존함으로써 민족문화 창달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작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써 현재까지 충남 도내에서 조사된 백제유적의 현황을 파악해 보고,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합리적인 백제문화 내용을 복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먼저, 충남 도내에 남아 있는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을 살펴본 결과 거기에는 두 가지 커다란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나는 조사지역이 공주와 부여로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조사된 유적의 종류가 고분유적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조사 유적이 한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백제유적의 조사·정비를 위한 마스터 플랜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어 왔기 때문이다. 기본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니 연구자의 편의에 따라 한쪽 분야로 조사의 방향이 쏠리게 되었던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조사의 편중은 필연적으로 나머지 분야에 대한 자료 부족을 초래하였고, 그 결과 당초의 계획 의도와는 달리 백제역사재현단지는 시대미상, 국적불명의 역사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을 터인데, 먼저 단기적인 대안으로는 충남지역에 남아 있는 “백제 유물·유적 지명표”를 하루 빨리 제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명표가 완성되어야 어느 지역에 어떠한 유적이 있는지가 밝혀지고, 그래야 조사의 순서 및 개발 방향이 정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명표가 없는 상황에서 정해진 ‘백제문화권 특정지구’나 4대권 개발의 ‘백제권’은 그 기준이 모호하여 권역에 들지 못한 지역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두 번째로 백제유적에 대한 조사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다거나, 분야별로 치우쳐 있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조직되어 있는 ‘충청남도 문화재전문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 전문위원회가 말 그대로 전문가들의 토론장이 되어 그해 그해의 문화재 조사·연구의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 중·장기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현재와 같은 문화재 행정의 문제점은 어느 정도 시정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당국의 의지와 관련 전문가들의 책임의식이 크게 요구된다 하겠다.

이러한 전문위원회를 활용하는 방법과 아울러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전문가들은 각계 각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칫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분야가 다르다는 이유로 책임감이 반감될 소지도 있다. 그에 비해 ‘사업소’는 백제문화권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만큼 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방법과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의 ‘사업소’는 연구·기획 분야가 전혀 없는 만큼 ‘사업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원과 구조를 새롭게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에 장기적인 대안으로는 백제유적의 효과적인 조사와 연구·개발을 담당할 새로운 전담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이루어진 백제유적의 조사와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조사 및 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이 없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른 현재까지도 이러한 마스터 플랜을 누가 작성해야 되

는지 조차 불분명하다는데 있다. 따라서 조사와 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고 이에 준하여 조사 및 개발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갈 새로운 전담기구가 요구되는 것이다.

두 번째 장기적인 대안으로는 전문인력의 확보를 꼽고 싶다. 백제문화권은 신라문화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인력이 성장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다. 이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전문인력의 수적인 비교를 통해서도 명확해진다. 이러한 전문인력의 부재는 효과적인 백제문화의 조사 및 연구에 상당한 문제점으로 남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다행히 전통문화학교가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개교되기로 예정되어 있거나 이러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조사와 연구가 진행될 때 백제사 내지는 백제문화에 대한 연구도 깊이를 더할 수 있을 것이며, 백제문화권 개발사업도 내용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전문인력은 학계뿐 아니라 행정 당국에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기본적으로 문화재 담당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우리 문화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장기간 같은 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어야 한다. 충남도는 물론이고, 적어도 공주나 부여와 같은 시군에서 문화재를 담당하는 사람은 최소한 역사를 전공한 전공자이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전공자가 문화행정을 담당하는 것이 모든 시군으로 확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열린충남**

참고문헌

- 충청남도,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 기본설계 보고서(백제역사촌), 1993.
- 충청남도,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 기본설계 보고서(최종연구보고서), 1993.
- 충청남도, 4대권개발경영구상연구, 1997.
- 충청남도·전라북도·충남발전연구원,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 변경계획, 1998.
- 윤무병, “논산 신흥리고분군 발굴조사”, 백제문화, 7·8 합집, 공주시대 백제문화연구소, 1975.
- 안승주, “논산 표정리고분과 출토유물”, 백제문화, 10집, 공주시대 백제문화연구소, 1977.
- 윤무병, “논산 표정리고분군”, 백제연구, 13집, 충남대 백제연구소, 1982.
- 서성훈·신광섭, “논산 표정리 폐고분”, 중도 V, 국립중앙박물관, 1984.
- 안승주·이남석, 논산 표정리고분군 발굴조사보고,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85.
- 안승주·이남석, 논산 옥곡리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86.
- 안승주·이남석, 논산 모촌리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90.
- 윤용혁, “백제문화권 개발과 충남발전”, 열린충남, 창간호, 1995.
- 박서호, “충남 백제권 개발전략”, 열린충남, 제2권 4호, 1996.
- 여흥기,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 열린충남, 제2권 4호, 1996.
- 이강승, “백제문화권 개발의 현황과 과제”, 열린충남, 제3권 4호, 1997.
- 이남석,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연구현황과 과제”, 열린충남, 제3권 4호, 1997.

태안군 지역 자연환경의 고찰



여환구
한서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1. 서 론

환경이라는 용어는 여러 가지로 정의되며 다양하게 사용되곤 한다. 인간이 생활하고 있는 환경의 개념은 매우 포괄적이며 우리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작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넓은 의미로 환경이란 어떠한 주체를 둘러싸고 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무형 객체의 총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가시성을 기준으로 환경은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의 개념으로 구분될 수 있다. 물리적 환경은 땅·물·공기·생명체 등 자연환경의 요소와 도시·교량·공원·항만 등 인공적 물리환경으로 나누어지며 사회적 환

경은 인간사에서 발생하는 제도·관습·문화 등을 말한다. 한편, 인간의 힘이 가해지는 인공성을 기준으로 유엔환경계획기구(UNEP :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에서는 환경을 자연환경과 인간환경으로 구분하였다.¹⁾

자연환경과 인간환경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지속적인 관계로 존재하게 되며 자연은 사람의 힘이 가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체적으로 긴 시간을 두고 변화하기 마련이다. 환경변화는 자연 스스로 변화하는 자연적 변화(natural environmental change)와 인간의 행위나 활동에 의해 변화되는 인위적 변화(man-made environmental change)로 나누어 진다.

1) 박봉규 외, 생태적 조화를 이루는 인간환경, 동성사, 1993.

환경생태학자 E.P. Odum은 환경을 조경학적 관점에서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으며 그것은 인조환경(Fabricated Environment), 순치환경(Domesticated Environment), 자연환경(Natural Environment)이다.²⁾

좀 더 공식화된 용어로는 개발지(Developed Sites), 경작지(Cultivated Sites), 자연지(Natural Sites)로 경관을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구분에서 자연환경의 의미는 자급 또는 자립의 환경으로 특징지을 수 있으며, 태양광을 비롯한 그 외의 자연력(비, 물의 흐름, 바람 등)에 의해 의존되는 태양에너지 기본 동력계(Basic Solar-Powered System)를 지칭한다. 즉 자연환경은 인간의 힘이 거의 미치지 않는 야생지역을 포함하여 자연 시냇물, 강·삼림·초원·산·호수·해양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자립의 의미는 인간의 활동과 무관하게 생태계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는 공간으로 규정지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자연환경은 범지구환경의 시각에서 인조환경 및 순치환경을 부양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충남 태안군의 지역적인 자연환경 특성을 지역생태계, 대기환경 및 해양환경의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2. 태안군의 자연환경

태안군은 충남 최서북단에 위치한 저산성의 구릉지대로 황해와 접해 있으며 리아스식 해안으로서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고 간척사업과 수산자원의 보급처로서 잘 알려진 곳이다. 또한 만리포 해수욕장 등 10개의 지정 해수욕장이 위치하고 울창한 삼림을 가진 안면도를 비롯하여 115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산재해 있다.³⁾

1) 지역생태계

태안군은 대부분이 완만한 구릉지대로서 동물의 서식조건이 불리하여 특색있는 동물상은 나타나지 않고 조류 및 곤충류를 중심으로 한 국내 중서부 지방의 일반적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 조류(Birds)군집을 살펴보면 갯이갈매기는 근흥면 난도(卵島)에 집중 서식하는 천연기념물(제334호)로 알려져 있고 기타 바닷재비습새와 왜가리·청둥오리·쇠오리·붉은배새매·황조롱이·쇠부엉이·소쩍새·검은머리물떼새 등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곤충류는 일반적인 해안 및 내륙의 군집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여러 파충류 및 양서류 또한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포유류의 경우 살쥔이와 토끼·두더쥐 등 비교적 구릉지대의 토착성이

2) Odum, E.P., *Ecology and our endangered life-support system*, 1993.

3) 태안군, 태안군 해안관광개발 기본 계획, 1996.

4) 태안군, 태안군 해안관광개발 기본 계획, 1996.

강한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한편, 식물군집은 지리적인 여건 및 계절적인 특성으로 비교적 다양한 식물군이 형성되어 있다. 90년 말에 행해진 당시 환경처의 자연생태계 조사에 의하면 태안군을 446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녹지자연도 평가 결과에 의하면 2등급지 49.1%, 6등급지 32.4%, 1등급지 10.9% 등의 순으로 보고된 바 있다.⁵⁾

〈표-1〉에서 개발지역이란 녹지자연도 1~3 등급지로서 시가지조성지, 농경지, 과수원 등을 포함하며 반자연지역(반개발지역)은 2차 초원지, 조림지, 2차림 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태

안군 전체의 대표치로 볼 때 충남 전체의 평균보다 개발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개발지역 대부분이 인조환경 보다는 순치환경으로 점유되어 있기에 단시간에 걸쳐 생태계에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국부적인 큰 점오염원은 많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2) 대기환경

태안군의 기상과 기후에 대해 알아보면 이곳은 온대기후구에 속하며 여름이 비교적 길고 겨울에 눈이 많은 특징을 지닌다. 최근 10년간(1986~1995)의 연평균 기온은 11.7℃이며 월평균 최

〈표-1〉 녹지자연도 현황

구 분	녹 지 자 연 도 (%)		식생현존량 (천톤)	단위생산량 (톤/k㎡)	연간산소 생산량(천톤)
	개발지역	반자연지역			
충남 전체	40.8	50.5	35,622	4,031	8,504
태안군 전체	60.0	39.7	1,572	3,374	452
태 안 읍	76.4	23.6	200	2,790	72
안 면 읍	63.2	36.8	259	2,971	75
고 남 면	57.1	42.9	72	2,560	26
남 면	88.9	11.1	91	2,025	40
근 흥 면	64.0	36.0	161	3,246	50
소 원 면	44.9	55.1	291	4,219	69
원 북 면	46.6	53.4	306	4,188	75
이 원 면	40.5	59.5	191	4,546	46

환경부, 자연 생태계 전국조사(I-2), 1990.

5) 환경부, 자연생태계 전국조사(I-2), 1990.

고기온은 23.7°C, 월평균 최저기온은 -1.8°C(1월)로 나타나고 있다.

연평균 강우량은 1,218mm로서 충청남도 평균인 1,255mm와 유사한 수준이나 과거 연평균 강우일수(0.1mm 이상)가 약 102일로써 도내 연평균 강우일수(115일)보다 적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쾌청일수는 연평균 104일, 일조시간은 연평균 2,211시간, 연평균 풍속 2.2m/sec, 연평균 최대 풍속 16m/sec, 연평균 폭풍일수 44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풍향은 봄·여름에는 남서풍, 가을·겨울에는 북서풍이다.⁶⁾ 따라서 태안군내의 기상상태는 전반적으로 충청남도내의 타지역과 유사한 일반적인 모습으로 요약된다.

대기오염물질은 가스상 물질, 입자상 물질, 부유미생물 등이 될 수 있는데 가스상 물질은 물질의 연소·합성·분해시에 발생하고 있으며, 입자상 물질은 물질의 파쇄·선별·이적, 기타 기계적 처리 또는 연소·합성·분해시에 발생하고 있다. 오염물질을 생성과정에 따라 분류하면, 공장의 굴뚝이나 자동차 등에서 대기중으로 직접 방출된 1차 오염물질(Primary Pollutants)과 1차적으로 배출된 오염물질이 대기중에서 태양광의 영향을 받아 광화학 반응을 거쳐 발생하는 2차 오염물질(Secondary Pollutants)로 나누어진다. 가스상의 대기오염물질은 황산화물·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황산화물은 주로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산화되어 대기중으로 방출되어지는 것이다. 화석연료의 연소중 발생하는 황산화물의 대표적인 형태가 SO₂(아황산가스)로서 이는 물에 쉽게 녹아 H₂SO₄(황산)을 형성하게 되며 산성비의 요인이 된다. 질소산화물은 NO와 NO₂가 대표적 형태로 NO는 주로 고온 연소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NO₂도 NO와 함께 배출되거나 NO가 대기중에서 산화되어 형성된다. 질소산화물의 영향을 보면 NO보다는 NO₂가 인체에 더욱 큰 피해를 주어 대기환경기준 규정을 가지게 되었다. 한편 2차 오염물질의 대표적인 것으로 O₃(오존)과 PAN 등을 들 수 있다.

입자상의 물질은 물질의 불완전연소 과정이나 기계적 파쇄, 응축 및 화학반응 등에 걸쳐서 발생된다. 물론 자연적 발생원 또한 존재하는데 해염·화산재·도로먼지·산업화재·화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먼지의 크기는 먼지의 특성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물리적 요소이기에 분진의 크기별 영향을 고려하여 10μ 이하의 분진(PM-10)을 호흡성 분진으로 분류하여 규제하고 있다.

태안군 대기질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현장 측정자료⁷⁾를 참고하기로 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996년 4월과 7월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조사위치는 태안군 소원면의 4개 지점이다(표-2 참조).

6) 태안군, 태안군 해안관광개발 기본 계획, 1996.

7) 해양수산부, 모항항 여항시설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초안보고서), 1996.

〈표-2〉 대기질 측정지점 위치

지점번호	측 정 지 점 위 치	비 고
A-1	태안군 소원면 만리포 해수욕장 우체국	주거, 도로
A-2	태안군 소원면 모항항 현장사무소	사업지구내
A-3	태안군 소원면 모항초등학교	주거, 도로
A-4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개교지마을 민가	주거

자료 인용 : 해양수산부, 모항항 어항시설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초안보고서), 1996.

〈표-3〉 대기질 측정결과

	측정회수	TSP $\mu\text{g}/\text{m}^3$	PM-10 $\mu\text{g}/\text{m}^3$	SO ₂ ppm	NO ₂ ppm	CO ppm	O ₃ ppm	Pb $\mu\text{g}/\text{m}^3$
A-1	1차	46.5	29.4	0.002	0.004	0.5	0.006	ND
	2차	50.1	31.5	0.002	0.005	0.4	0.006	ND
	평균	48.3	30.5	0.002	0.005	0.5	0.006	ND
A-2	1차	62.4	40.5	0.002	0.005	0.7	0.008	ND
	2차	58.1	33.4	0.002	0.005	0.6	0.007	ND
	평균	60.3	37.0	0.002	0.005	0.7	0.008	ND
A-3	1차	54.8	35.9	0.003	0.005	0.6	0.005	ND
	2차	52.9	37.2	0.002	0.004	0.5	0.006	ND
	평균	53.9	36.6	0.003	0.005	0.6	0.006	ND
A-4	1차	48.1	32.4	0.002	0.004	0.5	0.006	ND
	2차	42.2	29.4	0.002	0.004	0.4	0.006	ND
	평균	45.2	30.9	0.002	0.004	0.5	0.006	ND

주) ND는 비검출

자료 인용 : 해양수산부, 모항항 어항시설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초안보고서), 1996.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태안군 소원면의 96년도에 실측된 자료들에서 정점A-2의 경우 여타 지점에 비해 대기 오염물질의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 TSP $60.3\mu\text{g}/\text{m}^3$, PM-10 $37.0\mu\text{g}/\text{m}^3$, SO₂

0.002ppm, NO₂ 0.005ppm, CO 0.7ppm, O₃ 0.008ppm으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4곳의 대기질 측정값들은 모두 환경기준을 밑도는 양호한 대기질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태안군내 황산화물의 대기유입원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태안화력발전소(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소재)의 경우 연료로 이용되는 석탄의 황 함유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황산화물의 배출농도 규제치를 현재 500ppm 정도로 잡고 있으며, 실제 배출농도는 300ppm 정도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1998년 말 탈황설비가 준공되면 탈황률이 90% 이상으로 높아져⁸⁾ 황산화물의 대기유출을 격감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다.

3) 해양환경

태안군의 해안선 길이는 근흥면과 안면읍, 소원면 등의 순으로 총, 530.8km로서 충남도내(953.3km)에서 가장 길다. 또한 도서수도 도내의 절반가량인 115개(유인도 8개, 무인도 107개)가 위치해 있지만 그 면적에 있어서는 도대비의 약 22% 선인 9.9Km²에 달해 대부분이 군소형태를 보이고

있다. 해양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수심 10m 이하 지역의 수온은 연평균 13.1℃를 보이고 있어 타지역에 비해 약간 높은 수온을 나타내고 있다. 수색은 황사현상 및 다량의 하천수 유입으로 황색이 지배적이며 계절적으로는 여름철을 중심으로 육지에 접할수록 녹색에서 황색으로의 변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류(Current)는 천수만지역이 5~5.5knot로 가장 높으나 기타의 수역에서는 평균적으로 창조류가 1.8~3knot, 낙조류가 1.5~4knot로 나타나며 해수욕장 부근의 연안지역은 1.5~1.8knot의 범위로 다소 완만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파랑은 겨울(11월~2월)이 2~3knot로 가장 높고 그 외는 0.5~1.0knot로서 해양활동을 위한 기준선(1knot 이하)에 적합하게 나타난다.

태안군 해역의 해수 수질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1996년 4월과 7월에 모항리 연안에서 조사된 자료 <표-4>를 검토하면 아래와 같다.

<표-4> 해양수질 분석 결과

항 목	범	위	항 목	범	위
수 온(℃)	4월 : 12.3 ~ 13.2	7월 : 20.9 ~ 23.1	SS(mg/l)	4월 : 4.3 ~ 7.8	7월 : 5.6 ~ 12.4
염분도(‰)	4월 : 30.1 ~ 30.9	7월 : 29.7 ~ 35.7	대장균(MPN/100ml)	4월 : 5 ~ 13	7월 : 7 ~ 21
pH	4월 : 7.92 ~ 8.13	7월 : 7.92 ~ 8.06	T-N(mg/l)	4월 : 0.27 ~ 0.82	7월 : 0.08 ~ 0.47
DO(mg/l)	4월 : 7.5 ~ 8.1	7월 : 6.1 ~ 6.7	T-P(mg/l)	4월 : 0.010 ~ 0.024	7월 : 0.008 ~ 0.054
COD(mg/l)	4월 : 1.0 ~ 1.7	7월 : 1.0 ~ 2.0	Cu(mg/l)	4월 : ND ~ 0.006	7월 : 0.003 ~ 0.012

주) Cr⁶⁺, As, CN, Hg, Pb, PCB, n-Hexane, Cd, 유기인 등은 비검출(ND) 되었음.

자료 인용 : 해양수산부, 모항항 어항시설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초안보고서), 1996.

8) 한진, 태안화력 환경보전 현황(태안화력건설처), 1997.

이상의 태안군 해역 자료를 해수의 수질기준에 적용하면 중금속,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거나 I등급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COD와 T-P(총인)의 경우 II등급의 수질을, T-N(총질소)은 III등급 내지는 그 이하의 수질을 나타내고 있어 해역의 부영양화(Eutrophication)가 우려된다

수역의 부영양화는 결국 해수 속에 식물 플랑크톤의 양을 급속히 증대시키는 적조의 현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론이나 태안군내 해역에서 적조현상의 징후군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1996년 4월과 7월에 조사된 결과⁹⁾를 보면 소원면 연안에서 식물플랑크톤의 자료를 소개하고 있는데 대부분 규조류(Diatom)의 우점을 보고하고 있으며 *Paralia sulcata*, *Skeletonema costatum* 등을 우점종으로 보고하였다. *Paralia sulcata*는 일시성 부유 규조류로서 본 해역이 수층의 혼합이 상당히 활발함을 알려주는 지표종이며 *Skeletonema costatum*은 광온광염의 종으로서 우리나라 주변해역 어디에서나 흔한 종이다. 따라서 위에 열거된 종들의 우점현상은 우리나라 서해연안 여느 곳과도



○ 태안해안국립공원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식물 플랑크톤의 현존량은 대체로 10^3 cells/ml 이하로 보고하고 있어 적조의 수준은 아니었다. 적조현상은 해수의 순환이 정체되기 쉬운 진해만 등에서 빈번하게 보고되어 왔고¹⁰⁾ 용존산소의 고갈, 패독의 발생에 의한 어패류 치사로 이어지게 된다. 태안군 연안 지역의 적조 비발생 이유는 국내에서 최대의 조석간만의 차를 보이는 등 해수 순환이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져 영양염의 체류시간이 짧은데 기

9) 해양수산부, 모항항 어항시설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초안보고서), 1996.

10) 여환구·박미옥, "진해만 동부해역내 식물 플랑크톤 군집과 수질환경의 계절변동", 한국환경 과학회지, 제6권 제3호, 1997, pp. 231~238.

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기만 등 조석(Tide)이 강한 수역에서도 오염유기물 등의 부하가 클 경우 적조발생의 보고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태안군 주변 해역 또한 언제까지나 적조발생과는 무관하지 않아 안심할 수는 없다.

한편, 태안화력발전소와 관련된 해양환경의 문제는 온배수의 유입이 될 것이다. 수생환경으로의 인위적인 열량의 부하는 생태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외부 스트레스가 되는데 연안에 건설된 화력 및 원자력발전소 등은 냉각기(Condenser)를 통과한 온배수를 수중환경으로 유출시키게 되고 이 현상을 열오염(Thermal pollution)이라 한다.¹¹⁾ 이러한 열 에너지의 연속적인 첨가는 주변 해역에 서식하는 각종 생물의 종조성, 군집구조 및 생산량의 변화를 야기한다. 해수를 냉각수로 이용하는 발전소의 가동에 따른 해양생물상의 피해는 크게 냉각수의 취수 구조물에 충돌하여 입는 대형생물의 치사 및 냉각계통을 통과하는 미소생물의 치사와 주변 수온 상승 수역의 생물상 변화 양상 등을 들 수 있다.

온배수에 관한 여러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동·식물 플랑크톤 및 종속영양의 수생 미생물 군집은 온배수 영향권내의 수괴(水塊)에서 생물량 및 생산력이 불규칙한 시·공간적 변화를 보이고 있어서 그 양상을 정형화시키기에는 현재로서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견해를 종합하면 저온의 해수에 온배수의 유입은 생물량 및 생산량에 긍정적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보이며 반대로 생물활성 임계수온 이상의 열에너지 첨가는 생물대사를 저해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여름철의 경우 온배수 확산 수역에서는 그 피해 정도가 커질 수 있다.

3. 맺음말

태안군의 자연환경이나 입지적 여건, 지형적 특성 등을 감안해 볼 때 태안군 지역은 계속적으로 환경개발을 추진해 갈 것이며, 그 개발속도 또한 가속화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추세에 발 맞추어서 환경에 대한 책임있는 개발을 전제로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이다. 태안군 지역은 기존의 관광지나 신규 관광지의 개발주제나 방향을 국내 타지역을 능가하는 쾌적한 자연환경과 평안한 자연경관으로 설정하고 있어 민·관의 협력체제 속에서 일관성 있게 가꾸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안과 송림 등의 지역적 자연환경과 개발 규모를 적절하게 설정한 위락시설의 구성은 지역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자원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현재의 대기·수질 및 해양환경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지 않는 환경용량의 추정이 반듯이 선행되어

11) Moore, E.W., Thermal pollution of streams, *Ind. Engng. Chem. ind. Edn.*, Vol. 50, 1958, pp. 1~4.

야 할 것이다.

현재 태안군의 경우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발 맞추어 중장기적으로 관광자원의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관광을 위한 개발은 독립적 현상이 아니기에 자연환경의 문제와는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주지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태안군은 현재 이 지역이 일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자연환경의 보호에 상당한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개발에 대한 압력 및 관리체계의 다원화에서 오는 문제, 재원과 인력의 부족 등으로 상당한 난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발과 관련한 자연환경 보호책을 사업시행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세분화시켜 육상 및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대기·수질·토양·동식물상 등 생태 전반에 걸쳐 내용별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자연환경의 국부적인 훼손이나 손상이 짧은 기간에 환경의 문제를 급성적으로 발현시키는 사건은 흔히 발생하지 않지만 관리 미숙 등에 의한 자연환경의 변화에 가속화가 이루어진다면 자연생태계의 동적 평형에 의한 자가조절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해안 및 해양환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의 경우 해수의 물리화학적 변화 및 생물군집의 동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수질과 관련된 여러 환경기준 항목의 지속적인 관측 및 검토가 수행되어

야 할 것이며, 부유물질에 의한 탁도의 증가, 인공구조물에 의한 해류의 변화, 해안의 오염 등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염민중남**

참고문헌

- 박봉규 외, 생태적 조화를 이루는 인간환경. 동성사, 1993.
- 여환구·박미옥, "진해만 동부해역내 식물 플랑크톤 군집과 수질환경의 계절변 동", 한국환경과학회지, 제6권 제3호, 1997, pp. 231~238.
- 이상훈, 교양환경과학, 자유아카데미, 1994.
- 태안군, 태안군 해안관광개발 기본 계획, 1996.
- 태안군, 태안 통계연보, 1996.
- 한 전, 태안화력 환경보전 현황(태안화력건설처), 1997.
- 환경부, 자연생태계 전국조사(I-2), 1990.
- 해양수산부, 모항항 어항시설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초안보고서), 1996.
- Moore, E.W., "Thermal pollution of streams" Ind. Engng. Chem. ind. Edn., Vol. 50, 1958, pp. 1~4.
- Odum, E.P., Ecology and our endangered life-support system. 1993.
- Tansley, A.G., "The use and abuse of vegetational concepts and terms" Ecology, Vol. 16, 1935, pp. 284~307.

시군 현장 답사기 *



이인배

충남발전연구원
자치행정부 연구원

금산군 · 서천군

1. 시군 현장방문에 참여하며

지난 1998년 10월 30일 논산시로부터 시작된 시·군 현장방문은 1999년 3월 30일 천안시를 끝으로 그 일정을 마쳤다. 도지사를 비롯한 충청남도 각 실·국의 실·국장과 부서별 담당자들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처음으로 도와 시·군정의 연계와 통합성을 위하여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과시간에 관계없이 수많은 현장을 방문하였다. 시·군의 각종 행사에서부터 크고 작은 규모의 개발사업과 시·군의 숙원사업 현장에 이르기까지 시·군 살림살이의 구석구석을 볼 수 있는 현장방문이었다.

우리는 시·군 지역을 방문하여 그 지역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시·군 지역의 정책과 개발방향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도와 시·군간에 좀더 연계되고 통합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

* 본 글은 1998년 10월부터 1999년 3월까지 충청남도에서 추진하였던 시·군 순회 현장답사 행사중 금산군과 서천군에 참여한 충남발전연구원의 의견을 참여한 지역별로 정리한 것이다.



간에 노력하는 모습도 엿볼 수 있었다.

이러한 시·군 현장방문 행사에는 충남발전연구원원의 연구진도 참여를 하였다. 충남발전연구원원은 시·군 지역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연구원을 알리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시·군의 교류방문과 지역답사가 필요하였는데, 도의 행사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연구원에서는 이중적으로 소요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또한 토론회에서는 본원의 硏究員에게 발언기회가 부여되어 의견제시를 통한 충남발전연구원원의 역할을 시·군에 알리며, 정책제언과 시·군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토론을 위해 주어진 시간이 매우 짧았고, 그 당시 제기되었던 내용들이 단편적으로 언급되어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했던 점이 있었다. 그 동안 시·군 현장방문 행사에 참여했던 금산군과 서천군을 중심으로 하여 그 지역의 지역개발 방향과 방문현장 지역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였다.

2. 시·군의 현장방문 현황 : 금산군·서천군

시·군 현장으로 방문했던 금산군과 서천군은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으로 현재 사회기반시설과 산업단지 개발, 관광산업을 중점으로 지역의 온 힘을 결집하여 지역현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업현장의 방문지역은 다음과 같다.

1) 금산군

- 일 자 : 1998년 11월 14일(토) 07:50~17:30
- 방문지 : 추부~대전간 도로 확 포장, 신대하수종말처리장, 인삼시장 우회도로 개설, 인삼종합전시관, 공공근로사업장, 복수농공단지, 인삼명인주공장, 금성보건진료소 등

2) 서천군

- 일 자 : 1999년 2월 10일(수) 06:50~19:10
- 방문지 : 한산모시관, 한산소곡주 제조공장, 웅기박물관 건립 소관품 보관 현장, 복원교 개량, 서천 시가지 순환도로 개설, 춘장대 해수욕장 관광지 개발, 마량리 해돋이 마을, 송석항 개발, 서천기능대학 설립 예정지, 장항국가산업 단지 조성지, 장항항 접안시설 보강, 장항 농공단지, 금강호 철새공원 등

3. 시·군의 지역개발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

금산군과 서천군에 대하여 그 동안 깊이 있는 연구의 기회는 없었다. 그러나 이번 시·군 현장방문을 통해서 지역의 현황과 개발과제 및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 등을 분석하고 종합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금산군과 서천군에서 향후 추진해야 할 지역개발의 정책방향과 방문현장 지역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볼 수 있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산군

- 금산은 '21세기에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시점임.
- 대전의 도시기능 확대로 대전생활권화의 가속화 예상
- 대전-진주간 고속도로의 건설로 급격한 지역변화 전망
- 따라서 대전시의 광역도시기능을 수용하고, 기존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중 장기적 지역개발대책 마련이 필요함.
- 이러한 측면에서 21세기를 향한 금산의 4가지 지역개발방향은 다음과 같으며, 이들은 지역특성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 추진해야함

① 금강상류지역의 자연환경을 중심으로한 활용방안 모색

- ※ 금강상류 지역의 山과 水에 대한 이용계획 필요

② 대도시 위성도시기능의 준비 → 대전의

Push 현상을

수용

- ※ 마전도시계획 재정비 등과



주거, 상업, 공업기능의 수용 준비

③ 도시 근교농업기능의 발전방향 모색 필요 : 지역주민사업으로 지원방안 모색

- ※ 추부갯잎, 땅두릅, 각종 채소류 등 대전에 공동 출하하고 수급 조절

④ 인삼의 세계화를 위한 지역특화전략 필요 → 2가지 방향의 전략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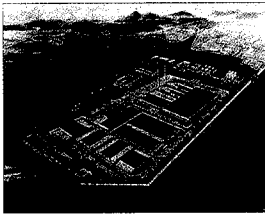
- ※ 최고급화 : 사포닌 성분의 약효를 고밀도 농축 판매, 고단가 상품 개발
- ※ 대중화 : 대중과 신세대 입맛에 맞는 음식, 음료 개발, 가격의 대중화
- ※ 인삼상품의 세제완화로 인삼가공사업의 활성화 방안 모색

• 현장방문지역에 대한 의견

- 대전-추부간 도로 : 인터체인지 주변 대책 필요(마전도시재정비)
- 인삼시장 우회도로 : 절개지 부분의 환경회복을 위한 조경 필요
- 인삼종합전시관 : 금산 5일장을 '미니 금산 인삼제 개최'로 관광 상품화
- 푸른숲가꾸기사업 : 산림정비지역에 '금산 이미지 수종 群植'
- 복수농공단지 : 주변지역에 난립한 환경유해공장의 집단화로 환경오염예방

2) 서천군

-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서천군은 흙속에 꿰어야할 구슬이



많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임

• 장군공업단지에

관한 의견은 이미 수

없이 논의되었는데, 이는 국가의 정책과 맞 물려서 풀어가야 할 앞으로의 과제로서 온 군민과 도민이 합심해서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임.

• 서천군은 구슬을 꿰어 보배로 만들기 위한 3가지의 조화있는 개발이 필요함

① 장군산업단지 및 기존 산업단지의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안정화 정책 추진

→ 지역재원을 확보하고 재정자립도를 높여 지역경제 안정화의 기틀을 마련

② 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산업의 육성

→ 환경 파괴 지역은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환경을 서천의 생명'으로 아낌

→ 지역경제력을 키우고, 이를 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집중 투자

→ 금강하구둑 철새도래지를 이용한 생태관광지 조성

→ 해안의 갯벌을 이용한 체험관광상품의 개발

③ 기존 농업과 어업을 지역기반산업으로 한 지속가능한 그린관광의 개발 육성

→ 고품질 지역농수특산물과 지역특색의 공예품과 전통음식을 개발

→ 지역특산물의 판매와 유통방법의 개선

• 현장방문지역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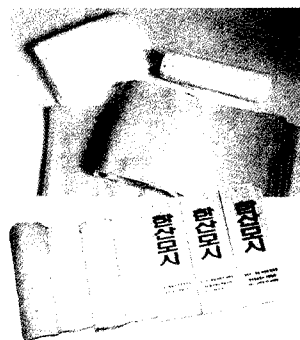
- 춘장대해수욕장 조성 : 상업시설의 위치에 대해 신중히 고려한 녹지보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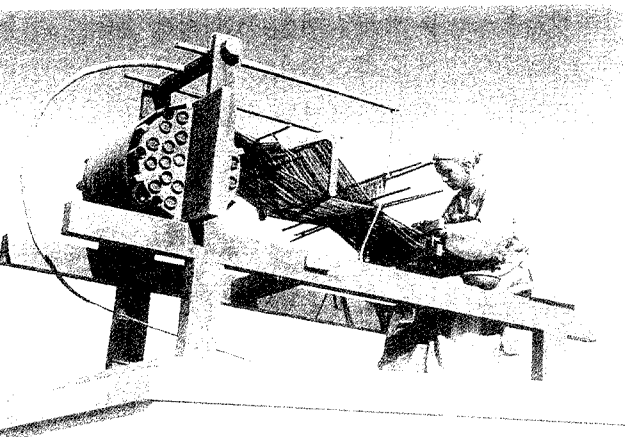
※ 대천해수욕장에서도 보듯이 모래사장과 바로 연결된 상업시설의 설치의 춘장대해수욕장의 생명력을 잃게 됨

- 마량 해돋이마을, 송석항 어촌휴양단지 개발은 물리적 시설공간의 개발보다는 지역의 지형지물과 지역주민에 의한 참여가 필요함

※ 마을 공터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기존 마을을 상가와 민박으로 지역주민회가 개발할 수 있도록 군에서 지도나 지원 필요

- 서천의 CIP와 한산세모시 상징물을 활용하여 지역이미지 창출 도모





※ 군계나 중요지점에 서천 CIP나 상징물을
설치하여 지역 이미지화와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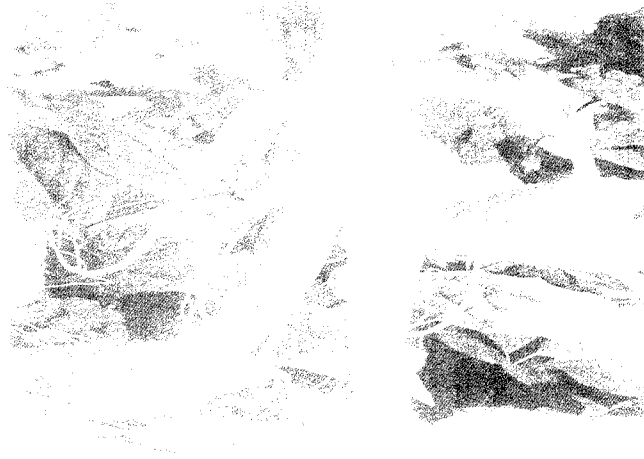
4. 시·군 현장방문의 시사점

도와 시·군정이 연계 및 통합을 위하여 추진된 시·군 현장방문은 그 취지에 맞게 비교적 잘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기존의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연계와 통합이 잘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며, 이번 한번의 행사로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연계와 통합'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를 낼 수 있듯이 도와 시·군에서도 상호간의 연계와 통합을 위하여 노력을 할 때 각각의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주민을 위

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도와 시·군간의 정책적인 연계와 통합을 위해서는 상호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와 시·군의 고위직 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 간에도 실무 차원의 상호 연계와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도와 시·군의 현장방문에 참여한 충남발전연구원원인 해당 지역의 자료수집과 그 지역의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인적교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짧은 일정의 행사에 참여하여 시·군지역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연구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었다. 그러므로 다음부터는 방문 시·군 지역에 대한 자료를 미리 조사 연구하여 좀더 깊이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열린충남**



원 장 동 정

시·도연구원협의회 회장 피선

3월 26일(금)부터 27일(토)까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열린 1999년도 상반기 시도연구원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였다. 총회에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및 99년도 사업계획(시·도연구원협의회 공동세미나 개최, 시·도연구지 발간, 뉴스레터 발간, 99년도 시·도연구원 총람 발간 등)과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내용과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또한 99년 7월 31일 만료되는 협의회 후임 임원 선출에 있어서 충남발전연구원 황용주 원장이 임기 2년의 시·도연구원협의회 회장에 만장일치로 선출되었으며 임기의 개시는 99년 8월 1일부터 시작된다.

외자유치 협상을 위한 미국 방문

3월 18(목)부터 24일(수)까지 '보령~안면 연륙교 건설 관련, 외자유치 협상을 위한 투자상담

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했다. 충청남도가 미국 T.Y.Lin사 간을 상대로 '보령~안면 연륙교 가설' 관련 유치 협상에서 중재 역할을 담당한 Harry W. Kim을 통해 그간의 활동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설명하는 등 그간의 중재에 대한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미국 각계의 유력한 투자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21세기 충청남도의 비전과 향후 발전 가능성을 홍보하며, 충남이 투자의 적격지라는 인식의 제고를 위해 지역의 발전상에 대한 홍보와 설명회도 함께 가지는 등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였다.

연구원 사업

99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개최

2월 22일(월)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심대평 이사장과 황용주 원장을 비롯한 이사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99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사 개임과 정관

및 제규정 개정, 98년 회계 결산, 그리고 98년도 정기감사 결과보고, 99년도 사업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가졌다.

매주 월·목요일 간담회 개최

본 연구원에서는 3월 3일(목)부터 매주 두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연구원을 위한 발전적 제언과 연구 아이디어의 상호교류, 전공별 연구활동 진행 상황 및 연구 know-how 소개를 통해 연구원의 화목한 분위기 조성하고 연구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있다. 매주 전직원이 참여하는 월요일에는 2명씩 정해진 주제발표와 이에 대한 토론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주 목요일에는 연구원들만이 참여해 연구활동과 연구의 내용에 대한 토론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

용역 연구 사업

(주) 중부농축산물류센터

CI 개발 연구용역

(98. 11. 16~99. 1. 31)

농축산물이 가지는 특성과

신설 물류센터로서의 참신성과 활동성을 부각시켜 물류센터의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고유 이미지의 창출과 이용자들의 시각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이미지 통합을 위한 기본 심벌, 로고타입, 마스코트, 싸인 물 등을 포함한 매뉴얼 제작 연구.

**보령시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연구용역**
(98. 5. 1~99. 2. 24)

국토의 합리적 이용·개발·보전과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으로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시행되고 있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개발촉진지구 지침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범위의 선정과 지구지정 신청서류를 작성하기 위한 ‘보령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주) 중부농축산물류센터 대외
홍보 자료 개발 연구 용역**
(99. 3. 20~99. 4. 20)

99년 9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물류센터의 홍보자료를 사전 제작배포하여 공적 물류센터의 설립목적, 기능, 역할, 등을 지역주민들에 인식시킴으로써 이용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카탈로그 제작 연구.

**21세기를 위한 부여비전 프로젝트
수립 연구용역**
핵심부문별 전략 및 집행계획
(98. 12. 5~99. 6. 2)

먼저 추진된 “21세기를 위한 부여 비전 프로젝트: 기본구상”에 이어 21세기를 지향하는 부여 비전 프로젝트를 한 차원 끌어올려 부여군의 성장 잠재력을 각 핵심부문별로 고도화 시킴으로써 명실공히 21세기형 부여 발전전략을 실천분야별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가시화하기 위한 연구.

**안면도 종합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99. 3. 13~99. 10. 30)

안면도 지역은 21세기 최대 산업으로 떠오를 관광산업의

요충지로서 개발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임에도 낙후지역으로 남아 있으며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자원이 보전대책의 미흡과 산발적인 개발로 갈수록 훼손이 심각한 상태이다. 따라서 안면도 전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구도와 방향을 설정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개발비전의 제시로 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관광지 및 산업시설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

**공주시 21세기 장기발전비전
연구 용역**
(99. 3. 18 - 99. 11. 12)

종래 물리적 개발위주의 계획으로부터 탈피하여 21세기를 지향하는 공주시의 무한한 성장잠재력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전기반을 전략적으로 특화시킴으로써 21세기 위대한 공주시 구현을 위한 민선자치시정 발전의 경쟁력 창출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연구.

도·시군정과 관련한 각종 디자인 연구

- 보령사랑운동 스티커 디자인 연구(2. 5~2. 13)
- 주민등록인구통계 표지디자인 연구(2. 18~2. 24)
- 충남 향토문화축제 총람 표지디자인 연구(2. 24~2. 27)
- 태안 마스코트 응용동작 디자인 연구(3. 2~3. 6)
- 여성자원 활용 교육장 현판 디자인 연구(3. 10~3. 13)
- 아름다운 우리말 모음집 표지디자인(3. 11~3. 25)
- 보령시 종합 관광안내 팸플릿 디자인 연구(3. 11~3. 25)
- 충효교실 교육교재 표지디자인 연구(3. 15~3. 20)
- 관광 보령 안내책자 및 리플릿 제작 자문(3. 15~3. 30)

현안연구사업

- 서해안 문화관광벨트 개발 계획 연구(3. 8~3. 27)
-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대응 전략과 정책방향 연구(2. 6~5. 31)
- 장항·석문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효율적인 추진방안 연구(3. 5~3. 20)

광역연구사업

최병학 지치행정부장

1월 27일(水) 충북개발연구원 주최로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지방과 수도권의 공동 발전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지방발전 촉진을 위한 법제 및 정책체제의 정비 방향”이라는 주제논문 발표를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한 중부권의 대응 노력을 강조하면서, 산업입지의 우월성을 토대로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보육센터(TBI) 및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확충으로 벤처기업의 창업 및 산업·기술·마케팅·물류·해외통상·특허정보 활성화, 그리고 산-학-연-관 협력 체계를 조기에 구축해야 함을 강조했다.

3월 18일(木) 「지방시대를 연다」 CBS 대담 프로그램을 통해 “21세기 중부권 협력을 위한 정책 과제”를 중부권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국책사업(SOC)유치 관련 공동협력, 종합무역상사, 관광이벤트 전문

기관, 신용보증조합 공동운영, 각종 광역시설(산업기반·교통 및 생활기반시설)의 공동개발 및 활용, 지속가능 개발(ESSD)을 위한 공동협력 체제 구축 과제를 제시했다.

이인배 연구원

1999년 3월 25일(목) 서천군 민회관 대강당에서 서천군이 주최하고, 서천군의회가 후원한 「21세기 서천군의 발전방향」의 지역개발정책 전문가 토론회에서 “21세기 서천비전을 위한 환경과 관광의 특화전략”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서천을 환경과 관광으로 특화하기 위해서는 생활환경개선과 지역문화육성이 제1순위이고, 다양하고 풍부한 해양 생태관광자원을 서천의 보물로 만들어 서천의 뿌리인 1차 산업의 또 다른 성장산업으로 녹색관광으로 육성할 것 등을 주장했다.

구 분	성 명	제 목	소 속	게재면
제4권 1호	정명기	외환위기의 발생 원인과 IMF시대의 한국경제	한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특집
	이강선	긴축시대의 충청남도 재정운영 대책	충남발전연구원 연구기획부장	"
	박종찬	새로운 경제 틀 속에서 충남도의 중소기업 지원 대책	고려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권용대	IMF시대 충남 농업의 전망과 정책 과제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
	배진한	경제성장을 저하와 충청남도의 실업 대책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공석기	조류를 이용한 폐수처리	중부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논단
	김종호	서산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
	박한규	IMF시대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충청남도 지역경제국장	칼럼
제4권 2호	김응락	지방민주주의의 발전과 충남의 자치 역량 확보 방안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특집
	최병학	21세기 충청남도 자치행정 체제 구축 방향	충남발전연구원 자치행정부장	"
	최창희	충청남도 자치행정의 효과성 증대 방향	공주대학교 사회교육학과 교수	"
	김학민	민선자치 2기 시대의 지방재정 전망과 과제	순천향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
	김정연	강경 되살리기를 위한 기본방향과 실천 과제	충남발전연구원 지역개발부장	논단
	송두범	강경 되살리기 운동과 지역사회 참여	충남발전연구원 지역개발부 연구원	"
	최종후	충청남도 시·군의 성장 유형 비교	고려대학교 정보통계학과 교수	"
	이명수	새롭게 열린 백제문화권 개발	충청남도 정책기획정보실장	칼럼
제4권 3호	최병학	충청남도 민선자치 도정 2기의 정책 방향	충남발전연구원 자치행정부장	특집
	지병문	6·4 지방선거의 의미와 평가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김병국	IMF체제 극복과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행정 연구실장	"
	이규환	IMF체제와 지방재정 운용 전략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이재영	불량폐기물 매립지의 사후 활용 방안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	논단
	정문경	사용 종료 쓰레기 매립장 활용을 위한 지방공학적 접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방연구실 선임연구원	"
	신준희	21세기 서해안 시대를 선도하는 萬世保寧	보령시장	칼럼
	최병학	2000년대 진입을 위한 충남도정의 행정 혁신	충남발전연구원 자치행정부장	특집
제4권 4호	강병주	IMF체제하의 지역개발 방향과 과제	한남대학교 지역개발학과 교수	"
	김정호	IMF체제하의 위기극복과 21세기를 향한 충남 농정의 전개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이상옥	21세기를 향한 충남 정보화 정책의 추진 전략	충청남도 정보통신 담당관	"
	정하성	청소년 약품 남용 실태 및 예방 대책	평택대학교 지역사회개발학과 교수	논단
	최병학	충청남도 지방 전문직 공무원 실적 평가의 예시적 검토	충남발전연구원 자치행정부장	"
	심문보		충남발전연구원 자치행정부 연구원	"
	박상돈	지식행정과 新빠꿈이 양성론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실장	칼럼

※ 「열린충남」 창간호에서 '97년 겨울호까지의 목차는 '97년 겨울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충남의 읽을거리가 풍부한 잡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계간(季刊)으로 발간하는 「열린충남」을 도서관·자료실에서 볼 때마다 충남 청양 출신인 나는 무슨 기사가 있을까 하고 이리저리 목차를 뒤져 보고 관심이 있는 주제가 있으면 읽어 보곤 했다. 우리나라에 지역을 대표하는 잡지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러할 때 매호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열린충남」은 이 분야를 전공하거나 전공하지 않거나 읽어볼 만한 마땅한 잡지가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다양한 주제와 함께 시의적인 글들이 수록되어 있어 더없이 좋은 읽을거리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것들이 있기에 이번 기회에 몇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한다.

먼저, 21세기를 대비한 충남지역의 다양한 변모의 모습을 쉽고, 평이하게 다루어 주었으면 한다. 예를 들어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형식의 기획물이 있었으면 한다.

두번째는 앞으로 이 잡지가 갖추어야 할 매력의 하나로 독자들이 읽기 쉽도록 사진과 그림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 잡지 편집방법을 생각했으면 한다.

덧붙여 이 잡지에서 게재된 글들을 중심으로 선별하여 새로 한 권의 책으로 발간해 이른바 “충남학”이 되도록 권하고 싶다. 아쉽게도 계간으로는 충남의 다종 다양한 이야기를 담을 수 없으며 발행형태를 격월간 정도로 좀더 늘렸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연구원의 무궁한 발전을 바란다.

이환재 · 소설가 (서울 관악구 사당동)



열린충남

「열린충남」에서는 참신하고 역량있는 필자들의 원고를 모집합니다. 충남 발전에 관한 연구논문, 정책제언, 기타 충남 관련 원고 등 충남의 미래에 관심을 기울인 새로운 내용 및 정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민 및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은 21세기 충남발전의 비전 및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체계적인 연구결과물을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세계화·정보화·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서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으니 관련분야의 실무자 및 연구자·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1. 회원가입 안내

- 가입방법 : 회원가입 신청서를 본 연구원으로 우편 및 팩스로 신청하고 회비를 지로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회원의 가입기간은 가입자가 신청서에 명시하지 않는 한 가입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 회비납부 : 농협 : 646-01-002405 예금주 : (재)충남발전연구원

2. 회원의 종류와 연회비

- 특별회원 : 10만원(1년 연회비)
- 일반회원 : 4만원(1년 연회비)

3. 가입의 혜택 및 내용

- 특별회원 : 기본연구보고서(6~12종)+단행본 발간도서(3~5종)+열린충남(계간지 4회)
- 일반회원 : 단행본 발간도서+열린충남(계간지 4회))

4. 회원에 대한 특전

- 회원가입시 국내 우송료는 본 연구원이 부담합니다.
- 가입기간 중 책값·송료가 오르더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연구원이 부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각종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연구원의 각종 심포지엄, 세미나, 강연회 등의 행사에 우선 초청합니다.
- 연구원 부설 자료실 이용 및 복사 가능(월~금 :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연구보고서 및 출판물, 정기간행물을 회원에게 제공합니다.

5. 문의처

충남발전연구원 정보자료센터

전화 : (042) 472-1909 팩스 : (042) 472-1913

회원가입신청서

충남발전연구원장 귀하

본인(기관)은 귀원의 간행물 회원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신청인(기관) (간행물수취인)	회원종류		특별 · 일반
발오실 곳			
우편번호	팩스번호		
전화번호	자택	직장	
회원가입기간	1999년 월 ~ 200년 월까지(년간)		

1999. . .

신청자

서명인

- 신청서는 팩스(FAX)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비가 입금되지 않으면 회원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 특별 · 일반회원 신청은 1년 이상이어도 가능합니다.
- 회비는 신청후 7일 이내에 입금하여 주시고 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금은 다음 계좌로 무통장 입금
계좌번호 : 농협 646-01-002405
입금주 : (재) 충남발전연구원
- 문의처는 충남발전연구원 정보자료센터
전화 (042) 472-1909 팩스 (042) 472-1913

일 반 사 항

1. 원고분량 : 200자 원고지 70매(더블스페이스 A4용지 11포인트 10매) 내외
2. 원고형식
가. 첫째 페이지에 논문제목, 저자 국한문 성명, 소속기관, 현직위, 소속기관 및 자택 주소, 주민등록 번호, 전화번호, 원고료 송금구좌번호 등을 기재
나. 둘째 페이지부터 논문의 내용을 1, 1, 가, 1), 가), (1) 의 기호체계에 의해 기재
3. 출 령 물 : 아래아한글 3.0 또는 한글오피스 97을 이용하여 작성한 논문 1부와 디스켓 1개
4. 원고심사 : 제출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하며 그 과정에서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
5. 원 고 료 :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 지급

원 고 작 성 시

1. 원고 작성시 본문 안에 노출된 도서명(책명)과 정기간행물명(신문, 잡지, 학회지 등)은 『 』, 논문명은 「 」안에 기입하고, 그리고 강조는 < >, 짧은 인용은 ‘ ’, 긴 인용은 “ ”로 표기해 주십시오.
2. 원고는 한글로 써 주시되 필요한 경우 한자와 영문, 전문용어, 약어는 괄호 안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3. 숫자는 만단위로 예시처럼 해주시고 만단위 아래는 풀어서 써주십시오(단, 표·그림은 풀어서 사용).
예시) 1만 5,000개, 1,360ha, 2조 1,300억, 1만 350명, 21억 2만, 216개,

본 문 주

1. 본문안의 인용은 다음 예시에 따르고 내역을 정리한 참고문헌은 미주로 처리
예시) (정지웅, 1995, p.30) 또는 정지웅(1990, p.30)
2. 내용주(content notes)는 일련번호를 명기하고 각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처리

참 고 문 헌

- 저자, 논문명(또는 서명), 출판사(항), 연도, 페이지 순으로 기재하되 논문은 “ ”안에 기입하고 도서명은 고딕으로(외국의 서명은 이탤릭) 표시
- 예시) ○ 국내논문 : 임양빈, “지방화시대의 충남지역 발전전략”, 열린충남, 제1권 제1호, 충남발전연구원, 1995, pp.14~35.
- 단 행 본 : 오연천, 한국지방재정론, 서울 : 박영사, 1995.
- 외국논문 : Batina, R.G., “Public Goods and Dynamic Efficienc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41, 1990, pp.389~400.
- 외국단행본 : Frenkel, J.A., and Razin, A., *Fiscal Policy and the World Economy*, Cambridge : MIT Press, 1987.

보/내/실/곳

(우) 302-12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9번지 사학연금회관 18F

충남발전연구원 정보자료센터

Tel. 042-472-1900, 1909 Fax. 042-472-1912

E-mail, chndi@chollian.net



302-12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9
사학연금회관 17/18층

TEL. 042) 472-1900 FAX. 042) 472-1912

ISSN 1226 - 637X